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권승호 최태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협동연구팀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51, 2645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 서중석 ; 권승호 ; 최태영
[공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4-14)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71-3 93340

309.11-KDC4

950.4-DDC21

CIP2004002332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한국은 새로운 국가전략 중 하나로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문화적 연대체제인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타당성과 주변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라는 좀더 넓은 틀 안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의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이 노력이 전개될 때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동북아시아적 특수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무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주도국으로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대해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향후 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전략의 이론적, 실제적 뒷받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동아시아의 또 다른 축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국간의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1)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 2)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간의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현황 분석, 3)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문화적 동질성과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노력의 동남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아세안 접근관계이해

현실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 국가간에 발생하는 각종 현안들은 동북아

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아세안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아세안 +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의 다자간 협력 기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단순히 중국의 한 지역인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의 아시아의 중심국가 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그 동안 냉전구조에서 암묵적으로 유지 되어왔던 티베트처럼 주변국가 혹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종속된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적극적인 대 아시아 정책(중국에 대한 견제)과 맞물려 중국의 외교정책에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내부분제로 국한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최근 한국과 역사분쟁도 이러한 중국의 기본적 외교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그 동안 한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와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증진시켰음에도 한국을 자극시키는 역사 분쟁을 시도하는 것은 장차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영토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단순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현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처럼 중국의 다른 지역의 현안을 고려한 아시아전체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은 서구화된 제도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방세계의 대 동아시아 관계의 중심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서구세력에 ‘협조하는(중국의 ‘선택적 협조’ 외는 개념이 다름)’ 아시아의 대표 국가를 자임하고 경제적으로 동아시아를 산업 구조적으로 종속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인 역할관계에서 나타나듯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 1980년대 이후 아세안 국가들,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을 이전하였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동북아시아 지역의 현안 역시 동아시아 정책과 세계화

에 대응하는 대외정책과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존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과 경쟁적으로 ASEAN + 일본 포럼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서방국가의 힘을 기반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한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지역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중요하다. 우선 거시적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부분의 해외이전으로 동남아시아는 국내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뒷받침 하는 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한국 수출의 11.4%를 차지하는 4대 교역 지역 중 하나다. 다시 말해 한국 대비 중국처럼 경쟁구조의 산업구조 관계에 있지 않고 한국과 상호 보완하는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생의 경제 협력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한국과 정치 및 사회·문화적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한류에 대한 인식과 달리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는 중국 문화, 일본문화 혹은 미국문화에 대한 대안문화로서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그 한 예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긍정적 태도는 역사적 배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은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의 침략이나 중국의 전통적인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가 없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아시아의 동반자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세안은 지속적인 통합 노력으로 인구 5억 4,000여만 명, 국내 총생산 7,0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과 산업적으로 협력적 관계에 있고, 정치적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의 대안문화로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체계적인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노력은 동남아시아를 포

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측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한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두 지역의 상호 유기적인 형성 노력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이후 동아시아에서 문화공동체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주요한 두 지역인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공동체 작업은 상호간에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보편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3.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근접성 및 교류관계 수준

본 연구서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성격을 분석하여 한국과의 문화적 근접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근접성의 정도는 한국과 동남아의 국가간에 어느 정도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좌표가 되며 나아가 한국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활동에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며, 어떤 부분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서는 근접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한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류활동의 수준을 각 국가별로 분석을 해보았다. 교류활동의 채널과 수준에 대한 이해는 향후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노력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될 때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근접성은 지역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인 정치 이념적 가치, 경제활동 가치, 종교적 가치, 전통과 언어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통계방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여기에서 근접성이란 한국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근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과 근접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4개 국가 모두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환경이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즉 반복된 외세와의 전쟁과 독립의 역사, 식민지경험, 중국의 영향, 급속한 산업화와 개방들을 경험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가장 높은 근접성을 나타내는 국가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다. 이는 국가의 형성을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태국과 베트남은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고 반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보다는 서남아시아와 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 기인한다. 그 예로 종교적인 가치를 살펴보면 한국과 높은 근접성을 유지하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은 불교와 기독교적 가치가 높은 데 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회교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정치이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4개국 중에서 한국과 가장 높은 근접성을 갖고 있는 국가는 태국이다.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순이고, 베트남이 가장 낮은 근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4개국 중에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위 항목별로 보면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양국 모두 단일 민족에 의한 국가를 형성해왔고 끊임없이 외세와 전쟁을 치른 경험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른 국가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낮은 편이다.

경제활동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들과 한국과 경제활동의 관습, 행위, 그리고 국가의 정책 개입 등에 대한 상이점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제도의 측면이나 경제를 운용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시장 경제 체제 범위 안에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 계획경제 체제를 경제 활동의 기본 가치로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과의 근접성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 활동 가치에 대한 역사적 경험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경제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시장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경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경제개발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근접성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과 태국이 한국과의 근접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것은 이 두 국가가 동북아 문화권에서 이주하였거나 영향권에 있었던 역사적 경험 때문으로 생각된다. 불교적 가치는 한국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훨씬 두드러진다. 그러나 종교적 가치 중에서도 기독교적 가치는 이들 국가들과의 공유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인 태국에서의 기독교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전통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태국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역사적으로 3국 모두 인접 강대국인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에 따라 유교적 가치는 양국 국민의 생활에서 기본 가치로 깊게 뿌리내려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동북아와 동남아의 문화적 가치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탓에 베트남은 인근 동남아 국가보다 오히려 동북아 국가인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보다 한국과의 근접성이 높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종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차지하는 중국화교의 비중이 30% 정도 되기 때문이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베트남과 태국과의 근접성이 높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낮은 편이다. 비록 3국 모두 독립된 언어인 한글, 베트남어, 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언어 상의 공유성은 없다. 그러나 이들 모두 동북아의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근접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4개국의 언어가 모두 소리글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어의 경우 프랑스 식민지 시절 한자 형태의 자국어가 로만글자를 차용한 소리글자로 전환되었고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경우이다. 태국어의 경우 또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글자의 사용 역시 소리글자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국간의 문화적 공동체 형성 기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을 분석하였다. 교류관계의 수준은 각국과 한국과의 정치활동의 교류, 경제활동의 교류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활동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정성적 통계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 교류수준이란 동남아 4개국과 한국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수준의 점수를 부여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과 교류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가장 높은 교류수준을 나타내는 국가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태국과 한국과 근접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태국보다 높은 교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외교 관계의 교류 수준은 경제와 사회·문화 관계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결국 양국 이념적 체제의 상이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류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로 이는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한국 산업 자원 기지와 노동집약적 부문의 국제 생산 기지로서 경제적 결합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관계 교류는 양국간의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와 한국 대중문화상품의 진출 등 사회·문화적 교류 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존 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로부터 독립 이후 대서방관계 혹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립적 외교관계 혹은 비동맹을 지지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바탕이 일본의 경제 후원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직 그 입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과 각 국가의 항목별 교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 국가간의 정치활동 교류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중에서 베트남과의 정치적 교류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양국간의 정치체제의 상이성에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비해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베트남에 비해 교류수준이 높은 편이나, 절대적 수준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이들 3국 모두 채택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기본 정책이 비동맹 혹은 이슬람연맹, 또는 서방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교류보다는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관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 국가간의 경제활동 교류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경제활동의 교류가 최대치에 도달해 있다. 이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현재 경제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 부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협력관계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이익관계의 해체는 경제적으로 경쟁관계로 돌아서면 언제든지 협력관계는 경쟁 혹은 갈등관계로 변화된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실지로 아직은 완전한 경쟁관계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일본-중국의 산업구조는 각국들의 성장속도에 따라 몇몇 부문들은 심각한 통상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에 의한 경쟁 및 갈등구조는 다른 협력관계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의 한국과 동남아시아 4국간의 교류수준을 분석해보면 베트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적인 이유는 문화권에 대한 수용성 여부이다. 베트남과 태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북아 문화권에 가까운 편이다. 그 중에서 특히 베트남의 경우 더욱 그 근접성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의 전이과정과 시기 그리고 지역 환경에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초 기존의 사회주의적 체제와 가치에서 급격한 경제개방과 성장을 겪은 후 이에 따른 서구문화, 즉 자본주의적 문화, 혹은 도시문화 등에 대한 대안문화가 필요하였다. 그 시점에 선택한 가장 근접하고 수용성이 높은 한국의 문화 혹은 대중문화가 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태국의 경우 가장 근접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낮은 것은 이미 300여년의 개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이전에 일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 그리고 이미 진행된 서구화에 대한 기반 등이 한국 사회·문화의 현지 교류를 상대적으로 더디게 만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화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4. 한국-동남아간의 근접성 강화에 따른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과 방안 모색

한국-동남아시아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의 강화는 향후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용이하게 해 준다. 또한 이는 다시 한국-동남아간의 근접성을 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과 베트남간 교류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근접성 때문에 한국 문화의 현지 진출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던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더욱 극대화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교류는 대부분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서로의 경제력과 산업구조에 맞는 협력적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와의 근접성은 경제교류에 치우친 근접성이지 정치와 사회·문화적 교류에 의한 근접성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근접성은 향후 한국-동남아시아간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정치, 사회·문화적 근접성의 튼튼한 기반이 없는 경제적 이익관계를 목표로 한 경제적 근접성은 언제든지 해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70년대의 한국과 198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교류관계에 치중하여 지역에서 '일본은 경제적 가치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의 국가'라는 비판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현재 일본에 대한 현지의 국제협력 혹은 일본 문화의 현지 전이의 장애요소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지 국가의 경제적 지배력(직접투자의 감소로 인한)이 약해지자 한때 유행하던 일본 문화에 대한 퇴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다행히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교류관계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지의 노사관계 문제 등의 갈등으로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었지만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의 열풍 등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우호적인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교류관계는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적 교류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사회·문화적 협력 개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한국-동남아시아간의 교류관계를 경제적 이익관계 수준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협력과 공존을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협력관계 강화는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 형성으로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 사회·문화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동남아시아간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문화공동체 형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류관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해야 할 사회·문화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현실적인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각 부문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및 외교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현지 진행하고 있는 문화외교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정부관계자의 문화적 인식과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한국 행정제도의 현지화를 지원한다. 나아가 양국 정부의 문화관련 또는 문화산업 조직의 정책 세미나 및 인적 교류의 강화도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한국관계 종사자인 현지인들의 한국 이미지와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며, 한국 투자기업을 통한 사회·문화활동과 더불어 한국 투자기업의 한국문화 마케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사회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학 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베트남 내의 한국인의 불법적인 행위의 근절을 통한 도덕성과 한국과 현지 종교 및 인권단체 등의 민간 사회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문화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문화상품과 연계한 문화 교류 행사의 전략적 기획과 지원을 도모하며, 양 국가간의 문화활동 단체의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 산하의 문화정책 및 지원기관의 정책회의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현지의 한국 정부기관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행사의 조정기구를 조직한다. 양 국가간의 문화산업 교육기관의 교육세미나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수한 현지인의 한국 또는 현지의 한국 문화교육을 통해 친한 한국 문화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한국 내 동남아시아 장기 체류자의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향후 양국간의 중요한 인적 채널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부처간의 전략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도적'이란 의미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각 부문의 이익단체의 문화공동체 형성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화상품 관련 진출 기업은 문화상품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우선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문화상품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동시에 이에 따른 현지의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정부 부처간의 전략적 협조 하에서 별도의 예산의 투입이 없이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문화 제국주의'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즉, 문화적 근접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호 호혜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목 차

I. 서론: 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1
1. 연구목적	3
2. 연구배경	4
3. 조사의 범위와 방법론	8
4. 보고서의 구성	13
II.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대(對) ASEAN 접근관계 이해	15
1. 중국의 대 ASEAN 관계	17
2. 일본의 대 ASEAN 관계	20
3. 한국의 대 ASEAN 관계	22
III. 한국과 베트남 교류관계 이해	25
1. 베트남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27
2. 한국-베트남의 교류관계 현황	42
IV.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류관계 이해	83
1.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86
2. 한국-인도네시아의 교류관계 현황	101
V. 한국-태국의 교류관계 이해	121
1. 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123
2. 한국-태국의 교류관계 현황	144

VI.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류관계 이해	163
1.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165
2. 한국-말레이시아의 교류관계 현황	182
VII. 결론: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노력의 동남아 확대가능성 ...	203
1. 한국-동남아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이해 ...	207
2. 한국-동남아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 이해	217
3. 한국-동남아간의 근접성 강화에 따른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과 방안 모색	221
참고문헌	227

표 · 그림목차

<표 II-1>	중국과 아세안간의 무역 규모의 변화, 1993-2002	19
<표 II-2>	일본과 아세안간의 무역 규모의 변화, 1993-2002	21
<표 II-3>	한국과 아세안간의 무역 규모의 변화, 1993-2002	23
<표 III-1>	베트남 GDP/ 1인당 GDP 추이, 1990, 1995-2002	31
<표 III-2>	베트남 산업구조의 변화, 1986, 2002	33
<표 III-3>	호치민시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2000	38
<표 III-4>	베트남 인구 추세와 특성, 1990-2002	40
<표 III-5>	베트남 재학생 수, 2002	41
<표 III-6>	정치 및 정부관련 기관의 베트남 방문현황, 1994-2002	44
<표 III-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경제부문, 1959-2004	45
<표 III-8>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사회일반 부문, 1964-2003	45
<표 III-9>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협력 부문, 1995-2003	46
<표 III-10>	한국-베트남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1994	47
<표 III-11>	대 베트남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1-2002	48
<표 III-12>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규모와 특성, 1992-2002	50
<표 III-13>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2	52
<표 III-14>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2	53

<표 III-15>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 품목 중 문화관련 품목 비교, 2002	54
<표 III-16> 한국의 대 베트남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1	55
<표 III-17>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0대 국가, 1980-2003.10. 누계기준	56
<표 III-18>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국적별 고용현황, 2003	57
<표 III-19> 호치민시의 한국교민 자영업 현황 변화, 2001-2003 ..	67
<표 III-20> 베트남 LG 화장품의 한국 TV 드라마 스폰서 현황, 1998-2002	76
<표 III-21> 베트남 LG 화장품의 프로모션 현황	77
<표 III-22> 한국인 점주에 의한 매장 현황, 2003	80
<표 IV-1> 인도네시아 GDP/1인당 GDP 추이, 1996-2002	93
<표 IV-2>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의 변화, 1996, 2002	94
<표 IV-3> 인도네시아 인구 추세와 특성, 1980-2003	99
<표 IV-4> 인도네시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2001-2003	101
<표 IV-5>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경제부문, 1971-2003	102
<표 IV-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사회 일반 부문, 1978-2003	103
<표 IV-7>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협력 부문, 1988-2003	103
<표 IV-8> 대 인도네시아 경제협력기금 지원 현황, 1987-2000 ..	104
<표 IV-9> 대 인도네시아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1-2002	105
<표 IV-10>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와 그 특성, 1992-2002	107

<표 IV-1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108
<표 IV-12>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110
<표 IV-13>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3	111
<표 IV-14>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0대 국가, 1980-2004.8 누계기준	112
<표 IV-15> 업종별 대 인도네시아 투자현황(2004년 8월 현재/ 신고기준)	113
<표 IV-16> 주요 산업별 한국기업 현황, 2003	114
<표 IV-17> 자카르타 한국교민의 자영업 규모, 2000	120
<표 V-1> 태국 GDP/1인당 GDP 추이, 1990-2002	131
<표 V-2> 태국 산업구조의 변화, 1983, 1993, 2002, 2003	133
<표 V-3> 태국 인구 추세와 특성, 1990-2002	142
<표 V-4> 한국과 태국 정치 및 정부관련 인사의 상호방문 현황, 1991-2003	145
<표 V-5>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 경제부문, 1961-2004	146
<표 V-6>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 사회일반부문, 1967-2004	147
<표 V-7>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48
<표 V-8> 대 태국 무상협력사업실적 및 지원현황, 1991-2001 ..	149
<표 V-9> 한국과 태국의 무역 규모와 특성, 1992-2003	151
<표 V-10> 한국 대 태국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152

<표 V-11> 한국 대 태국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154
<표 V-12> 한국의 대 태국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3	155
<표 V-13>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8대 국가, 1980-2004. 8 누계기준	157
<표 VI-1> 말레이시아 GDP/1인당 GDP 추이, 1996-2002	172
<표 VI-2> 말레이시아 산업구조의 변화, 1980, 1995	173
<표 VI-3> 2004년 말레이시아 슈퍼 브랜드 현황	175
<표 VI-4> 말레이시아 인구 추세와 특성, 1990-2003	179
<표 VI-5> 말레이시아 교육환경 변화, 1991, 2000	181
<표 VI-6>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치 및 정부관련 인사의 상호방문 현황, 1966-2003	183
<표 VI-7>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경제부문, 1962-1988	184
<표 VI-8>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사회일반 부문, 1965-1995	185
<표 VI-9> 대 말레이시아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8-2003	185
<표 VI-10>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 규모와 특성, 1992-2004 ..	188
<표 VI-11>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	189
<표 VI-12>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	190
<표 VI-13>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4 ..	191
<표 VI-14>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8대 국가, 1980-2004.8 누계기준	194
<표 VI-15> 연도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현황(승인기준)	195
<표 VI-16> 말레이시아 주요 투자업체, 2000년 기준	196
<표 VI-17>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 지원 실적 (1983-1997)	197

<표 VI-18> 재말레이시아 한국교민 자영업 현황, 2004	201
<표 VII-1>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분석	208
<표 VII-2> 한국-동남아시아 4개 국가들과의 정치 이념적 근접성 분석	211
<표 VII-3>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경제활동 가치의 근접성 분석	212
<표 VII-4>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종교적 가치의 근접성 분석	213
<표 VII-5>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전통적 가치의 근접성 분석	215
<표 VII-6>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언어적 가치의 근접성 분석	216
<표 VII-7>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 분석	218
<그림 I-1> 연구 및 조사 모형	12
<그림 III-1> 베트남 GDP 성장 추이, 1990, 1995-2002	32
<그림 III-2> 호치민시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2000	38
<그림 III-3> 베트남 재학생 학력별 비율, 2002	41
<그림 III-4> 대 베트남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추이, 1991-2002	49
<그림 III-5> 한국과 베트남의 수출입 현황, 1992-2002	51
<그림 III-6>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품목 분포, 2002	52
<그림 III-7>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품목 분포, 2002	53
<그림 IV-1> 인도네시아 1인당 GDP 성장 추이, 1996-2002	93

<그림 IV-2>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의 변화, 1996, 2002	94
<그림 IV-3> 대 인도네시아 무상협력 사업 실적 및 지원 현황 추이, 1991-2002	106
<그림 IV-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분포, 2003	109
<그림 IV-5>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품목 분포, 2003	110
<그림 IV-6>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추이, 1997-2003	112
<그림 V-1> 태국 GDP 추이, 1990-2002	132
<그림 V-2> 태국 산업구조의 변화, 1983, 2003	133
<그림 V-3> 대 태국 무상협력사업실적 및 지원 추이, 1991-2001	149
<그림 V-4> 한국과 태국의 수출입 추이, 1992-2003	151
<그림 V-5> 한국 대 태국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153
<그림 V-6> 한국 대 태국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154
<그림 V-7> 한국의 대 태국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3	155
<그림 VI-1> 말레이시아 GDP 성장추이, 1996-2002	172
<그림 VI-2> 대 말레이시아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8-2003	186
<그림 VI-3>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품목 분포, 2003	189
<그림 VI-4>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품목 분포, 2003	191
<그림 VI-5>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추이, 1997-2003	192
<그림 VII-1>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208
<그림 VII-2> 한국-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209

<그림 VII-3>	한국-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209
<그림 VII-4>	한국-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210
<그림 VII-5>	한국-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 210
<그림 VII-6>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이념적 근접성 분석	211
<그림 VII-7>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경제활동가치 근접성 분석	213
<그림 VII-8>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종교적 가치 근접성 분석	214
<그림 VII-9>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전통적 가치 근접성 분석	215
<그림 VII-10>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언어적 가치 근접성 분석	216
<그림 VII-11>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분석(전체)	218
<그림 VII-12>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분석(항목별)	219
<그림 VII-13>	문화적 근접성 분석의 모형	222
<그림 VII-14>	사회·문화적 협력관계와 기대 효과	224

I

서론

: 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필요성

현재 한국은 새로운 국가 전략 중 하나로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문화적 연대 체제인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의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고 그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이 ‘동아시아적 문화공동체’라는 좀더 넓은 틀 안에서 펼쳐져야 한다. 즉,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의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전개되어야만 현재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 공동체에 대한 동아시아적 보편성은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북아국가들에 대해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향후 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장기적인 목적은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한 중심축인 동남아시아와 한국간의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구체적으로 세 단계의 단기 목표들로 나뉘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남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 이들 국가간의

사회·문화적 교류관계의 현황 및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문화적 동질성과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노력의 동남아 확대 가능성을 알아본다. 두번째 연구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정책의 동남아 확대를 위한 현지의 사회·문화 인프라를 한국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사회·문화 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한국-동남아국가의 사회·문화 교류관계의 협력시스템, 문화산업의 현황과 제도의 비교분석 등이 주요 영역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식적·비공식적인 문화공동체의 연대체제를 위한 한국-동남아 국가의 문화공동체 형성의 관련 핵심 기관 및 인적 자원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와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할 생각이다. 최종 단계에서는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네트워크와 동남아 네트워크의 전략적 연결모형 개발과 협의체 운용에 대한 방안, 그리고 한국 문화와 문화산업이 동아시아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방안이 될 것이다.

2. 연구 배경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을 비롯한 일본 및 중국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역동성 있는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권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와 각 지역별 강대국의 지역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3국이 그 동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어 유럽 공동체(EU: European Union),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같은 지역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립과 갈등관계의 동북아시아 지역관계가 지정학적, 문화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이 중심이 되어 협력 및 공동발전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문, 사회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회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의 일부로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노력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어 차후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 작업이다.

본 연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2003. 12)’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정의(p. 3)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공통분모로 하여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체제”이다. 즉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공유에서 나타난 정신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현시대에 나타난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고 세계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의 현실을 기반으로 이러한 한국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 내용과 목표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중요하다. 우선 거시적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이미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부분의 해외 이전 기지인 동남아시아는 국내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뒷받침하는 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ASEAN은 한국 수출의 11.4%를 차지하는 4대 교역국 중 하나다.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처럼 경쟁 구조의 산업구조 관계에 있지 않고 한국과 상호 보완하는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생의 경제 협력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한국과의 정치 및 사회·문화적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한류에 대한 인식과 달리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는 중국문화, 일본문화 혹은 미국문화에 대한 지역의 대안문화로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선호는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처럼 역사적인 역동성의 결과로 축적된 상호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남아시아 지역국가에는 없기 때문에 더욱 높다. 즉, 일본의 식민지 전쟁, 중국의 전통적인 패권주의로 인한 현지의 우려의 시각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사적 부채가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기에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한국을 아시아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 현재 ASEAN은 지속적인 통합 노력으로 인구 5억 4,000여만 명, 국내 총생산 7,0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과 산업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고, 정치적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의 대안문화로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관계 이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한국-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형성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이 앞서 언급한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용이하게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의 주요한 두 지역인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공동체 작업은 상호간에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보편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 국가간에 발생하는 각종 현안들은 동북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ASEAN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아시안 태평양 경제 협력(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모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ASEAN +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의 다자간 협력 기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단순히 중국의 한 지역인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의 아시아의 중심국가 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그 동안 냉전구조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티베트처럼 주변국가 혹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종속된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적극적인 대 아시아 정책 - 중국의 제어 - 과 맞물려 중국의 외교정치에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내부문제로 국한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최근 한국과의 역사분쟁도 이러한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그 동안 한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와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증진시켰음에도 한국을 자극시키는 역사 분쟁을 시도하는 것은 장차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영토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단순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현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처럼 중국의 다른 지역의 현안을 고려한 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은 가장 발달된 서구화 제도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방세계의 대 동아시아 관계의 중심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서구세력에 ‘협조하는(중국의

‘선택적 협조’와는 개념이 다름) 아시아의 대표 국가를 자임하고 경제적으로 동아시아를 산업 구조적으로 종속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인 역할관계에서 나타나듯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주의를 제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1980년대 이후 아세안 국가들,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을 이전하였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현안 역시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 정책과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외정책과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존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과 경쟁적으로 ASEAN + 일본 포럼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서방 국가의 힘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한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지역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측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동남아시아의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은 한국 주도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그 보편성을 뒷받침한다. 전략적으로 두 지역의 상호 유기적인 형성 노력은 향후 한국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문화공동체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3. 조사의 범위와 방법론

상이한 독특한 두 문화권이 만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기반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간에 형성된 상이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다. 이론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수용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채

널이 되는 것은 환경적으로 첫째, 정치 및 외교적인 교류, 둘째 다양한 경제 및 산업 활동의 교류, 셋째 민간차원의 교류 관계 등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 및 외교적인 교류 관계는 주로 정부간에 일어나는 공식적인 교류 관계를 가리킨다. 양국 정부간 호혜적인 이익 관계를 공식화하는 외교 행위와 양국간의 경제 및 산업, 또는 민간 교류 관계를 공식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 공식시스템(정부 정책, 제도 등)의 교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경제 및 산업 활동의 교류관계는 두 국가간에 발생하는 직간접의 산업 교역 행위를 말한다. 양국의 교역 수준은 곧 경제 및 산업의 결합(연관)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활동에 따른 관습이나 인적 교류는 문화 전이 및 문화 상품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 중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문은 이주민에 의한 교류이다. 이주민이란 한 지역 문화권의 문화적 특성과 관습 그리고 행동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다른 문화권으로 정착하는 이민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개별 그룹일 때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현지의 문화권 속으로 용해되지만 현지에서 일정한 영향을 주는 집단화를 이루고 본국 문화권과 지속적인 교류 창구가 될 때, 또는 앞서 언급한 본국과 현지국가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류의 매개체 혹은 기반이 될 때에는 현지의 문화권에 본국 문화를 전파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른 중요한 민간 교류 채널로서 다국적 기업 혹은 현지 투자 해외기업을 들 수 있다. 이들 또한 이민자들처럼 시장 진출 혹은 세계 경영 전략 등을 위해 다른 문화권으로 진출하지만 이들의 기업 행위에는 본국 문화권의 문화적 가치, 규범 또는 관습들이 내재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 행위 이전은 특정한 기업 또는 경영 문화를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옮겨진 현지의 기업 문화는 본국 문화의 하위문화로 볼 수 있으며, 본국 문화와 공통적 요소를 지닌다. 이를 통해 역으로 본국의 전체 문화, 또는 본국의 여타 하위문화를 이

해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을 사회·문화적 전이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본국의 문화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구축하는 기업군이다. 문화나 문화상품을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지는 않으나 소비자, 또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본국 문화 광고를 통해 항공기 이용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본국의 문화생활 양식을 근거로 하거나, 바탕에 깔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군이다. 이들의 이전은 자연스럽게 문화생활 양식의 이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문화의 전이나 문화 상품의 진출에도 큰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 산업으로, 유명한 음식점이나 고급 백화점 등 유통 관련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현지 성공 여부는 기업의 문화적 요소를 현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과 현지인 고용은 한국 문화의 전이와 민간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고용된 현지인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한국이라는 경제, 사회적 의미의 단어와 연관돼 있다. 앞서 기업 문화 혹은 경영 문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기업이 비록 시장 진출, 세계 경영 전략 등을 이유로 다른 문화권으로 진출하지만 생산이나 경영 등 기업 행위에는 본국 문화권의 문화적 가치, 규범, 또는 관습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 행위의 이전은 동시에 특정한 기업 문화, 혹은 경영 문화의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의 전이, 문화 상품의 진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지 고용인들은 진출 기업의 경영 문화에 내재한 본국의 문화적 가치에 가장 접근하고, 또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그룹이므로 직접 문화상품을 소비할 가능성 또한 높다. 또 기업 활동은 현지에서 본국의 문화 또는 문화 상품을 간접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파급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이 채널로서의 기업의 역할은 현지에서 초래될지도 모를 고용인과의 문화적

혹은 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국은 이 같은 다양한 교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보편성도 넓혀 간다. 양국간 교류 관계가 문화 전이나 문화적 공유성 확대를 위한 기본 토양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국간의 다양한 교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한국과의 문화 공동체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현재의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첫 단계인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다룬다. 본 연구의 조사 범위는 상기의 연구 목적에 따라 조사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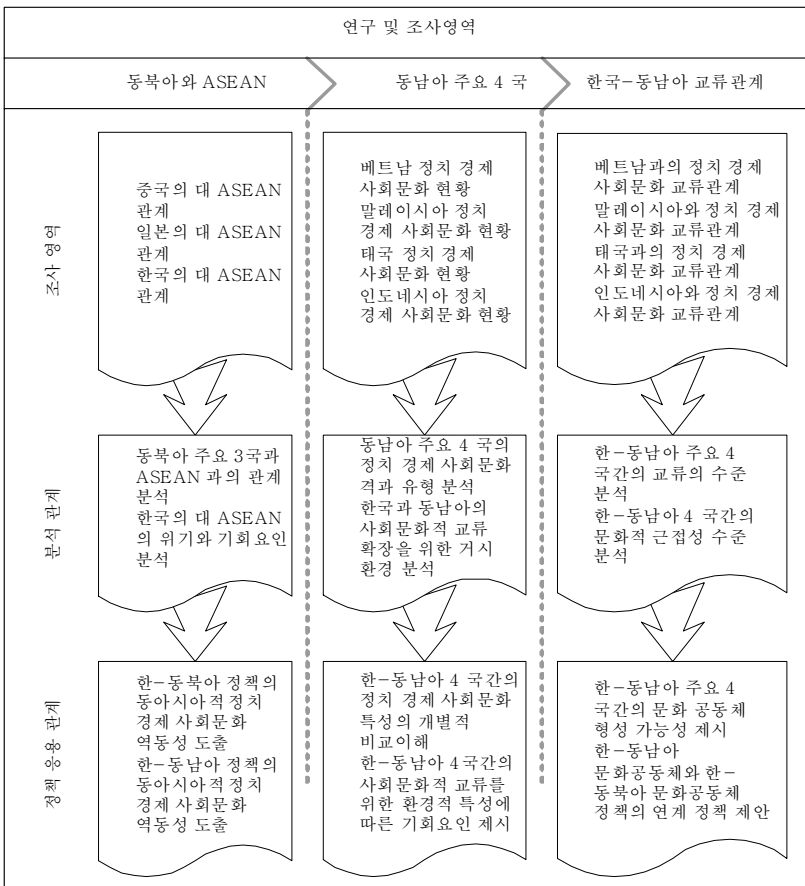
첫째,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대 ASEAN과의 정치, 경제 및 사회부문 관계를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3국과 ASEAN과의 접근 방법과 목적 그리고 수준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 ASEAN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둘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4개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현황을 다루었다. 현황에 대한 조사는 이들 주요 4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적 교류 확장을 위한 거시 환경분석을 제공해준다. 정책적으로 한국-동남아시아 4개국간의 다양한 특성과 개별 비교함으로써 향후 사회·문화적 교류에 따른 환경 특성과 기회 요인을 이 부문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주요 4개국간의 교류관계 현황을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교류관계의 특성과 수준 이해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결합 수준을 결정짓는 문화적 근접성 분석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주요 4개국간의 문화공동체 형성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아래의 연구 조사 모형은 구체적으로 각 조사 영역의 설정과 그 조사 영역에서 분석할 내용,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관계를 내용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I-1> 연구 및 조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기본 방법으로 현지 조사를 채택하고 통계적 설문 조사를 보조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방문 조사에 사용한 연구 조사기법은 정성적 연구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이었다. 이는 사례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관련 행위의 심층적 자료를 용이하게 획득하고 또한 기록 자료의 다양한 수집으로 해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본 조사방법은 소수 다중적 조직의 사례 연구에 적합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례 대상의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과 정책 이행과정 등 사회·문화적 행위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다.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KAREC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에서 문화 관련 정부 정책 관계자, 기업 그리고 한국문화 소비계층에 대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면담에는 관련 현지 한국 정부관계자, 기업과 한국교민들도 포함된다.

4.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은 연구의 목적과 배경, 조사범위와 방법론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역경제 협력 공동 커뮤니티인 ASEAN과 동북아 지역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제 III 장에서 VI 장까지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4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현황과 이들 국가와 한국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 VII 장 결론에서는 앞장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간의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과 동북아 문화공동체 노력의 동남아 확대 가능성을 제시한다.

II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대(對) ASEAN 접근관계 이해

제 II장에서는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적 정치경제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동남아시아의 정치경제 커뮤니티인 ASEAN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 지역과 동북아시아와 관계는 몇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현대국가의 모습들이 갖추게 되면서, 또한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관계가 경제와 이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중국을 필두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등을 한 축으로 하고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나머지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제한적으로 태국은 중국과 1970년대 수교를 하면서 중립국을 표방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 동맹을 강화하는 정치 외교전략으로 어느 정도 중간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다. 어쨌든 198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집중적인 해외직접투자, 이후 한국의 동반 투자 등으로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연동되어 고도성장을 하게 되었고 세계 경제에서 떠오르는 시장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의 동북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1990년대 베트남의 경제개방 정책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그 동안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와 적극적으로 정치 안보외교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1. 중국의 대 ASEAN 관계

중국의 대 아시아 외교정책들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주도권 확보, 이념적으로는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사회주의 국가 대표성 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초강대국이라는 거시적 국가목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

서방세계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국가 목표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현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그 동안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 아시아 정책들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적 활동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일본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제어-에 자극을 받아 아시아에서의 유일 강대국으로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및 군사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ASEAN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경쟁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ASEAN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것도 이러한 정치 및 군사적인 외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이후 중국은 ASEAN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상급 및 고위급 방문외교를 통하여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적으로 양자차원의 미래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우호협력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채택하였다. 말레이시아와는 방위산업 협력을, 태국과는 군사외교를, 인도네시아와는 광범위한 지역안보와 국제질서 문제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는 군사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협력의 범위를 통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넘어선 포괄적 군사안보 협력 분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중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태국과는 이미 1970년대 ASEAN 국가로서는 최초로 공식수교를 하였고 현재 역내 가장 이상적인 중국의 협력 파트너 또는 나아가 사실상의 동맹국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ASEAN간 경제관계도 다방면에서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1996년 중국-ASEAN간 교역규모 150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550억 달러로 성장하였고, 2000년 ASEAN의 대중국투자는 약 30억 달러, 중국의 대ASEAN 투자도 9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은 ASEAN 국가들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적 관계를 강화시켜 중국-ASEAN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ASEAN의 주요 역내 사업인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중국과 ASEAN간의 육로연결

강화, 1997년 금융위기 직후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금융지원, 역내 최빈국들에 대한 대규모의 부채탕감과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2002년 11월 중국은 ASEAN과 2015년까지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래의 표는 중국과 아세안간의 무역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1993년에 비하여 2002년 약

<표 II-1> 중국과 아세안간의 무역 규모의 변화, 1993-2002

아세안의 대 중국 수출 규모

(단위: 천달러)

국 가	수 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르나이	-	37.1	152.2	115.4	0.0	0.0	244.2	22,270.0	127,741.3	157,323.3
캄보디아	-	-	-	-	-	-	-	285,985.0	224,384.2	7,562.3
인도네시아	1,249,494.1	1,280,043.2	1,741,717.8	1,867,758.2	2,123,041.2	1,832,034.4	3,338,942.2	4,321,848.9	3,490,998.1	2,902,947.7
말레이시아	1,202,628.5	1,859,707.4	1,806,866.6	1,519,935.5	1,313,812.7	1,545,082.2	4,595,865.8	6,433,437.9	6,229,130.5	4,763,693.5
미얀마	-	-	-	-	-	-	65,076.9	86,525.3	103,700.5	53,918.6
필리핀	173,874.0	163,967.0	212,938.6	327,921.7	244,411.6	343,682.6	2,521,925.8	2,570,611.5	2,372,582.0	1,355,825.2
싱가폴	1,902,697.9	2,000,065.8	2,439,216.6	3,214,704.8	4,195,491.8	4,059,714.3	12,718,557.3	16,236,398.3	16,140,398.9	6,851,383.1
태국	-	-	-	543,696.6	1,291,132.0	1,422,072.6	3,231,764.2	5,077,586.6	2,862,555.1	3,454,885.7
합 계	4,528,694.5	5,303,820.5	6,200,891.8	7,474,132.2	9,167,889.3	9,202,586.1	26,472,376.4	35,034,663.5	31,552,090.6	19,547,549.5

참고 : 1999-2001년 통계치는 홍콩포함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각년도

아세안의 대 중국 수입규모

(단위: 천달러)

국 가	수 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르나이	-	34,931.4	63,336.5	72,500.2	55,090.6	20,620.9	72,415.9	84,958.9	97,356.1	62,069.1
캄보디아	-	-	-	-	-	-	-	364,110.9	203,774.4	197,305.8
인도네시아	935,983.3	1,477,386.7	1,495,223.3	1,235,458.7	1,518,013.9	904,459.4	1,469,664.0	2,364,323.0	2,089,989.6	2,427,368.6
말레이시아	816,772.8	1,200,709.0	1,516,774.7	1,719,986.8	1,916,805.4	1,685,513.6	3,358,966.0	6,572,884.9	5,129,407.3	5,426,264.9
미얀마	-	-	-	-	-	-	223,665.3	261,734.9	394,914.4	211,685.5
필리핀	180,662.9	294,046.6	475,876.6	676,506.8	871,565.5	1,198,911.2	2,265,960.7	1,984,916.9	2,212,320.0	1,244,039.1
싱가폴	2,402,944.9	2,751,912.8	3,578,512.1	4,205,358.5	5,808,553.0	4,853,367.7	8,878,527.6	10,637,225.3	9,982,659.7	8,853,699.1
태국	-	-	-	1,307,809.3	3,312,855.6	2,548,662.2	3,138,797.8	4,210,755.3	3,712,652.5	4,789,799.1
합 계	4,336,363.9	5,758,986.5	7,129,723.2	9,217,620.3	13,482,884.0	11,211,535.0	19,407,997.3	26,480,910.1	23,833,074.0	23,212,231.2

참고 : 1999-2001년 통계치는 홍콩포함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각년도

4배 이상 성장하였다. 아세안의 중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동기간에 약 6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중국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ASEAN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뢰와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중국과 ASEAN의 2002년 11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과 관련한 “남중국해 행동지침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이다. 이는 남중국해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협의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과 이해당사국의 공동합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중국해의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문제로 미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배제하고 역내의 이해당사국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미이다. 더욱 발전적인 것은 2003년 10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공식가입하여 ASEAN의 역내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고 중국의 신뢰를 확보하였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 재배치와 관련하여 2004년 11월 ASEAN 10개국 회원국 등이 참여하는 신안보포럼을 북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 일본의 대 ASEAN 관계

1980년대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대 동남아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동남아시아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그리고 동남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동남아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일본의 산업자본은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간 산업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구축하여 일본과 동남아 경제와 연동되는 역내 경제적 연계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산업협력 구조는 바로 동남아시아의 경제 침체로 이어져 오히려 그 역효과가 더욱 확대되었다. 더욱이 강력한

경제협력만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외교정책은 상대적으로 그 협력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오히려 다른 부문의 관계가 무너지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초반 ASEAN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학회의(EAEC: Eastern Asian Economics Conference) 제안과 1997년부터 추진하는 ASEAN+동북아 3국 포럼에 대해 미국을 의식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이다.

<표 II-2> 일본과 아세안간의 무역 규모의 변화, 1993-2002

아세안의 대 일본 수출 규모

(단위: 천달러)

국 가	수 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르나이	-	948,303.3	1,630,619.0	1,350,356.0	1,391,744.9	1,088,515.3	1,187,401.8	986,400.5	1,671,878.8	966,307.2
캄보디아	-	-	-	-	-	-	-	10,731.0	13,292.1	18,865.6
인도네시아	11,172,203.8	10,505,075.2	12,288,296.9	9,981,326.5	11,721,778.5	9,116,019.2	10,397,201.7	14,415,190.0	13,010,175.5	12,045,115.5
말레이시아	6,059,429.8	6,640,140.3	8,549,975.0	9,104,432.3	6,813,692.5	6,211,360.9	6,616,606.4	8,999,445.1	9,181,263.7	7,518,307.4
미얀마	-	-	-	-	-	-	58,479.5	64,901.0	84,029.7	73,514.5
필리핀	1,817,417.3	2,013,866.6	2,735,624.8	3,667,893.5	4,194,401.4	4,233,903.9	4,664,212.5	5,608,677.8	5,057,442.9	5,293,290.9
싱가폴	5,523,994.0	6,451,113.4	8,162,916.6	9,611,717.6	9,059,678.4	7,223,752.4	8,507,812.2	10,411,692.0	9,327,394.3	8,930,069.0
태국	6,379,188.2	7,741,144.2	9,313,280.4	9,434,605.7	8,827,282.4	6,833,217.9	6,255,371.2	14,296,874.0	9,965,547.6	9,657,931.6
합계	30,952,233.1	34,299,643.0	42,680,712.7	43,150,331.6	42,008,578.1	34,716,769.6	37,687,065.3	54,743,911.4	48,311,224.6	44,503,391.7

출처: ASEAN Statistical Book, 각년도

아세안의 대 일본 수입 규모

(단위: 천달러)

국 가	수 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르나이	-	184,255.3	186,011.6	224,366.5	250,055.3	70,356.1	105,803.9	71,706.4	117,999.3	217,583.9
캄보디아	-	-	-	-	-	-	-	57,829.3	19,573.1	63,769.1
인도네시아	6,248,429.3	8,452,423.2	9,229,977.4	6,503,096.7	8,252,298.5	4,292,433.8	2,913,290.3	5,397,254.9	4,689,470.3	4,409,312.8
말레이시아	12,630,153.0	15,541,613.4	19,672,862.5	17,635,460.9	15,300,322.2	10,051,875.9	11,228,334.5	15,398,400.7	12,068,216.4	12,189,387.3
미얀마	-	-	-	-	-	-	221,844.4	186,975.8	377,534.0	230,461.8
필리핀	4,029,956.5	5,184,786.6	4,807,578.8	6,123,902.9	7,414,133.2	6,029,941.3	6,136,001.1	6,027,374.7	6,098,410.7	6,954,108.8
싱가폴	18,654,198.5	21,470,723.8	23,284,001.9	22,324,363.8	23,724,058.8	16,989,991.3	18,480,667.7	23,177,111.6	16,070,830.0	14,564,863.7
태국	4,140,189.4	16,468,677.0	21,354,931.8	20,498,899.6	16,323,346.5	9,259,113.1	12,380,014.3	15,310,547.2	13,884,544.1	14,444,217.8
합계	55,702,926.7	67,302,479.3	78,535,164.0	73,310,060.4	71,264,224.5	46,693,711.5	51,465,996.2	65,627,200.6	53,326,577.9	53,083,705.1

출처: ASEAN Statistical Book, 각년도

그러나 일본은 2001년 11월 중국과 ASEAN이 전격적으로 FTA 추진에 합의한데 충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ASEAN과 2002년 11월 상호 긴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 경제 협력관계를 추진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의 주요내용은 FTA 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2002년 11월 중국과 ASEAN간 경제협정과는 대조적으로 양측간 FTA 이외에도 인적자원 개발과 투자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과 ASEAN간 향후 10년 내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1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책으로서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03년 12월 동경에서 사상 최초의 일본-ASEAN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ASEAN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II-2>는 일본과 아세안간의 무역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의 대 일본 수출 규모는 1993년에 비하여 2002년 약 1.5 배 정도 성장하였다. 아세안의 일본으로부터 수입규모는 동 기간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었다. 아직도 아세안과 중국과의 무역거래 규모 보다는 약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과 일본의 경제협력 규모가 침체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3. 한국의 대 ASEAN 관계

한국은 1990년대 이후 ASEAN과 괄목할 만한 경제협력관계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 사회·문화 부분의 교류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기초적으로 한국의 외교가 한반도와 통일의 문제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주변 강대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에 대한 반동으로 1997년 ASEAN+동북아 3국 협력체가 출범한 이래 한국은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및 동아시아 연구 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등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왔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ASEAN과 동북아 3국간의 다자간 외교노력은 중국의 ASEAN과 중국, 또는 일본의 ASEAN과 일본이라는 동북아 3국의 개별적 외교정책에 있다. 또한 최근 신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구상에도 동남아와 ASEAN은 대체로 배제되어 있어 최근 일부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ASEAN에 대한 실질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의 표는 한국과 아세안간의 무역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의 대 한국 수출 규모는 1993년에 비하여 2002년 약 3 배 정도 성장하였다. 아세안의 한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동 기간에 수출 규모와 거의 비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에서 동북아시아 주요 3국간의 경제협력은 1980년대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중국과 한국이 빠르게 경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3> 한국과 아세안간의 무역 규모의 변화, 1993-2002

아세안의 대 한국 수출 규모

(단위: 천달러)

국 가	수 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 르 나 이	-	229,144.7	427,833.1	512,812.4	685,685.3	371,624.0	288,606.4	162,355.4	371,572.6	373,750.1
캄 보 디 아	-	-	-	-	-	-	-	777.5	984.1	1,449.3
인도네시아	2,220,457.8	2,523,360.5	2,916,749.4	2,612,247.9	3,283,716.7	2,567,798.7	3,319,821.1	4,317,875.2	3,772,463.0	4,107,221.4
말레이시아	1,623,518.9	1,546,547.5	1,919,594.8	2,160,841.4	2,134,866.8	1,539,081.9	2,056,855.5	2,599,150.5	3,609,424.5	3,297,054.2
미 얀 마	-	-	-	-	-	-	12,539.8	18,380.5	22,689.6	24,155.9
핀 리 핀	221,007.6	291,803.1	443,181.1	370,561.9	473,731.1	508,771.6	1,031,501.4	1,172,527.2	1,044,382.1	1,338,787.7
싱 가 폴	2,060,954.7	2,414,378.7	2,867,043.7	3,571,666.0	3,804,751.4	2,563,983.0	3,555,908.7	4,918,453.8	4,683,688.8	5,203,024.5
태 국	-	-	-	218,552.4	275,022.1	261,770.1	645,588.3	1,339,084.8	1,229,091.8	1,357,098.8
합 계	6,125,939.0	7,065,134.5	8,574,402.1	9,446,682.0	10,667,773.4	7,813,029.3	10,890,821.2	14,528,614.9	14,734,276.5	15,702,542.1

참고 : 1999 - 2001년 통계치는 홍콩 포함

출처 :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년도

아세안의 대 한국 수출규모

(단위: 천달러)

국 가	수 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 르 나 이		34,931.4	63,336.5	72,500.2	55,090.6	20,620.9	72,415.9	84,958.9	97,356.1	62,069.1
캄 보 디 아								364,110.9	203,774.4	197,305.8
인도네시아	935,983.3	1,477,386.7	1,495,223.3	1,235,458.7	1,518,013.9	904,459.4	1,499,664.0	2,364,323.0	2,099,989.6	2,427,368.6
말레이시아	816,772.8	1,200,709.0	1,516,774.7	1,719,966.8	1,916,805.4	1,685,513.6	3,358,966.0	6,572,884.9	5,129,407.3	5,426,264.9
미 양 마							223,665.3	261,734.9	394,914.4	211,685.5
필 리 핀	180,662.9	294,046.6	475,876.6	676,506.8	871,565.5	1,198,911.2	2,265,960.7	1,984,916.9	2,212,320.0	1,244,039.1
싱 가 폴	2,402,944.9	2,751,912.8	3,578,512.1	4,205,358.5	5,808,553.0	4,853,367.7	8,878,527.6	10,637,225.3	9,982,659.7	8,853,699.1
태 국				1,307,809.3	3,312,855.6	2,548,662.2	3,138,797.8	4,210,755.3	3,712,652.5	4,789,799.1
합 계	4,336,363.9	5,758,986.5	7,129,723.2	9,217,620.3	13,482,884.0	11,211,535.0	19,407,997.3	26,480,910.1	23,833,074.0	23,212,231.2

참고 : 1999 - 2001년 통계치는 홍콩 포함

출처 :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년도

III

한국과 베트남 교류관계 이해

제 Ⅲ장에서는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베트남의 역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나긴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중화주의와 패권주의에 의해 많은 국가가 명멸하였으나 베트남은 지난 4000년 동안 굳건히 현재의 국가를 지켜내고 있다. 가깝게는 19세기 프랑스에 의한 식민지 시대와 국권회복, 최근에는 1970년대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까지 베트남의 국가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극복을 역사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1975년 북베트남 공산당의 승리로 1980년대 중반까지 외세, 특히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와는 패쇄 정책을 취하였다. 비록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강력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쨌든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개방개혁) 정책을 표방하고 적극적인 시장경제 제도를 실천하였다. 이의 결과로 1990년대 약 8% 정도의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의 참전으로 빚어진 양국의 불행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개방 이후 한국의 적극적인 베트남 경제개발 참여로 인하여 최근 정치, 사회·문화 부문까지 양국의 교류가 급격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양국 사회·문화 교류의 대표적인 예는 베트남에서의 한국 문화 및 한국 문화 상품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선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류열풍이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 베트남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가. 정치 환경

베트남의 역사는 기원전 4,000년 전인 빙하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국가 형성은 늦어 건국 신화에 나타난 최초의 국가는 기원전 690

년 락 비에트 족(Lac Viet)이 지금의 풍쨌우(Phong Chau, 하노이 근교)를 수도로 건국한 반랑(Van Lang, 이후 어우 락으로 개명, 기원전 690-111년)이다. 기원전 111년 중국의 유에(Yue)족이 침입, 반랑을 멸망시키고 972년까지 베트남을 지배했다. 한편 기원전 207년경 중국 한(漢)족의 일족이 베트남 남부 지역을 침입, 남비에트인들과 함께 한(漢)제국의 속국인 남(南)비에트를 세웠다.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레(Le) 왕조(972-1009년)에 의해 서였다. 레 왕조의 등장으로 베트남은 본격적인 봉건주의적 중앙집권 왕조시대로 들어섰다. 레 왕조는 하지만 중국 식민지의 잔존 세력과 토착 세력간 갈등 끝에 37년 만에 리(Ly) 왕조(1009-1225년)로 대체됐다. 13세기 경 몽고가 침입하자 리 왕조는 당시 남부 지방을 지배하던 참파 왕국과 연합해 이를 물리쳤으나 이후 리 왕조는 쩐 왕조(Tran, 1225-1400년)에 의해 교체됐다. 1400년 명(明)나라의 침입으로 베트남은 재차 식민시대를 맞았으나 27년만에 독립을 쟁취, 후기 레 왕조(1427-1789년)가 들어섰다. 후기 레 왕조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문화적으로도 번영했다. 하지만 후기 남진 정책을 취하면서 내부 갈등을 초래, 쩐(Trinh)가문과 구옌(Nguyen)가문간의 내전이 발생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의 개입을 초래하는 빌미가 됐다. 프랑스의 성직자를 추방하거나 처형한 것이 프랑스에 침입 명분을 제공했고, 결국 프랑스의 식민지(1859-1954년)로 전락했다.

이 기간 현대 베트남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 그리고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산주의 운동이 태동했다. 1925년 중국 광둥에서 호치민에 의한 베트남 혁명 청년동맹 결성 이후 본격적인 반 식민지 운동에 돌입, 프랑스 세력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1945년 8월 북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맞서 프랑스는 미국의 지원 하에 남부 식민지를 중심으로 바오다이 정부(월남)를 수립했다. 북부 베트남은 이후 프랑스와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을 벌인 끝에 베트남 내 프랑스군의 거점을 함락하는데 성공

했다. 하지만 휴전협정에 따라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됐다. 이후 북부 베트남은 1973년까지 남부 베트남과 미국을 상대로 한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 1975년 4월 30일 공산주의 체제의 통일 국가를 세웠다.

이후 베트남 사회를 지배하는 유일한 세력은 공산당이다. 당원 수는 2001년 현재 약 248만 명(인구의 3.15%)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은 서방 세계와 철저히 담을 쌓았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과 연계한 사회주의 세계 건설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 후반까지는 중국과 캄보디아 문제, 또는 북부 국경 분쟁 등으로 직접적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대내적으로는 식민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남겨진 깊은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는 내부 통일작업에 주력하였다.

베트남의 변화는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취임한 구엔 반 린 서기장이 ‘도이 모이(Doi Moi, 혁신)’ 정책을 채택하면서다. 이 정책은 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대한 정화 운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방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경제 개방 정책은 정치적으로 소련(현, 러시아)과의 이념적 동맹 관계를 벗어나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의미했다. 이념에서 실리로의 전환이었다. 1992년 ASEAN(동남아시아국가 연합)의 가입을 시작으로 1991년 베-중 전쟁 이후 멀어졌던 중국과 관계를 회복했고, 1992년 한국, 그리고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내부적으로는 1991년 7월 개혁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파를 퇴진시켰고, 1992년 4월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외국 투자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개방으로 나아갔다.

베트남 외교의 기본은 대외적으로는 ‘독립, 자주, 주권존중’ 및 ‘다양화, 다변화’의 외교 정책기조를 표방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와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1995년 ASEAN 가입후 1998년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및 2000 ASEAN 의장국 수임 등 ASEAN 내

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SEAN 내의 개별국가들과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과는 지난 날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및 2003년 농독만 당서기장의 중국 방문, 2002년 강택민 중국 주석 겸 총서기의 베트남 답방 등 정상급 지도인사 상호방문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9년 양국 지도자간 “장기온정, 면향 미래, 목린 우호, 전면합작” 등 양국 관계에 관한 16자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동년 12월 중국과 육지국경획정 조약체결과 2000년 통킹만 해상 경계획정 조약 및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21세기 양국간 포괄적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날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양국간의 교역은 1999년 13억불, 2000년 24억불, 2001년 28억불, 2002년 36억불로 계속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모터사이클, 기계, 비료, 철강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원유, 천연고무, 원목 등을 수입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일본 관계는 전적으로 경제적 협력이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2003년 현재 369건 43억불로 최대 투자국이자 대외 원조의 40%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원조 공여국(92년이래 총 82억불 제공)이며, 제1의 무역상대국(양국간 교역 50억불)이다. 1999년, 2001년, 2003년 판반카이 총리 방일 및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베 등을 통해 경험분야에서 일본측의 최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경제 환경

앞서 살펴봤듯 현대 베트남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86년에 채택한 도이 모이 정책이다. 당시 베트남은 오랜 외세와의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절대 빈곤과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세계 2차 대전 중 사용된 폭탄의 양 보다 세 배나 많은 700만 톤이 투하돼 사실상 국토 전역이 황폐화됐기 때문이다. 남부 베트남의 도시와 마을 1만5,000여 곳 중 9,000여 곳이 전소됐다. 북

부 베트남의 산업 기지, 도로 등 기간 시설이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중국과 분쟁으로 피해는 더 커졌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절대 빈곤과 가난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1984년과 1985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연간 500%에 달하고 주요 산업이었던 농수산업의 생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베트남 정부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방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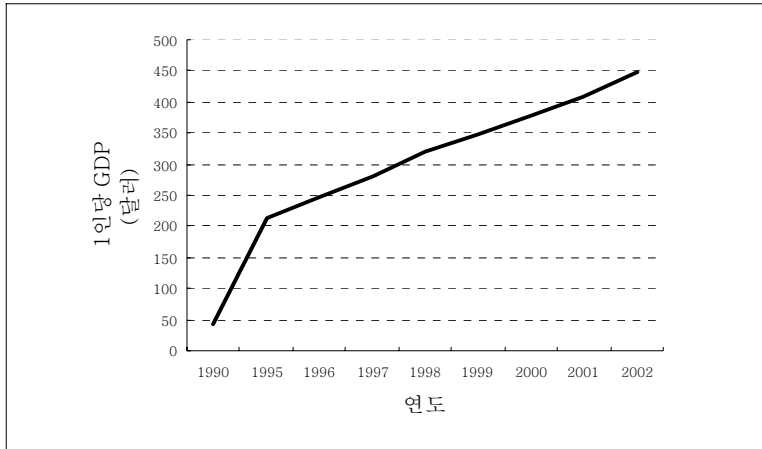
<표 III-1> 베트남 GDP/ 1인당 GDP 추이, 1990, 1995-2002
(단위: 달러)

연 도	GDP (백만)	1인당 GDP
1990	2,797	42
1995	15,259	212
1996	18,136	248
1997	20,908	281
1998	24,068	319
1999	26,663	348
2000	29,443	379
2001	32,086	408
2002	35,740	448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2003

1991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1991-2000년)이 실시되면서 개방 초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다. 살인적이던 인플레이션이 1990년대 들어 약 5-6% 정도로 안정화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1991년부터 5년간 연평균 8.3%를 기록했다. 이후 2002년까지 약 6-7%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국내 총생산(GDP)은 1990년 41조9000여 동(약 27억 9000만 달러)에서 2002년 12.7배인 536조980억 동(357억4000만 달러)으로 성장했다.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42 달러에서 448달러도 10.7배 늘었다.

<그림 III-1> 베트남 GDP 성장 추이, 1990, 1995-2002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2003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된 이래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2002년 6월 누계 기준으로 3,356건, 386억 달러를 유치했다. 이들 외자 기업은 2002년 기준으로 GDP의 약 24%를 담당했다. 이 같은 본격적인 산업화는 베트남의 전통적 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표 III-2>에서 나타나듯 1986년까지 주력 산업이었던 농수산 임업의 비중이 38.06%에서 2002년 약 22.99%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제조 건설업 부문은 동 기간 28.88%에서 38.54%로 크게 성장했다. 이 같은 농수산 임업의 비중 저하는 그 분야의 쇠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분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는 상승했다. 그만큼 베트남 경제 규모가, 특히 제조 건설업 부문이 급격히 성장했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2000년 쌀 수출량은 350만 톤으로 태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표 III-2> 베트남 산업구조의 변화, 1986, 2002

(단위: %)

연 도	농 수산 임업	제조 건설업	서비스업
1986	38.06%	28.88%	33.06%
2002	22.99%	38.54%	38.45%

출처: KAREC (2003), Statistical Analysis of Vietnamese Culture Industries 1998 - 2003,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UNSW

베트남 정부가 2001년 세운 2차 10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이런 고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 7.5%대를 유지하며 2010년 GDP를 2000년(국내 총생산 441조6460억 동)의 두 배 수준인 900조 동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2002년 6%대인 실업률을 낮추고 새로운 일자리 7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제 성장에 따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베트남 통계청이 2002년의 생활 수준을 1999년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별 지출은 21%가 늘어난 26만8000 동이었다. 전제 지출에서 식비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57%로 떨어졌다. 부유층 가정이 생필품을 제외한 부문에 지출하는 비용은 빈곤층의 7.6배, 특히 스포츠나 여가 생활 비용은 빈곤층의 104배나 됐다. 또 평균 소득 이상의 계층은 식비보다는 가전제품이나 건강제품, 교육 및 여행 경비 항목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TV 보유 가정은 같은 기간 58%에서 67%로 늘었고, 오토바이 보유 가정 또한 24%에서 32%로 증가했다. 자동차 보유율은 1만 가구 당 5대 꼴이었다. 도농(都農)간 차이를 보여 도시 지역 가정은 15대 꼴인데 반해 농촌 지역은 2대에 그쳤다. 베트남에서 부의 상징인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율은 0.8%에서 25.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문화 소비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 발전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 직업의 다양화,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문화 기반 시설의 개선 또는 확대 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또

여유 시간의 확대, 취향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연결된다. 문화 소비 관점에서 보면 선순환인 셈이다.

다. 사회·문화 환경

(1) 민족과 언어

비에트(Viet)족이 전국민 8천여만 명 중 대부분인 8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들은 수 십만 년 전부터 베트남에 정착했다고 한다. 53개 소수 민족이 나머지(400만 명)를 차지한다. 소수 민족 가운데 중국계가 1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그밖에 타이 족, 사이 족, 무옹 족 그리고 먀오 족 등이 있으며 대개 북부나 중부 산악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베트남의 공용어는 베트남어다. 문자는 로마자에 특수한 부호를 추가한 80여 개의 자모(子母)로 구성돼 있다. 고대에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탓에 한자를 사용했으며 8-9세기경부터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한 쯔놈(Chu Nom)을 썼다. 17-18세기 선교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은 사제들이 한자 대신 로마자로 표기하면서 현대 베트남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1878년 4월 6일 프랑스 식민정부는 로마 자 표기 방식을 공식어로 지정했으며 1882년부터 교육이나 공문서 작성 등 분야에서 공식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베트남어가 중국어에서 유래한 만큼 유사한 점이 있다. 단어의 60%가 한자어에서 비롯됐다. 성조(聲調)도 있다. 다만 중국어가 4성인데 반해 베트남어는 6성으로 고저, 장단으로 의미를 표현한다. 베트남은 법률로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 여론조사 기관인 TNS가 1999년과 2001년 하노이와 호치민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전체 응답자 1,304명의 28%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사 외국어의 90%가 영어였다. 이런 추세는 2001년에도 변함없었다.

(2) 종교, 이념, 가치체계

베트남 내에는 불교를 비롯한 가톨릭, 개신교, 까오 다이(Cao Dai,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 호아 하오(Hoa Hao, 불교의 일종) 등의 종교가 있다. 일상 생활에는 토속 신앙적 요소도 많다. 국민의 약 67%가 불교를 믿으며 전국적으로 약 2만 여 개의 사찰이 있다. 북부 베트남은 중국을 경유한 대승 불교의, 남부 베트남은 태국과 캄보디아를 통한 소승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북부 베트남의 역사적 우세는 종교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대승 불교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가톨릭은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과 프랑스 사제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신자 수가 늘었다. 현재 신자는 약 300만 명(12%, 남부 200만 명, 북부 100만 명)이다. 개신교는 17세기경부터 들어왔으며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1%). 사회주의 정부 탓인지 기독교의 영향력은 주는 추세라고 한다. 이밖에 불교와 유교, 도교, 후기 기독교 등이 서로 혼합된 종교도 많다. 불교를 단순화시킨 호아 하오는 전국민의 2.7%, 까오 다이는 0.6%가 믿고 있다. 전체적으로 호국 종교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는 평가다.

유교와 도교도 베트남의 일상 생활에 깊게 배어 있다. 고대 중국의 지배기에 전래된 유교와 도교는 베트남의 토속 신앙과 결합돼 고대 베트남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됐다. 북부 지방의 리 왕조가 1070년 유교, 특히 송학(宋學)을 공식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게 계기였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다른 동남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동북 아시아 문화권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실제 북부 베트남은 동북 아시아권, 남부 베트남은 동남 아시아권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외침과 저항의 베트남 역사를 관통한 또 다른 가치는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이다. 국민적 자긍심으로도 연결돼 삶과 생활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 베트남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념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다. 1920년대 호치민에 의해 시작된 공산주의 운동은 외세와의 긴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베트남의 유일무이한 국가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하나의 우월적 이념의 지배에 따라 다른 동

남아시아 국가 또는 후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종적 혹은 종교적 갈등을 통합, 하나의 통일된 국가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계층간 평등 정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된 계층 구조를 갖고 있고, 남녀간 차별 금지 정책으로 여성의 권리가 비교적 신장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1년부터 2002년까지 역임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이 20-30%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도입된 시장 경제 체제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빠르게 사회·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개인 재산을 증식하고 이를 통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동기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르게 말하면 본격적으로 개인간 경쟁을 도입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3) 전통과 관습

언급한 민족, 인종, 종교 및 이념과 가치는 현대 베트남의 전통문화들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동북아시아 문화권으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가정이나 사무실, 사업장에서 고사나 굿을 통해 복을 기원하는 일이 있다. 또한 음력 기준으로 설(1월1일), 단오절(5월5일), 백중(7월15일), 중추절(8월15일) 그리고 공자탄신일(9월28일) 등이 민속일로 지정돼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행사를 갖는다. 가부장제, 아들 선호주의, 부계에 의한 친족 가계형성, 그리고 연령에 의한 계층간 서열 등의 흔적도 남아 있다. 또한 사주 단자 교환 및 양 가계의 결합 관계, 신랑의 신부 집에서의 첫날 맞이 등 결혼 풍습 역시 동북아 문화권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임종부터 하관까지의 장례 절차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에서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다분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다. 전통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말과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는 것을 꼽았다. 이런 시각은 역사적으로 잦은 전쟁으로 인해 가정의 노동력이 여자로 대체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회

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긴 했으나 아직도 전통적인 유교 가치와 가부장적인 가치 그리고 경제 노동력의 대체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시장경제 체제 도입과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은 국민적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는 기존 전통적 관습과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변형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가치관을 예로 보면 TNS의 1999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21%가 전통과 관습은 오늘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런 수치는 2001년 30% 급상승했다. 여성들은 전통적 가족보다는 개인적 또는 경제적 역할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통적 대가족 제도에도 변화 조짐이 있다. 특히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뚜렷하다. 1996년 호치민 시의 30세 이하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33%는 부모로부터 분가를 했거나 원하고 있었다. 미혼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의 행복 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9.13%는 정신적 화합(사랑), 33.73%는 물질, 그리고 27.14%는 성관계 만족이라고 답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베트남에서도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¹

¹ 『Tuoi Tre Chu Nhat(Youth Newspaper)』, 1996년 10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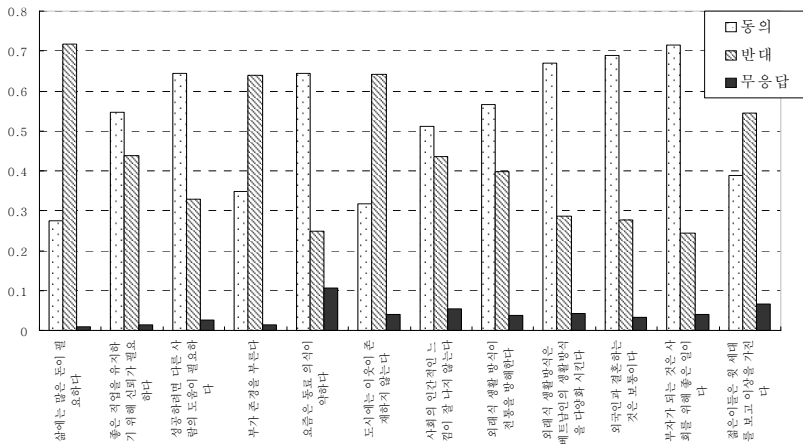
<표 III-3> 호치민시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2000

(단위: %)

항 목	동 의	반 대	무응답
삶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27.37%	71.70%	0.90%
좋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가 필요하다	54.63%	43.83%	1.53%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64.37%	32.97%	2.60%
부가 존경을 부른다	34.73%	63.90%	1.40%
요즘은 동료 의식이 약하다	64.47%	24.80%	10.70%
도시에는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다	31.70%	64.20%	4.10%
사회의 인간적인 느낌이 잘 나지 않는다	51.03%	43.53%	5.43%
외래식 생활 방식이 전통을 방해한다	56.47%	39.67%	3.87%
외래식 생활방식은 베트남인의 생활방식을 다양화 시킨다	66.90%	28.73%	4.33%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보통이다	68.90%	27.70%	3.43%
부자가 되는 것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다	71.47%	24.47%	4.10%
젊은이들은 윗 세대를 보고 이상을 가진다	38.80%	54.53%	6.67%

출처 : Saigon Times, 2003. 10. 25.

<그림 III-2> 호치민시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2000



출처 : Saigon Times, 2003. 10. 25

베트남 최대의 경제와 문화의 도시인 호치민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개방 이후 현대 베트남 도시인의 가치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듯 2000년 호치민의 중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부자가 되는 것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인식했다. 외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선 전통을 방해한다는 우려와 베트남인의 생활 방식을 다양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외국인과의 결혼에 긍정적인 점이 눈에 띈다.

(4) 인구통계적 특성

2002년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7,900만명이다. 1990년 이래 해마다 1.31-1.92%씩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조금씩 주는 추세다.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아 50.8%를 차지했다. 출생률은 19.9% 사망률은 5.6%에 달한다. 인구의 75%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199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계상 하노이와 호치민의 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통계의 부정확성, 불법 이주자의 통계 누락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거주 이전할 수 있다. 인구의 10.5%가 하노이와 호치민 두 도시에 거주하며 호치민의 인구는 전통적으로 하노이의 두 배 수준이다.

베트남 인구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두텁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약 60%가 28세 이하이고 40세 이하는 80%(한국은 약 64%)에 육박한다. 이는 1973년 베트남전 종전 때까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손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종전 뒤 베이비 붐이 인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로 대부분 직계 부모보다는 조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는 등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있어 그만큼 새로운 청년 문화를 형

성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혼율은 지방보다 도시 지역이 높는데 경제 개방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호치민의 경우 2001년 한해만 7만2,518쌍이 결혼했고 1만2,408쌍이 이혼해 17.1%의 이혼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0.4% 늘어난 것이다.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와, 집안과 관습에 의한 강제결혼이었다.

<표 III-4> 베트남 인구 추세와 특성, 1990-2002

연 도	총 인구 (천명)	성장률(%)	인구 유형(%)			
			남자	여자	도시	농촌
1990	66,017	1.92%	48.78%	51.22%	19.51%	80.49%
1991	67,242	1.86%	48.80%	51.20%	19.67%	80.33%
1992	68,450	1.80%	48.83%	51.17%	19.85%	80.15%
1993	69,645	1.74%	48.86%	51.14%	20.05%	79.95%
1994	70,825	1.69%	48.90%	51.10%	20.37%	79.63%
1995	71,996	1.65%	48.94%	51.06%	20.75%	79.25%
1996	73,157	1.61%	49.01%	50.99%	21.08%	78.92%
1997	74,307	1.57%	49.08%	50.92%	22.66%	77.34%
1998	75,456	1.55%	49.15%	50.85%	23.15%	76.85%
1999	76,597	1.51%	49.17%	50.83%	23.61%	76.39%
2000	77,635	1.36%	49.16%	50.84%	24.22%	75.78%
2001	78,686	1.35%	49.16%	50.84%	24.76%	75.24%
2002	79,715	1.31%	49.20%	50.80%	25.00%	75.00%

출처 : Vietnam Economic Times, 2003. 5. 25.

(5) 교육환경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원래 무상 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개방 경제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외증인 1990년 초반 교육제도의 유료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도 허용했다. 정규 교육 과정은 유아원(생후 3개월 이상, 3년), 유치원(3-6세, 3년), 초등학교(6-11세, 5년의 무상교육), 중학교(11-15세, 4년), 고등학교(15-18세, 3년) 그리고 초급대학(3

년)과 일반 대학교(4-6년)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중고등학교 시스템은 정규과정 이외에 2년제 혹은 3년제의 직업고등학교 혹은 특수학교 과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여성의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아 교육 제도는 잘 정비돼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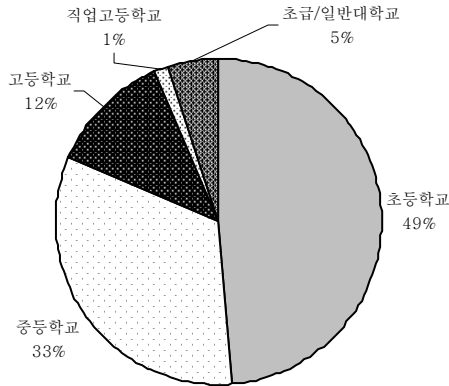
<표 III-5> 베트남 재학생 수, 2002

(단위: 천명)

유 형	학생 수
초등학교	9,300
중등학교	6,300
고등학교	2,300
직업 고등학교	271
초급/일반대학교	974
전 체	19,145

출처: KAREC (2003), Statistical Analysis of Vietnamese Culture Industries 1998 - 2003,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UNSW

<그림 III-3> 베트남 재학생 학력별 비율, 2002



출처: KAREC (2003), Statistical Analysis of Vietnamese Culture Industries 1998 - 2003,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UNSW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니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대 인구의 절대적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 중 대학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8년 약 75만여 명이던 재학생이 2002년 97만여 명으로 약 33%가 늘었다. 현재 전국에 62개의 초급사범대학을 포함한 120여 개의 대학이 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녀 교육이 최우선일 정도다. 정부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직할체제 하에 있는 도시 및 지방 61개 지역의 문맹률은 0%고 나머지 도시 및 지방 97개 지역의 경우 3%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전국민의 문맹 퇴치 운동에 힘입은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주요 거점 혹은 산업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 수준을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동일한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반드시 2-3년간 군대 복무를 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4년간 2달(2학년과 4학년 때)의 군사 훈련을 받으면 국방의 의무가 끝난다. 특징적인 것은 남녀 모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

2. 한국-베트남의 교류관계 현황

가. 정치 교류관계 현황

기록상 양국간 최초 접촉은 고려 때인 12세기 베트남 왕자의 귀화였다. 이양곤(Ly Duong Gon, 李陽棍)은 베트남 이씨 왕조의 3대 임금인 Nhan Jong(인종, 1072-1128)의 셋째 아들이자 Than Tong(선종, 1128-1138)의 동생으로 귀화 뒤 정선 이씨의 시조가 됐다. 1226년 귀화한 Anh Tong(영종, 1138-1175)의 아들이자 Cao Tong(고종, 1176-1210)의 동생인 이용상(李龍祥)은 몽고 병력을 평정, 화산군(花山君)의 작위를 받았다. 이용상은 이후 명문가로 자리매김한 화산 이씨의

시조기도 하다.

1960년 중반 베트남전쟁 참전 전까지 양국간 정치외교적 교류는 간접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최초의 외교적 교류는 조선 선조때 중국 명나라에 파견된 실학자 이지봉(李芝峯, 이수광)을 통해 이뤄졌다. 이지봉은 중국에서 만난 안남(베트남의 옛이름)의 사신 풍극관(馮克寬)과 나눈 대화를 문답록으로 남겼는데 안남에서는 관료를 위한 교재로 활용됐다. 덕분에 이지광은 안남에서 상당히 유명해 졌다. 정유재란때 일본에 끌려가 통역관으로 일했던 조완격은 안남 관료들이 이지봉의 문답록을 아느냐고 물으면서 조선인에 대해 대단한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기록했다. 17세기 이후 베트남 상인이 표류해 한반도로 오거나, 제주도 조선인이 안남으로 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서로 친근감을 표시하며 우호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중국의 변방 국가로서의 흡사한 외교적 환경과 한자 유교문화권이 갖는 문화적 공통성이 이런 막연한 우호적인 정서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베트남은 한국과 유사한 식민지(1858-1954), 남북분단(1954-1975)시대를 겪었다. 하지만 경험의 내용은 상이했다. 유럽문화권(프랑스) 하에서의 식민 경험은 (물론 베트남도 2차 대전 기간 동안 잠시 일본군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했다) 한국과는 문화적으로 다른 유산을 남겼다. 양국 모두 남북간 이념전쟁을 겪었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을 이룬데(1975) 반해 한국은 여전히 대치 상태인 점도 차이가 난다.

1992년 양국이 수교하기 전까지는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부(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 창당)는 중국, 소련 그리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에 충실하였다. 이는 국제정치 질서에서 한국과는 적대적 관계였음을 의미한다.(196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약 500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북한의 지원으로 북한 대학에 수학하였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의 명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1964년 9월 비전투 부대를 시작으로, 1973년 1월 공식철수할 때까지 연 30만여 명의 전투병력을 파견, 이 중 4,687명이 전사했다. 한국

은 참전으로 각종 교역 시장에 진출했으며 당시 베트남 시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 사회에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도 남겼다.

양국간 정치 및 외교 교류는 수교 이후 본격화 됐다. 베트남에서 1993년 보 반 키에트 총리, 한국에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을 시작으로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호치민 묘에 들러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003년 9월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의 방한 때 양국은 1993년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사회 민간 교류 부분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는 등의 관계의 진척을 이뤘다.

다음의 표는 1994년부터 한국 정관(政官)계 고위급 인사와 정부 관련 기관의 베트남 방문현황을 보여준다. 수교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추세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임을 드러낸다.

<표 III-6> 정치 및 정부관련 기관의 베트남 방문현황, 1994-2002

방문횟수	1994-1997	1998-2002	합 계
정치고위급 교류	13	12	25
정부관련기관 교류	11	8	19

출처 : 대한민국 호치민 영사관 2003. 참고 : 각 교류의 기준은 최고위급의 방문을 기준했음

양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도 있다. 또 다른 의미의 외교적 성과로, 향후 양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부산과 호치민시, 1996년 경상남도과 동나이성, 서울시와 하노이시, 경기도와 하타이성, 1997년에는 인천시와 하이퐁시 등이 자매결연 등의 관계를 맺었다.

(1) 정치 및 외교 부문의 교류협정

아래의 표들은 양국(과거 남베트남의 정부포함)간에 맺었던 주요 조약과 협정을 연도별, 부문별 정리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대부분

협정이 국방과 관련된 것이었다. 1992년 수교이후 양국간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협정이 중점적으로 체결됐다. 1990년 중반까지 경제관련 협정들이, 이후에는 과학기술, 사회·문화 및 협력 분야 협정들이 주종을 이룬다.

<표 III-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경제부문, 1959-2004

조 약 명	분 야	연도 / 월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	관 세	1959년 1월
무역협정	무 역	1962년 12월
대한민국과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경제/기술	1971년 6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경제/기술	1993년 3월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투 자	1993년 9월
무역협정	무 역	1993년 6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경 제	1994년 9월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세 관	1995년 4월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에 관한 약정	경 제	1996년 11월
경제분야에서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투 자	2004년 9월

참고 : 발효일 기준

출처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

<표 III-8>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사회일반 부문, 1964-2003

조 약 명	분 야	연도/월
주월 한국군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국 방	1964년 10월
군대 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각서교환	국 방	1967년 1월
항공운수에 관한 각서교환	운 송	1967년 1월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운 송	1969년 9월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 개정	의 료	1974년 11월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기 술	1975년 3월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운 송	1993년 6월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문 화	1994년 9월

조 약 명	분 야	연도/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에서의 직업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약정	교 육	1994년 12월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운 송	1996년 11월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	1995년 5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과학기술	1997년 1월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센터의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과학기술	1998년 8월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건립을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교 육	1998년 12월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행 정	1999년 1월
청소년교류에 관한 약정	사회일반	1999년 7월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관 광	2002년 8월
민.형사상 사법공조 조약	사 법	2003년 5월
범죄인도조약	사 법	2003년 5월

참고 : 발효일 기준

출처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

<표 III-9>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협력 부문, 1995-2003

조 약 명	분 야	연도 / 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협 력	1995년 4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바리아 복합화력발전소 설비 구매사업)	협 력	1997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협 력	2000년 6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협 력	2000년 9월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협 력	2000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협 력	2001년 8월

참고 : 발효일 기준

출처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

문화 교류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은 1994년 체결된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문화, 예술, 학술, 교육, 청소년, 체육 및 언론분야에서 양국 관계

를 증진,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나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0> 한국-베트남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1994

교육/학술 분야 협력	- 교육관련 종사자 및 학생의 상호 교환 방문 장려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장려
	- 대학교 및 교육·학술기관간 협력 및 직접 접촉 장려
	- 자국의 교육기관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과정 및 강좌 개설 장려
	-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여타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 장려
	-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 장려 및 지원
	- 상대국에서 취득된 학위, 졸업증서 및 여타 증명서의 학술 또는 경력목적 인정
문화/예술 분야 협력	- 문화·예술적 활동에 종사자의 상호 교환 방문
	- 예술활동 관련 종사자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
	- 예술전시 및 민속공연 상호 교환
	- 상대국이 주관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 경연 및 국제회의의 참석
	- 문화기관의 자국 내 설치 용이
	-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 등 대중 매체간 협력 및 직접 접촉을 지원
청소년교류 및 체육	- 뛰어난 상대국 작가의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
	- 양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
	- 국제 청소년활동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
인식과 교류	- 체육기관간 교류, 협력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서의 참여를 장려
	-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언론 및 각종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운영	- 자국 내에서 친선협회 활동 용이
	- 각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실무 위원회를 설치
	- 실무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
	-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

참고: “문화기관”은 문화센터, 학교, 도서관 및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여타 기구를 포함한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

(2) 한국 정부의 베트남 지원

양국간 교류 증진으로 한국 정부의 대(對) 베트남 지원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베트남은 현재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최다 수혜국이다.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초기의 단기적이며 일회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 인적개발, 의료보건 등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 선진화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사업이 처음 도입된 1999년 619만 달러가 제공되었다. 유상 원조는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며, 2001년 총 7개 사업에 1억 6천만 달러 이상이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기초공장 건설에 공여되었다. 아래의 표는 무상 협력 사업 실적 및 지원 현황을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국제협력단 사업의 50% 이상은 병원 운영 및 개보수, 직업 훈련, 학교 신축 등 분야에, 15%는 연수생 초청 분야에 쓰였다. 국제협력단은 1995년부터 6년간 약 53억 달러를 베트남 비정부기구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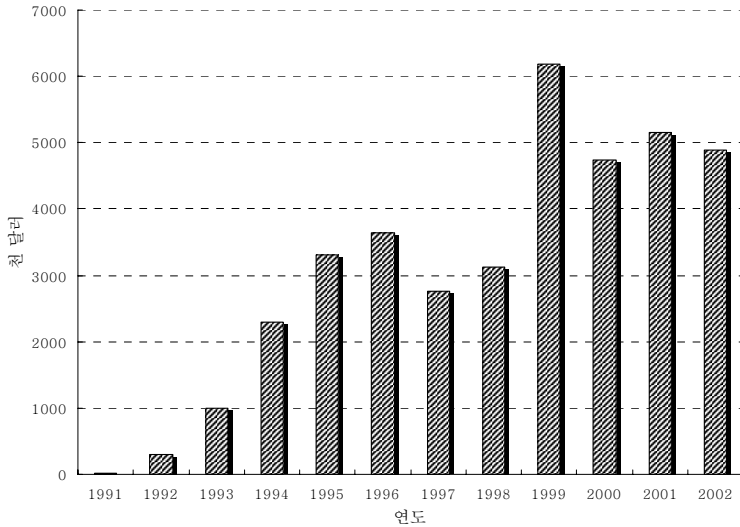
<표 III-11> 대 베트남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1-2002
(단위 : 천달러)

구 분	지 원 액	수원순위
1991	21	103/120
1992	297	12/128
1993	999	3/133
1994	2,291	1/143
1995	3,312	2/137
1996	3,649	2/140
1997	2,755	2/138
1998	3,126	1/126
1999	6,193	1/128
2000	4,736	2/132
2001	5,162	1/138
2002	4,891	2/142

참고: 지원순위는 전체 지원국 중 베트남의 위 2001과 2002년 금액은 2003년 11월 1USD 대 12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1991-2002 통계 각권 참조

<그림 III-4> 대 베트남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추이, 1991-2002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1991-2002, 대외무상원조 통계 각 권 참조

나. 경제 교류관계 현황

한국은 베트남 전쟁의 참전으로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 초기 고도성장이란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파병을 통해 당시 미국의 참전으로 형성된 막대한 군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병에 따른 미국의 직접적인 대한(對韓) 원조 증가, 보급 기지로서의 한국 산업의 역할, 이에 따른 한국 기업의 현지 건설 및 소비 시장으로 진출 등은 당시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참전은 양국 교류 협력이 시작된 1990년대 이래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해야 할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1973년 단절된 경제 교류는 1992년 2월 수교를 계기로 재개됐다. 당시 베트남은 1986년부터 추진한 개방정책(Doi Moi)이 한계에 다다르자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한 보다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선 외증이었다. 적

극적으로 서방 진영과의 교류를 확대했고, 한국도 그 대상 국가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심각한 구조조정기를 겪으며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터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베트남도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가진 상당히 매력적 국가로 인식됐다. 베트남으로서도 아시아 경제 강국인 한국의 고도성장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런 상호간 필요성은 경제활동과 교류 부문에서 급속한 유대 관계의 형성, 더 나아가 양국 산업의 결합을 가져오게 된다.

(1) 산업교역 관계의 변화

양국간 교역은 1992년부터 10년간 4.5배(연평균 증가율17.6%) 늘었다. 한국의 총 교역 규모가 같은 기간 1.8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팽창 속도다. 아래의 표는 양국간 교역 규모와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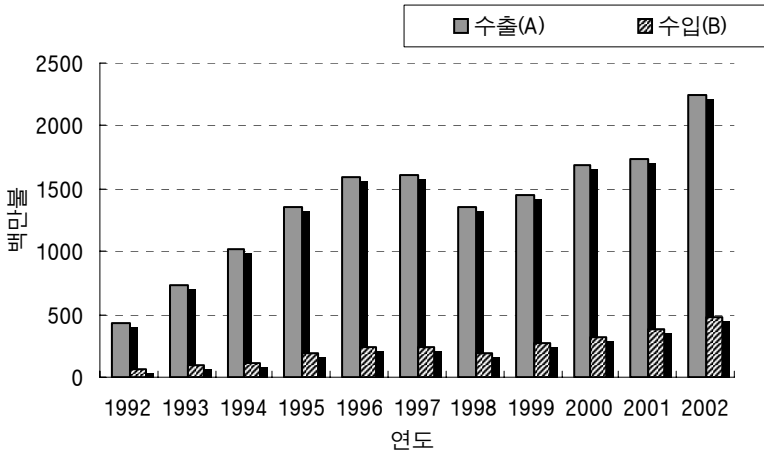
<표 III-12>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규모와 특성, 1992-2002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 출(A)	수 입(B)	무 역 액 (C=A+B)	수 지 (D=A-B)
1992	436	57	493	397
1993	728	90	818	638
1994	1,027	114	1,141	914
1995	1,351	194	1,545	1,157
1996	1,599	232	1,831	1,367
1997	1,603	239	1,842	1,364
1998	1,361	184	1,545	1,177
1999	1,445	264	1,709	1,180
2000	1,686	322	2,008	1,364
2001	1,731	386	2,117	1,346
2002	2,240	470	2,710	1,769

출처 : 한국무역협회, 각국의 무역통계 각년도

4억93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2002년 27억1000만 달러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돼 양국간 문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7대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한국은 2002년 베트남에서만 17억69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다행히 이 같은 불균형은 줄어드는 추세다. 무역역조 불균형은 1992년 77%에서 2002년 65%로 줄었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6.7배(연 24%) 늘었다.

<그림 III-5> 한국과 베트남의 수출입 현황, 1992-2002



출처 : 한국무역협회, 각국의 무역통계 각년도

양국간 교역 증대로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한국의 전체 수출 가운데 대(對) 베트남 비중은 1992년 0.6%에서 2002년 약 1.4%로 늘었다. 수입 비중 또한 0.07%에서 0.3%로 증가했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에 이은 다섯 번째 교역국이다. 이 같은 경제적 유대는 교역 대상 품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류,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 제품, 그리고 전자전기제품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는 한국 현지 업체가 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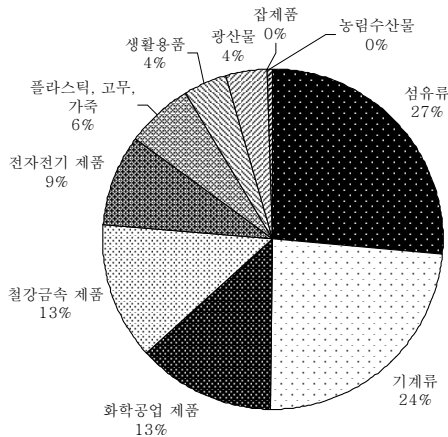
품 생산을 위해 이들 품목을 원부자재 부품 및 시설재로 수입한데 따른 것이다.

<표 III-13>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2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992년도			2002년도		
	품 목	금액	비 중	품 목	금액	비 중
1	섬유류	127	29.10%	섬유류	593	26.50%
2	화학공업 제품	96	22.00%	기계류	538	24.00%
3	철강금속 제품	56	12.80%	화학공업 제품	301	13.40%
4	전자전기 제품	50	11.50%	철강금속 제품	291	13.00%
5	기계류	45	10.30%	전자전기 제품	198	8.80%
6	광산물	40	9.20%	플라스틱, 고무, 가죽	144	6.40%
7	플라스틱, 고무, 가죽	12	2.80%	생활용품	90	4.00%
8	생활용품	8	1.80%	광산물	89	4.00%
9	잡제품	1	0.20%	잡제품	3	0.10%
10	농림수산물	1	0.20%	농림수산물	11	0.50%
	계	436	100.00%	계	2,240	100.00%

출처 : 한국무역협회의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III-6>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품목 분포, 2002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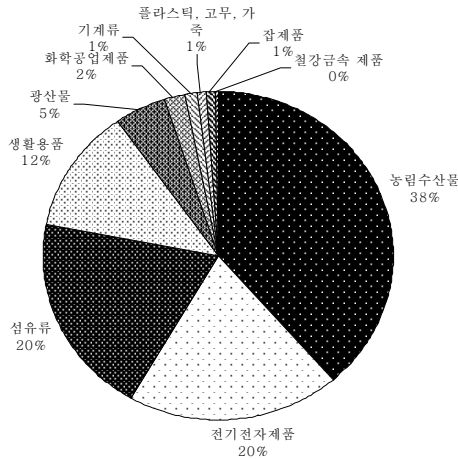
<표 III-14>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2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992년도			2002년도		
	품 목	금액	비 중	품 목	금액	비 중
1	농림수산물	20	34.90%	농림수산물	180	38.30%
2	광산물	17	29.70%	전기전자제품	93	19.80%
3	섬유류	11	19.20%	섬유류	92	19.60%
4	철강금속제품	4	7.00%	생활용품	57	12.10%
5	생활용품	4	6.50%	광산물	21	4.50%
6	전기전자 제품	1	0.90%	화학공업제품	10	2.10%
7	플라스틱, 고무, 가죽	1	0.90%	기계류	5	1.10%
8	화학공업제품	0	0.30%	플라스틱, 고무, 가죽	4	0.90%
9	잡제품	0	0.20%	잡제품	3	0.60%
10	기계류	0	0.10%	철강금속 제품	2	0.40%
	계	57	100.00%	계	470	100.00%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III-7>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품목 분포, 2002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반면 한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5대 주요 품목에는 약간의 변화

가 있다. 1992년 농림수산물, 광산물, 석유류, 철강금속제품 그리고 생활용품이었던 것이 2002년 철강금속제품이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체됐다.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무려20%를 상회한다. 이는 베트남의 전자조립산업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며, 베트남이 1차 산업 구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5>는 양국의 문화 관련 산업재의 수출입 품목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출 물량은 한국의 약 20% 수준이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특이한 것은 인쇄용지와 종이제품이다. 이는 컴퓨터 이용 등 정보 유통의 확산으로 인한 고급 종이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신 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반 시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다만 무선 전화기, 특히 휴대폰 부문은 아직 저조한데 베트남의 수요가 아직 흑백 화면의 구세대 휴대폰에 머물러 있는데다 이들 휴대폰이 주로 중국 혹은 동남아 기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문화 관련 생산재 또는 상품은 아직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노동집약적 상품이며 한국이나 대만 현지 기업의 역수출 품목인 경우가 많다.

<표 III-15>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 품목 중 문화관련 품목 비교, 2002
(단위 : 천달러)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	
인쇄용지/종이제품	36,410	스피커	12,343
무선교환기/중계기	29,279	공예품	3,716
칼라TV	28,324	인형	1,914
필름류	16,090	컴포넌트	1,896
음향기기부품	10,507	완구	1,417
무선전화기	200	귀금속장식품	1,359
계	120,810	계	22,645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양국간 교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한국의 동남아 시장 중 하나

이자, 제3국 시장을 겨냥한 우회 생산 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원부자재 및 자본집약적 품목을 수출하고, 베트남은 농수산물 및 천연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도 드러난다. 수출된 원부자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재가공 되어 다시 해외로 수출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진출 기업은 원부자재, 생산기반 시설 및 설비를 한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 한국의 대(對) 베트남 무역 흑자를 구조화하는데 기여했다. 아래 표는 해외직접투자국가로서 베트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표 III-16> 한국의 대 베트남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1
(단위 : 천달러)

연 도	1997	1998	1999	2001	2002
투자규모	699,400	13,000	176,300	75,400	106,508

출처 : KAREC (2003), Statistical Analysis Of Vietnamese Culture Industries 1998 - 2003,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UNSW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관계의 변화

1992년 한주통상이 한국 최초로 베트남에 공식 투자한 이래, 한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2002년 6월 말 현재 베트남 정부의 허가기준으로 총 403건, 34억 6200만 달러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은 4위, 건수 기준으로는 우리와 같이 노동집약 투자가 대부분인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16>은 1997년 이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를 드러낸다. <표 III-17>은 베트남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규모는 누계기준(1980-2003.10)으로 413건, 8억36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국가별로 볼 때 상위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1990년대 10번째, 2002년 여덟 번째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 증가세임

을 알 수 있다.

<표 III-17>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0대 국가, 1980-2003.10.
누계기준

(단위: 건, 천달러)

국 가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순투자건수	순투자금액
미 국	3,731	11,763,032	3,288	8,993,098
중 국	8,527	7,541,384	8,343	6,018,057
네덜란드	57	2,155,445	43	1,969,678
버뮤다	11	1,482,967	10	1,474,493
홍 콩	549	1,658,587	470	1,374,686
인도네시아	589	2,081,695	516	1,241,957
영 국	127	1,520,974	107	1,053,874
베트남	430	1,009,649	413	836,767
독 일	190	902,674	160	692,897
일 본	649	751,317	588	628,876
전세계	18,869	43,237,548	17,434	33,004,634

참고 : 1980-2003 10월까지의 누계임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한국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는 대부분 중소 기업형 소규모 투자란 점이 특징이다. 2001년 중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은 한국 기업 중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세 건에 불과했다. 반면 100만 달러 이하의 투자는 45건으로 전체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남 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빈주영성, 동나이성, 타이닌성 등에 약 70-80%가 몰려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² 이는 호치민시가 전통적으로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적 관점에서 편리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듯하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320개며, 하노이 지역에 94개, 호치민 지역에 226개가 있다. 아래의 표는 지역별 한국 기업의 수와 고용인의 국적별 현황을 보여준다. 하노이 지역에서 3만515명,

²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2002

호치민 지역에서 5만2934명 등 총 9만3449명의 현지인이 고용됐다.

<표 III-18>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국적별 고용현황, 2003

(단위: 개, 명)

지 역	기 업	종업원	한국직원
하 노 이	94	30,515	358
호 치 민	226	52,934	689
합 계	320	93,449	847

출처 : KOTRA, 2003 한국해외진출 기업 디렉토리, KOTRA

한국 기업의 진출과 현지인 고용은 한국 문화의 전이와 민간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고용된 현지인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한국이라는 경제, 사회적 의미의 단어와 연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이 채널로서의 기업의 역할은 현지에서 초래될 지도 모를 고용인과의 문화적 혹은 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2001년 한국 현지 기업의 노사 관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현지 기업이 대부분 노동집약적, 혹은 공해 유발 산업이란 점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또 기업의 경쟁력이 생산 원가의 절감, 즉 최소한의 생산 시설과 임금에 있는 만큼 노사 문제는 필연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문화적 갈등에서 비롯된 노사 문제도 상당했다. 다행히 2002년 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고용주의 자세 전환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 투자 기업에서 노사 문제가 촉발될 경우 외세에 대한 배타적 민족 감정이 결부되면서 더욱 큰 이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 노동자의 한국에서의 대우도 맞물려 크게 이슈화 된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거나 강하게 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 상품에 대해 부정적, 또는 냉소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참고로 베트남의 한국 기업에 고용돼 있는 현지인은 약 10만 명이며 직계 가족(2002년 기준으로 5

인)까지 고려할 경우 약 50여만 명이 한국 기업과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간 및 기초산업 협력관계

경제 개발을 위한 기간 산업간 협력도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문은 베트남의 자원개발 협력 부문이다. 양국 수교를 계기로 한국은 베트남의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베트남의 11-2광구에서 가스전을, 15-1광구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1-2 광구 사업은 한국 석유공사 등 한국측이 100%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으로 수교 직후 탐사를 시작, 6년 만인 1998년 가스층을 발견했고, 2005년 본격 생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지분 50%), 한국석유공사와 SK(33.25%), 그리고 미국과 유럽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 중인 15-1 광구 사업은 1998년 착수되어 2001년 사업성을 확인했고, 2003년 말 생산을 위해 본격 작업 중이다. 한국광업진흥공사와 베트남 측은 한-베 공동 자원 협력을 위해 1994년부터 베트남 전국의 주요 자원 매장 지역에 대한 탐사를 4차례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자원 협력은 풍부한 베트남 자원을 한국의 산업자원화 하는 것으로 양국간 경제적 유대가 결합 수준으로까지 발전했음을 역설해 준다.

양국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운용 중이다. 여러 종류의 무역박람회,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개척단 또는 지역산업 박람회 등이 그 예다. 이 중 한국 문화 전이와 문화 상품의 진출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KOTRA가 후원하고 호치민시가 주관한 베트남 한국 상품전(2003년 6월 25-28일)이다. 이는 한-베트남 수교 10년을 통해 구축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기술과 문화 강국 이미지로 제고하고, 수출 확대를 구체화 하는 한편, 월드컵을 계기로 조성된 한류 열풍을 동남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당시 상품전과 동시에 한국과 베트남 연예인의 대규모 문화 행사를 치러 현지에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 82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바이어들까지 연계, 단기간 상담 1억4000만

달러, 계약 추진 2000만 달러란 성과를 냈다. 주요 품목은 전기전자, 철강 금속기계, 섬유화학 그리고 첨단 IT제품 등이었다. 한류 스타인 주얼리와 티나크래커 등 한국측 공연팀과 베트남 측 유명 가수 등의 합동 행사로 치러진 공연을 2,000여명이 지켜봤다.

이 같은 양국간의 경제 협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발효된 미국-베트남간 무역협정으로 대미(對美) 우회 수출 기지로서 베트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조약 발효 뒤 40-90%에 이르던 관세가 평균 4%대로 내렸다. 이미 한국 현지 기업은 대미 수출 확대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아세안(ASEAN) 공동체가 공동 실효 관세 정책을 채택, 아세안 시장 내에서 제조된 상품의 경우 관세 혜택을 주는 점 또한 평가할 만하다.

더불어 베트남 정부가 경제 도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을 서두는 것 또한 한국 문화 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1994년 12월 WTO에 가입 신청을 했으나 아직 양허안을 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협정 과정에서 미국 기준의 시장 개방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 더욱 양국간 경제교류가 제도적으로 투명해져 결과적으로 교역 확대가 예상된다. 문화 산업 부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제도적 보장을 통해 한국 문화 산업의 진출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문화 교류관계 현황

베트남 전쟁 기간 중 한국과 베트남간의 파병에 따른 정치외교, 경제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다. 민간 부문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병원 건립 등은 한국군의 대(對) 주민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문화 교류도 베트남 현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파병 한국군을 위한 위문 공연이 다수였다. 당시

민간단체로는 1959년 학술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발족한 한-월 협회가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새로운 양국 관계의 정립 이후 이 같은 교류 양상에 큰 변화가 일었다. 양국은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점점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는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로 이어졌다. 실제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1996년 약 4만5,000여 명에서 2001년 6만 10001여 명, 2002년 10만 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만 그 수가 2만8,000여 명으로 줄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한국을 찾은 베트남인은 연간 1만여 명 내외에 머문다. 이중 다수가 산업연수생으로 2000년 6,000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³

재수교를 계기로 양국간 교류 혹은 협력 차원의 민간 단체도 잇달아 설립돼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만 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베트남 내의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 계층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의료 활동, 그리고 한국의 참전이 베트남 사회 내에 남긴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양국간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있다.

수교 직후 민간단체들의 첫 관심사는 한국군 참전으로 야기됐던 한국인 혼혈아, 즉 ‘라이파이한’ 문제였다. 사회주의 정부가 이들에 대해 차별 정책을 펼친 탓에 대부분이 사회적 소외, 교육 기회 박탈, 저소득이란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러 종교 및 사회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그 중 대표적인 단체가 1993년 한국의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해 설립한 한-베트남 직업 훈련원 범종교인 후원 사업회다. 100여만 명에 달하는 전쟁고아와 한국인 2세를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전쟁고아나 한국인 2세들이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 사회적 소외 계층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대부분이 현지의 인프라나 예산 부족으로 지

³ 『Vietnam News Service』, 2003년 9월 11일.

지 부진했다. 한국인 2세들의 직업 훈련, 장학금 지원 사업 혹은 의료시설 후원 등을 목적으로 한 코베튼(KOVIET, Korea-Vietnam Friendship Association, 1995)이나 경실련 국제국 베트남 사업위원회 (1995)도 설립되었다. 또 베트남 내의 빈곤이나 환경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지구촌 나눔 운동 (Global Civic Sharing, 1998)이나 참전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위원회 (2001)의 활동도 시작되었다.

(1) 교육부문의 교류관계 변화

양국간의 교육 부문에서의 교류는 크게 정부 지원에 의한 것과 일반 교육기관간의 자발적 교류로 양분된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한국 측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양국간 경제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교류 부문에서의 한국의 능동적 움직임이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지원에 의한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혹은 한국학과 개설 및 유지, 베트남의 한국 관련 전공 학생의 한국 유학, 관련 전공학자의 한국 파견 혹은 연구 지원 활동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인문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혀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측은 한국 내 베트남 관련 전공 학자나 학생들의 베트남 유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 한국학 관련

베트남어 전공 분야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선두 주자다. 한국 외대는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계기로 양국간 활발해진 교류에 부응하기 위해 1967년 베트남어 전공을 개설했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1992), 영산대학교 (2년제 성심외국어 전문대학이 1994년 신설한

학과를 2003년 이전 받았음), 아시아연합 대학(1998), 그리고 충남산업대학교(1999) 등 4개 대학교가 베트남어 전공을 신설했다. 이 중에서 아시아연합대학은 2002년부터 베트남어 강좌를 중단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사립 재단을 기반으로 하고 한국외대를 제외하고 모두 수교 이후 베트남어 전공을 개설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대학으로부터 해마다 배출되는 베트남어 전공자 220여 명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요 인력 자원이 되고 있다.

베트남 내의 한국 관련 학과는 국립 하노이 대학의 인문사회과학 대학(1992)을 필두로 국립 호치민 대학의 인문사회과학 대학(1994), 국립 하노이 대학교의 외국어대학(1997), 호치민 외국어정보대학(1998), 하노이 외국어 대학(2001)과 호치민시의 홍방대(2001) 등에 설치돼 있다. 이들은 한국어 언어(베트남어) 전공만을 개설한 것과 달리 한국학이란 지역학 전공까지 함께 개설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과 홍방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립대학이다. 학과별 정원은 개설 당시 20-30여명에서 2003년 30-80명 수준으로 늘었다.

베트남 내 한국학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한국 국제협력단(KOICA), 국제교류재단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협력단은 한국어 교육 강사나 한국학센터 설립 분야를 담당하고, 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과 설립에 따른 교수 요원의 확보 문제와 학생들의 한국 유학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지원한다. 학술진흥재단은 베트남 내 한국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의 관련 전공 교수를 파견하거나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한국학 발전에 중추적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재단은 호치민 대학교의 한국학센터를 비롯, 베트남 내 대학교에 매년 한국어 강사 2-6명을 꾸준히 파견하고 있다. 국제 교류재단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하노이 대학교와 호치민 대학교의 한국학과에 약 13만 4000달러를 지원했다. 학술진흥재단은 1997년 이후 꾸준히 하노이 대학교와 호치민 대학교의 한국학 지원을 위해 교수 요원을 파

견하고 있다. 파견 기간은 1-2년이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 30여명이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한국 대학의 정식 학위 과정에 등록, 수학했다. 이 가운데는 1969년과 1973년 각각 1명씩도 포함돼 있다. 1994년 이후 2002년까지 베트남인 27명이 한국어 강사요원으로 초청돼, 한국의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에서 수학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나) 대학간의 교류

한국과 베트남의 대학 기관간 공식 교류 활동도 활발하다. 전공교수의 교환 제도, 교환 학생 제도, 공동 연구 혹은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한 학술 교류 및 대학 운영의 국제적 협력 등이 그 예다. 또 상호간 특별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교수와 학생들의 관심을 더욱 확산시킨 사례도 있다. 실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과 베트남 대학간의 37차례 자매결연 등의 공식 교류가 있어 왔다. 이중 12건이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나머지 25건이 2002년 이후 시작되었다. 이는 양국간 교류의 심화와 한국 대학들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 고조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통상 대학간 국제적 교류가 국가별로 하나의 대학과 이뤄지는 것과 달리 여러 대학과 겹치게 교류한다는 점이다. 한국 외대는 호치민 대학교와 하노이 대학교와, 하노이 대학교의 경우엔 한국 외대 뿐만 아니라 고려대, 포항공대 등 10여 개 대학교와 교류하고 있다.

정식 교육 기관간 교류와 더불어 특기할 만한 것은 경제 및 산업 협력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 지는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이다. 외국인이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서 기술을 습득하면서 돈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1993년 말부터 베트남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도입 초기엔 약 2,000여 명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것이 2002년 말 1만 5,000여 명으로 늘었다. 이 제도는 사실상 한국의 노동집약적 부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기도 해 산업연수생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에서 취업,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연수

생들이 종종 받는 부당 처우가 베트남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한다.

(2) 사회·문화 교류관계의 변화

양국간 다양한 직접 행사를 통해 양국의 일반인 혹은 관련 단체간의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행사를 분류하면 문화 예술 공연, 체육, 대중 매체를 통한 이해의 교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교 이후 베트남의 첫 한국 행사는 1993년 대전 엑스포에 초청된 베트남 경음악 가무단의 공연이었다. 그 후 한-베트남 수교 1주년 기념행사로 1993년 12월 한국의 민속무용단인 국수호 무용단이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공연한 것으로 시작으로 수교 5주년, 10주년 등 형식을 통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문화사절단의 교류가 있었다. 대표적인 직접 공연 행사로는 한국전통무용단(1996), 한명옥 예술단(2000), 한국전통예술 공연단(정동극장, 2001), 한울림 사물놀이(2002), 국수호 디딤 무용단(2002), 사물놀이 한울림(2002), 김덕수 사물놀이패(2002), 한국 민속씨름대회(2002), 안숙선 판소리팀(2002) 등이 있다.

스포츠 행사 또한 빈번히 개최되었다.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의 경우 국가간, 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소속 축구단과 베트남 축구팀과의 친선 경기가 자주 열렸다. 포항제철 ATOMS 축구단(1994)을 시작으로 금성사 Cheeethas 실업축구단(1994), 주택은행 축구단(1995) 등이 베트남을 찾았다. 한국이 중주국인 태권도 시범단(1993, 2002) 도 베트남에서 행사를 가졌다.

양국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 매체간의 교류 또한 활발히 이뤄졌다. 한국일보의 베트남 취재단(1994), 라이파이한 촬영단(대신영화사, 1994), 교육방송 특별 취재단(1994), SBS, KBS 그리고 MBC의 베트남 해방 20주년 특별 취재단 혹은 다큐멘터리 제작팀(1995), 부산 TV 방송국 개국 특집 드라마 제작팀(1995), 마산 MBC 취재단(1996) 등이 대표적 예다. 이밖에 2000년 한국 복식 문화 전시회, 베트남과 한국의 수교 10주년 기념으로 2002년 한-베트남 미술전 등이 열렸다.

양국에 대한 도서 출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치 경제 분야의 전공 서적을 제외한 일반 사회·문화 및 역사 관련 도서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출간되기 시작했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 관련 서적은 아직 그 수가 미미한 편이다. 1998년과 1999년 한국 정부의 소개로 한국 전래 동화가 현지에서 발간되었다. 반면 한국 쪽에선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몽실언니’, ‘금오신화’ 그리고 ‘진달래꽃’ 등을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했다. 한국 민족문화 작가회의가 베트남 문인회와 공동으로 양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 2002년 베트남에서 한국 시인 5인의 작품이 출판됐고, 2003년 한국에서 베트남 단편 소설이 출판 예정이다. 한편 한국 소설 가운데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것이 꽤 있다. 박영환의 ‘머나먼 송바강’,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은 베트남 전쟁 참전 문제를 직접 다루며 전쟁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최근 방현석의 ‘하노이에 별이 뜨다(2001)’와 ‘랍스터를 먹는 시간(2003)’ 등은 이후 시간 흐름 속에서의 양국간의 진정한 이해를 그려내고 있다.

(3) 베트남 한국인의 교민사회

베트남 내에서 처음으로 한인 사회를 형성한 이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0년대 강제 징용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 끌려 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1955년 한국과 남베트남의 수교 뒤 이들 교포 1세를 중심으로 교민회가 설립되었다. 초기 미미하던 교민회의 활동은 1960년 중반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이후 활발해졌다. 한국군 참전에 맞춰 한국 정부가 교민 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호치민(당시 사이공)에 교민회관을 건립하거나, 한글학교를 여는 사업 등이 추진됐다.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함에 따라 교민 200여 명과 그 가족 700여 명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 당시부터 살았던 소수의 교민들은 공산치하의 베트남에 남아 교민 사회의 명맥을 이어갔다. 1992년 수교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교민 사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비록 정확한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대략 한국 공관이나 현

지에서는 호치민의 경우 2000년 약 5,000여 명, 2003년 최대 20,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베트남, 특히 호치민 교민 사회의 구성원을 출신별로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류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2차 대전 후 베트남에 살기 시작한 이들이다. 대부분 전쟁 인력이었던 남자들이라 그 수가 미미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착 과정에서 현지인과 결혼했고, 그 자손들은 대부분 베트남 사회로 편입되었다.

둘째 부류는 베트남 현지 투자 기업으로 공식 파견된 인력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기업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생활한다. 3-6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치면 한국으로 귀환한다. 마지막 부류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머물며, 소규모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한국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이다. 대부분의 교민이 이에 해당하며 파견 인력과 달리 현지에 정착, 장기 체류한다.

이런 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두 교민그룹간에는 절대적 협력 관계가 형성돼 있다. 파견 교민들은 일반 교민들의 경제와 생활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파견 교민들은 일반 교민들로부터 사회·문화적 편의 시설을 제공 받고 있기도 하다. 호치민의 한인회의 구성을 보면 두 그룹 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한인회는 집행 임원 12명, 고문 및 자문단 18명, 그리고 이사진 42명을 두고 있다. 집행 임원의 대부분은 일반 교민이 맡고 있고 파견 교민들은 대부분 고문 및 자문단에 들어가 있다. 호치민에서 한국인 상권의 중심지는 Pham Van Hai라는 곳으로 20여 개의 한국인을 위한 상점이 몰려 있다.

<표 III-19>는 호치민에 사는 교민이 소유한 자영업체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1년부터 2년간 전체 자영업체는 144개에서 228개로 늘었다. 식당, 유흥업소 혹은 오락시설 부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식당은 2001년 12월 55개에서 2003년 9월 67개로 늘었다. 유흥 및 오락업소는 24개에서 37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업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식 품 가라오케는 별 변동 없이 15-6개 수준을 유지했다. 교민 이익 단체나

종교단체 동회도 16개에서 24개로 늘어 교민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 교민 사회는 베트남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유일하게 접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III-19> 호치민시의 한국교민 자영업 현황 변화, 2001-2003

구 분	2001년 12월	2003년 9월
교민이약단체/종교단체/ 동교회	16	24
병원/의원/약국	6	8
교육기관	5	8
식당	55	67
식품/생수	8	14
유흥업소/스포츠/사우나/맛사지/ 카페	24	37
피부관리실/미용실/이발관	8	16
차량생산/정비/판매/렌트	4	6
부동산/건설업	N/A	9
디자인/인테리어/ 인쇄/지수	4	14
관광여행	6	9
도서/세탁/제과점/컴퓨터/ 금고	8	16
합 계	144	228

참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포함하지 않았고 순수 현지에서 개인사업을 기준으로 삼았음.
 자료의 통계는 완전한 정확성을 갖고 않으나 한인회에 등록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인 자영업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전체적인 변화를 이해하는데는 유의미한 통계치를 제공함

출처: 호치민시 한인소식 2001. 12. ; 2003. 9.의 Yellow Pages 참조

라. 현지 한국기업과 한국 사회·문화의 교류관계 현황

앞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정치, 경제 및 일반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 채널들을 살펴봤다. 그 결과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 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치, 경제적 유대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불어 일반 사회·문화 부문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 다양한 교류 채널의 활성화에 따라 우호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현지에 조성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문화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류 채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국가 기관 혹은 일반 민간단체에 의한 다양한 현지 문화 행사다. 둘째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 문화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다. 전자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간, 혹은 일반 민간 단체간 친선 교류라는 다소 느슨한 형태를 취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된 문화를 현지인이 수용하거나 향유함으로써 결국 소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접근을 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과 직결돼 있는 만큼 현지 소비자에 대한 침투력은 그 어떤 교류 채널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분석하게 될 현지 기업의 활동과 한국 문화의 전이 대한 사례 연구는 현지에서 일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현지 한국 기업의 활동을 문화 전이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두 부류의 기업군이 있었다. 첫째, 삼성과 LG 등 대규모 그룹 단위로 진출한 기업군이다. 이들은 본국의 문화를 활용하여 현지의 시장 개척 혹은 진출 기업의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구축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한국 문화의 전이 및 문화 산업의 진출 과정에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둘째는 문화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군으로 포스코가 간접경영을 하는 다이아몬드 백화점(Diamond Department Store)이 대표적이다. 백화점은 진출국의 생활양식을 이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본국의 문화의 전이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대기업은 한국 문화의 전이를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가

노동 집약적인 부문에 몰려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기술 또는 자본 집약적인 부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이들의 존재는 한국 경제의 이미지, 더 나아가 한국이란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들의 기업 활동이 현지에서 한국 경제 활동과 같은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현지 선호도나 인지도도 높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의 한국 문화 마케팅은 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진 다국적 기업의 고급 이미지와 한국 문화 및 문화 상품의 세련됨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의 한국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은 일반 친선 교류보다 전략적으로 현지의 특정 계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노린 것이어서 더욱더 침투력이 높고 직접적이다. 이들 기업군의 한국 문화 마케팅을 크게 분류하면 한국 문화를 진출 기업 활동의 현지화 혹은 2차적 이익을 위해 간접 활용하는 경우와 현지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직접 활용하는 경우다.

(1) 현지 한국 기업의 한국 문화 간접 활용 사례

여기서 간접이라고 함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마케팅 전략에 원용할 때 이를 소비자 계층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직접 활용하기 보다는 대(對) 커뮤니티 활동, 테마성 판촉 행사 등으로 간접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간접 활용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현지에서 진출 기업의 정체성(corporate identity)을 소비자에게 각인, 강화시켜 기업 이미지(corporate image)를 우호적으로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다른 경우는 진출 생산 기업이 현지 고용인, 또는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즉 생산 또는 고용 문화의 현지화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는 대기업-삼성이나 LG계열 기업-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된다. 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하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법인 사례

삼성전자의 베트남 현지법인은 1995년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지의 Korea and Trade Import Export Electronics(TIE) 사간 8:2의 자본 합작으로 설립됐다. 모니터 등의 TV 생산 라인(연 100만대), VCD, DVD 생산 라인(연 5만 여대), 기타 백색가전 생산 라인(5만 여대)을 가동 중이다. 현지 법인은 현재 휴대폰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2003년 현재 종업원은 총 288명으로 그 중에서 베트남 현지인이 281명 본국 삼성전자에서 파견한 한국 직원이 7명이다. 주요 생산품 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 가전은 전부 베트남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고, 그 외 제품은 주로 동남아 혹은 대양주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는 아직 현지의 시장구매력이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02년부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도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매출은 1999년 3200만 달러에서 2000년 4600만 달러, 2001년 9300만 달러, 그리고 2002년에는 1억58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1998년부터 이익을 실현했다. 현지 시장에서 TV와 모니터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약 30%에 이른다.

마케팅 전략을 살펴 보면 신문 광고와 TV 광고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하계 스포츠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축구와 배드민턴, 현지 내륙 수로에서 벌어지는 보트 레이싱 경기를 협찬하고 있다. 또한 삼성이IT 고급 브랜드란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현지 젊은 층에서 열광적 반응을 얻고 있는 사이버 게임 관련 대회도 연다. 바로 한국 본사와 World Cyber Game(주로 FIFA와 War 게임을 기초로 한 것)을 공동 개최해 베트남의 청소년들에게 삼성과 한국의 이미지를 IT 강자 또는 강국으로 심고 있다. 대 지역사회 행사로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 돕기나 수재민 돕기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이런 행사에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연 2만 여명이 참여, 삼성 로고와 함께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어 전국 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2차적 효과를 거두곤 한다. 현지 법인은 또 다양한 지역사회 장학금 지원과 소외 계층인 양로원과 고아원 지원, 언청이 및 사시 무료 수술 지원 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현지법인은 또 한국 TV 드라마를 통한 마케팅을 처음 시도한 기업이기도 하다. 1998년 베트남 내 한류 열풍에 기폭제를 마련한 장동건과 김남주의 의가형제(드라마)를 방영토록 하는데 직접 간여했다. 그러나 이후 직접 한국 상품을 이용한 마케팅 보다는 한국문화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지 법인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경영 문화를 도입, 운용 중이다.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프로그램엔 유교적 가치가 깔려 있다. 현지 법인은 현지 직원 가운데 우수 인재를 뽑아 한국의 우수 대학으로 진학시키고 서울 본사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나) LG전자 베트남 현지법인 사례

한국 LG전자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LG메카는 1997년 다른 LG그룹의 계열회사와 함께 설립됐다. 삼성 전자가 남부 지방인 호치민 근교에 위치한 것과 달리 LG메카는 북부 지방인 하노이 근교로 진출했다.

LG메카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마케팅 차원에서 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2년 국립 하노이 대학과 호치민 대학 등 주요 대학의 수석 입학자 59명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2003년 현재까지 약 100여 명에게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이러한 장학금 지원 사업은 LG전자가 베트남 인재 육성을 위해 수 년째 벌이고 있는 장학사업 가운데 하나로 다른 업체들이 지원이 일회성 행사인 것과 달리 LG전자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법인이나 본사 차원에서 지속 관리, 활용한다. 장차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인 셈이다. 실제 2002년 장학금 혜택을 받은 12명의

우수 졸업생들을 채용, 베트남 관련 제품을 개발할 연구 요원으로 경남 창원원의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사업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역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 2004년부터 지방 중소도시들로까지 확대해 현지의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 등용,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⁴

LG메카가 펼치는 장학 사업 관련 마케팅은 이뿐 아니다. 지난 1999년부터 4년째 베트남의 메이저 TV사인 VTV3와 공동으로 SK가 예전에 실시했던 ‘장학퀴즈’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베트남에서는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프로그램도중 LG 브랜드의 노출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에 생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천 득 령 국가주석과 레 카 푸 전 공산당 서기장 등 정계 지도자들도 빼놓지 않고 시청할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베트남 정부에서 이와 같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 후원하는 편이라 여론도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3명의 최장원 중 2명은 호주 멜본의 스윈번(Swinburne) 대학에서 유학 중이다.

LG전자는 이러한 교육 부문의 후원 사업을 통해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LG 브랜드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2년부터 후원 사업을 더욱 다각화, 유치원과 초등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페인팅 페스티벌 등도 벌이고 있다. 또 베트남 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현지에서 문을 연 LG디지털센터 등을 중심으로 ‘LG디지털센터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호응도는 상당히 높아 LG뿐 아니라 한국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는 또 장학퀴즈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VTV3 관계자들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초청, KBS, MBC, 교육방송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⁴ 『연합신문』, 2003년 7월 5일.

(2) 현지 한국 기업의 한국 문화 직접 활용 사례

(가) LG 화장품 베트남 현지법인 사례

베트남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한국 문화 활용 마케팅 사례와 달리 LG생활건강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LG VINA Cosmetics은 현지 진출을 위해 한국의 대중 문화를 직접 활용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보다 직접적이었다. 1997년 LG가 베트남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당시 화장품은 여성을 위한 제품이고, 일종의 사치품 혹은 사회적 신분과 관련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LG의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도 20-30대 대도시의 상위 소득 계층으로 한정됐다. LG는 이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중 문화 상품을 직접 활용한 마케팅을 펼쳤고, 시장 진입에도 성공했다. LG의 성공은 곧 한국 대중 문화 상품의 성공이기도 했다. LG화장품의 구매 계층과 한국 대중 문화 상품의 소비 계층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LG화장품은 마케팅의 성공으로 현지에서 고급 브랜드란 이미지를 심은 것은 물론, 최상위 화장품 소비 계층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데 성공했다.

A. LG DeBon 진출(FDI) 전략

한국 LG화학의 사업부였던 LG생활건강(화장품 포함)은 1990년대 중반 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LG는 인도차이나 중심국가인 베트남의 내수 시장이 개방에 따른 고도 성장으로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고 보고 1997년 현지의 VOCARIMAX사(식용품 제조업체)와 6:4 자본 합작사를 세웠다. 베트남 정부가 소비재 산업에 외자가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서둔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에는 화장품 시장이란 게 사실상 없었다. 아주 기초적인 화장품이나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입 상품만 소규모로 거래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LG생활건강의 당시 베트남 시장 진입은 브랜드 파워를 지닌 다른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전에 가장 먼저 공략한다는 의미였다. 즉 First Mover로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의

미기도 했다. 더욱이 LG그룹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LG계열사와 동반 진출하는 상황이라, LG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1997년 하노이와 호치민을 거점으로 대규모 판매망을 조직한 뒤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기본적인 제품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0년 3월에는 호치민 근교의 동나이 산업단지 내에 거점 생산 공장을 완공, 연간 800톤 규모의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샴푸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지 주요 브랜드는 기초 화장품의 경우 E.Z.up와 Essance, 샴푸의 경우 DeBON과 Dobule Rich 등이다. 현지 직원은 1998년 231명에서 2003년 2월 489명으로 늘었다. 본사 파견 직원은 11명이고 현지 고용인은 478명이다. 매출은 1999년 460만 달러에서 연평균 26%씩 성장, 2002년 91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현지 시장의 성격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와 성장세라는 평가다.

B. 현지 Marketing 전략

LG 화장품은 베트남의 고가 화장품 소비시장의 상위 10% 계층에서 70% 이상의 독점력을 갖고 있다. 이는 LG 화장품이 고급 브랜드 시장에서 확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경제 성장에 따라 지속적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대중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과 생산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베트남 진입 초기만 해도 화장품 시장이란 것 자체가 사실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탓에 ‘메이드인 프랑스’화장품에 대한 어렵잖은 인식만 있었을 뿐이었다. 대부분 화장품은 수입된 것으로 중국에서 밀수된 저가 제품이 대략 1-5 달러, 중가 제품은 8-35 달러, 정상적인 수입품은 10-36 달러였다. 공급은 대부분 선원 등을 통한 밀수에 의존했다. 지역으로, 소비자로 공급되는 유통 구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LG화장품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20-40대 여성을 목표 고객으로 설정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색조 화장품 E.Z.up 립

스틱에 대해 대대적 마케팅을 펼쳤다. 가격은 6-15 달러로 책정했다. 브랜드 이미지의 핵심 가치를 1)고급, 2)고객과의 동일성, 3)경쟁 제품(수입품)을 통한 수입 고급품의 이미지, 4)고객에 대한 특별 서비스, 5)베트남 여성을 위한 이미지 등으로 정했다.

적절한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베트남 내 최초의 최고급 백화점인 한국계 다이아몬드 백화점에 판매코너를 설치했다. 대도시 지역에 대리점을 냈고, 일부 슈퍼마켓에 단독 코너를 설치했다. 대인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사원 제도도 도입했다.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베트남 사회의 배타적 사회 관습 탓에 거부감이 있었으나 차차 화장품이란 특성, LG란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 지금은 방문 판매가 주된 판매 루트가 되었을 정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LG화장품은 본사의 협조 아래 철저히 한국식 방문 판매 제도를 응용했다. 방문 판매 제도에 대한 전례가 없는 베트남에서 직원들에게 기법을 전수하고 제품을 팔게 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한국으로부터 강사를 파견 받아 한국식 기법을 전수 받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사례를 보여줘 현지인이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만큼 직원 교육 과정에서 LG그룹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소개, 직장 예절 등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우수사원은 한국 본사와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특이하게 직원 대상 교육 가운데 LG그룹의 사가(社歌)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게 하는 것도 있다. 방문 판매 사원들이 매 주초 미팅 때마다 사가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C. 한국문화 활용과 LG DeBon

1999년경 한국의 장동건과 김남주를 주인공으로 한 ‘의가형제’가 현지에서 방영되자마자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현지의 이러한 반응은 1986년 경제 개방 이후 소득 성장에 따라 높아진 대중 문화에 대한 욕구를 이 드라마가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지인들은 중국 대중 문화가 더 이상 그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서구 대중 문화와는 괴리

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의가형제’를 통해 그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대안적 서구문화를 발견한 것이다. 영상을 통해 비추어진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과 그에 따른 소비 욕구 또한 상당히 세련되게 변형된 서구문화로 현지인들은 받아 들였다. 때마침 김남주가 한국의 LG 화장품의 메인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다. 현지의 LG 화장품은 김남주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델’을 수입, 전국방송에 방영시켜 전국적인 호응을 얻어내었다. 모델의 주제나 배경 역시 베트남의 LG 화장품이 타겟으로 잡은 대도시 거주 고소득 층의 20-30대의 여성에게 호소력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지에서 “김남주는 LG 화장품”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갔고, 김남주를 적극 활용하는 마케팅(방문 사인회 등)도 시작했다.

<표 III-20>은 베트남 LG 화장품의 한국 TV 드라마 스폰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까지 5년간 총 18편을 지원했다. 2000년 최대 8편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이용한 마케팅을 벌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는 심하지만 간접 광고에 대한, 특히 방송 혹은 영상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어 이를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했다. LG 화장품은 2001년 베트남에서 최대 호응을 받은 한국영화 “짬”을 스폰서하면서 안재욱의 화장 장면 등 몇몇 장면에서 실물제품 혹은 브랜드 이미지를 배치하는 간접광고 기법인 PPL(Product Placement)을 적극 원용하여 LG 로고의 화장품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표 III-20> 베트남 LG 화장품의 한국 TV 드라마 스폰서 현황, 1998-2002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편수	1편	2편	8편	4편	3편	18편

출처 : 베트남 LG 화장품의 내부자료

마케팅이 단순한 영상물을 통한 제품의 노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철저

한 사후 관리로까지 이어져 더욱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드라마를 스폰서할 경우 적극적으로 출연 연예인에 대한 자료(사진과 최근 이슈)를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LG 화장품에 대한 간접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2000년 5월 LG 화장품의 프로모션 일환으로 이루어진 김남주의 베트남 방문이 그 예다. 김남주의 패션쇼, 김남주의 단독, 혹은 베트남 현지 가수들과의 합동 공연, TV출연(HTV), 팬 사인회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 활동도 이루어졌다. 당시 공연에는 베트남 정계 및 사회의 주요인사와 더불어 약 8천 여명의 팬들이 참관하였다.

<표 III-21>은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베트남의 LG 화장품에서 E.Z.up 제품의 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한 김남주 초청 등 한국 관련 프로모션의 현황이다. 김남주의 방문 이벤트때 등 제품의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약 10% 정도 향상되었다. 베트남의 TNS의 조사에 의하면 김남주 모델에 대한 인식도는 1) 외모 2) 특성 3) 화장 스타일 3) 아름다움의 구성요소 등에서 모두 LG화장품의 제품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김남주의 스타일은 곧 LG 화장품의 스타일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스타일은 드라마 ‘모델’로부터 강력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1> 베트남 LG 화장품의 프로모션 현황

년 / 월	행 사
2000년 4-5월	다이아몬드 추첨 행사
5월	김남주 방문 이벤트
2001년 3-4월	한국여행 추첨
1-3월	냉장고 추첨
6-8 월	보석추첨

출처 : 베트남 LG 화장품의 내부자료

이와 더불어 2002년 한-베 수교 10주년을 맞아 베트남의 LG 화장품은 김남주, 쿄요테, 왁스, 베이비 박스 등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초

청하여 ‘2002 Korea Dream Festival’을 열었다. 한국 연예인이 대구모로 베트남 공연을 벌인 최초 사례로 베트남 연예인도 함께 했다. 베트남의 10-20대를 겨냥한 행사였다.

(나) 다이아몬드 백화점 진출 사례

고급 백화점은 최고급 제품이 소비자와 만나는 곳이다. 고가품 시장의 특성상 고급 백화점은 상류 소비 계층을 위해 내부 문화 환경 시설을 마련하고 고급 문화 행사를 제공한다.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고급 백화점은 특정한 상류 소비 계층의 고급 소비문화 아이콘을 리드하거나 소비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소비재 기업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고급 백화점으로의 진출은 수익뿐 아니라 그 제품의 사회·문화적 품격까지 관련된 문제다. 실제 고급 백화점에 진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로모션 효과가 있다.

베트남 최초의 고급 백화점인 다이아몬드 백화점(Diamond Department Store)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 백화점은 한국 고급 백화점의 경영 전략, 매장 시설, 그리고 운영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현지 한국산 소비 제품의 주요한 시장 창구이기도 하다. 베트남인들은 다이아몬드 백화점은 고급 소비문화의 창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식 백화점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 백화점에 진출해 있는 한국 문화나 상품에 대해 고급품이란 이미지도 갖고 있다.

A. 다이아몬드 백화점 진출(FDI) 전략

1990년대 중반 포스코와 현지 베트남 회사가 합작, 호치민시의 중심지 혁명기념관(전 남베트남의 대통령궁) 앞에 위치한 프랑스식 4층 건물과 부속 부지를 인수했다. 프랑스식 건물은 유휴 건물이었다. 포스코 등은 이 부지에 베트남에서 가장 현대식인 다이아몬드 플라자를 건립, 외국계 지사가 입주할 오피스와, 그들을 위한 최고급 서비스 아파트를 공급했다. 프랑스식 건물은 입지 등 제반 조건을 고려, 현대식 백화점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방 이후 경제 성장에 따라 고가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베트남 내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 밀수나 복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1999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8월 25일 백화점이 정식 오픈했다. 바로 다이아몬드 백화점이다.

포스코는 다이아몬드 백화점의 운영을 한국의 백화점 경영 전문회사에 맡겼다. 이 회사는 철저하게 한국식 대형 고급 백화점을 벤치마킹했다. 백화점 내부의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방법은 물론 한국 백화점의 문화 행사까지 원용했다. 다이아몬드 백화점은 최초 우려와 달리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자극 받아 다른 기업들도 백화점을 연달아 열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백화점은 선두주자로서의 우위,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철저한 경영과 관리 등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1년 대비 2002년의 매출 실적은 103만 달러에서 225만 달러로 62% 성장했다. 이익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2003년 상반기에도 동기 대비 21% 성장했다. 2003년 현재 백화점 운영 회사의 직원은 모두 58명으로 그 중에서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2003년 현재 호치민 시내에는 다이아몬드 백화점을 제외하고 중급 이상의 유통 백화점 혹은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7여 개 정도가 있다. 대부분 2001년과 2003년 문을 열었는데 다이아몬드 백화점과는 달리 대부분 고전하는 편이다.

B. 현지 Marketing 전략

다이아몬드 백화점은 핵심 이미지를 ‘베트남에서 최상의 고급 백화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1층에 고급 국제 브랜드를 배치했다. 주로 고급 화장품, 여성 피혁 제품과 잡화를 취급한다. 2층에는 다양한 외국 의류 브랜드 매장이 있다. 현지 브랜드는 최소화했다. 3층에는 고급 아동복과 일반 잡화 매장을 설치했다. 음식점과 카페도 3층에 뒀다. 1층 고급화, 2층 다양화, 3층 소비 문화 공간이란 매장 운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주요 고객이 월 평균 소득 1,000 달러(베트남 최상위층 30%)이상, 25-35세의 여자란 사실에서 기인한다. 국적별로 보면 고객의 80%가 현지인이고 외국인은 20%다. 주 중 고객은 하루 2만여 명, 주말 고객은 3만5,000여 명 선이다. 1주일 동안 약 15만여 명 정도가 백화점을 찾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백화점을 찾는 고객 중 물건을 사는 비율은 주중이 8.5%, 주말이 6.5%다.

다이아몬드 백화점은 한국 문화와 한국 문화 산업의 통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백화점의 고객은 LG화장품의 소비계층과 겹친다. 한국 대중문화 상품(영상물) 향유, 화장품의 소비, 그리고 한국식 백화점에서의 소비 행위에 이르기까지 인식이나 행위의 바탕에 한국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백화점에 입주한 매장은 2000년 오픈 때 91개에서 2002년 154개로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 한국인 매장이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 한국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 LG 화장품부터 의류, 패션 보석, 팬시 문구류, 가방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이다. 중저가 브랜드가 주로 입주한 상태인데 현지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브랜드 매장은 한국에서의 홍보용 사진 또는 DM을 그대로 사용해 한국 상품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어로 상표를 표기하거나 한국 화폐 단위인 원으로 상품 가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표 III-22> 한국인 점주에 의한 매장 현황, 2003

구 분	1 층	2 층	3 층	합 계
한 국	7	19	22	46
비 율	14.00%	34.50%	29.70%	27.00%

출처 : 다이아몬드 백화점 내부자료

이와 별도로 백화점의 4층의 공간에서는 다양한 오락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한국식 볼링장, 한국영화 배급사(좋은 친구들)에서 투자한 한국 영

화 전문 영화관, 한국식당, 인터넷 카페 그리고 당구장 등이다. 이 공간은 서구적인 오락시설이 부족한 베트남 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 단위로 또는 젊은 세대끼리 주말마다 찾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IV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류관계 이해

제 IV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베트남과 태국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권을 가지며 성장해 온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긴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이다. 문화적으로 보면 베트남과 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 중 가장 동북아시아와 가까운 불교와 유교적인 문화적 성향이 강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슬람국가로서 이슬람 문화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17,508여 개의 섬과 300여 인종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1947년 오랜 식민지 시대에서 독립하였다. 그 후 인도네시아는 서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의 모임인 비동맹을 주도하고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서구세계와 거리를 두는 독특한 행보를 보여 왔다. 1966년 수하르토 정부 이후 경제개발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때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오자 취약한 경제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재벌위주의 경제성장 모델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는 급격한 사회민주화의 요구로 인하여 최근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비동맹,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으로 다른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에 비해 한국과는 이렇다 할 교류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거 해외로 이전되면서 인도네시아와 본격적인 경제협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최근에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 대중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가. 정치 환경

인도네시아(Indonesia) 국명의 어원은 인디언(Indian)이라는 뜻의 ‘인도스(Indos)’와 섬들이라는 뜻의 ‘네스오스(nesos)’의 합성어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고대 인도에서 온 인디언 이주민의 유래와 17,508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의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의 역사는 기원전 5,000년 전 토속 원주민인 자바인의 최초 거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인도인이 이주해오기 시작하여 7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6세기까지 인도지역에서 발생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군사, 문화, 음악 등 관련 문화와 문명들을 받아들여 강력한 힌두와 불교 왕국 시대를 형성하였다.

말라유 왕국(Melayu, 644-688)은 최초의 지역 왕국시대를 열고 힌두교를 바탕으로 수마트라 남부지역을 지배하였다. 이후 불교를 기반으로 한 스리위자야 왕국(689-864)은 수마트라, 자바, 그리고 말레이 반도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특히 마자파히트(Majapahit, 1293-1520) 왕국은 현재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북 베트남을 포함한 캄푸차 반도와 필리핀까지 기반을 두고 힌두와 불교의 문화를 바탕으로 중세시대 가장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약 20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1527년 이슬람 제국의 침략으로 자바왕국의 수도 순다 케라파(Sunda Kelapa)가 점령된 후 수도의 이름을 ‘위대한 도시’라는 의미의 자야 카르타(Jaya Karta)로 개칭하면서 현재의 자카르타(Jakarta)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던 이슬람 제국은 간헐적으로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와 치열한 식민전쟁을 벌였지만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네덜란드는 1824년 전 인도네시아를 직할 식민지화 하였다.

이후 1945년 8월 17일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 패배와 동시에 수카르노(Soekarno)의 독립 선언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서방 식민제국주의인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로서 착취와 투쟁의 역사를 반복하였다. 그 중 가

장 참혹한 사건은 1740년 네덜란드의 점차적인 식민지화에 반발하여 발생한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의 폭동 연루자 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히려 1799년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통한 민족화 작업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11년 영국이 네덜란드 식민정책과 집행의 거점인 동인도회사를 통치하게 되어 현지민족 순화정책으로 부분적인 자치권과 노예 매매 금지 등 우호정책을 펼쳤으나 1814년 다시 런던협약으로 재차 통치권이 네덜란드로 귀속됨으로써 20세기까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남게 되었다.

현지인에 의한 최초의 주목할 만한 조직적인 민족 정치활동은 1908년 교육사업을 위해 수토모(Soetomo)가 설립한 노블 컨덕트(Noble Conduct)라는 민족운동단체가 정치단체화 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탕으로 현지 인도네시아인에 의한 정치 세력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1912년 무슬림 상인단체가 정당단체(Sarekat Islam)를 설립하여 종교와 지역 자본을 기반으로 정치세력화를 꾀하였으나 1920년 사회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이 정당은 좌·우익으로 분리되었다. 좌익이 장악한 이 정당은 최초의 인도네시아 공산당으로 개칭되었다. 우익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설립하고 좌·우익의 대립과 더불어 식민정부에 대한 독립투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도하였다. 1923년 경제 악화로 인한 대규모 비조직적인 노동파업, 1924년 독립쟁취를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 학생연합의 결성, 1926년 인도네시아 식민정부인 국민당에 대항하는 항거 등 꾸준한 독립운동이 계속되었고 식민시대의 종말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 왔다. 1942년 일본은 진주만 폭격 이후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및 식민정권을 장악한 후, 수카르노(Soekarno)와 하타(Hatta) 등 민족지도자들을 석방하여 대동아 공영권의 틀 속에 기존 네덜란드 식민정권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친일세력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 8월 17일 즉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헌법을 마련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 수카르노가 초대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하타는 부통령으로 선임되

었다. 이후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재로 네덜란드와 기존의 식민관계를 국제적으로 완전 청산하고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세계의 냉전구도 속에서 1965년까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한 민족주의자 중심의 수카르노 정권과 사회주의의 공산당과 치열한 이념투쟁을 벌이게 된다. 1965년 중국을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에 의한 쿠데타 시도를 빌미로 대대적으로 사회주의자를 척결하고 나아가 그 동안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던 중국인 화교에 대한 인종 탄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수하르토(Soeharto) 장군은 1966년 정권을 잡아 일당 및 일인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주도하였다. 그는 1998년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하야할 때까지 근 30 여 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부정부패, 인권탄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재벌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외부의 충격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기존 엘리트의 부패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의 정권 유지 기반이었던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이에 따라 전국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자 그는 하비비(Habibi) 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1998년 하야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한 하비비 정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의해 1999년 국민협의회(MPR)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와히드(Wahid)와 메가와티(Megawati)에 정권을 이양하고 사임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사회 계층간의 갈등, 기존 통치세력과 개혁세력간의 갈등, 분출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 인종 및 종교적 갈등의 심화 등으로 지금까지 불안한 과도기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화의 요구에 의해 최초 당선된 와히드 역시 부정부패와 미진한 개혁으로 2001년 국민협의회 특별회의에서 축출되었고, 그 뒤를 이어받은 메가와티도 개혁을 추구하였으나 경제 불황과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전의 수하르토 집권세력인 골카르당이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일당으로 복귀되는 등 정치, 사회적 혼돈은 계속 이어졌다. 2004년 10월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국민직접 선거를 거쳐 밤방 유도요노(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취임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 사회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제 3세계 국가들과 함께 비동맹 창설회원국으로서 비동맹의 순수성 회복을 통한 실질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들의 일원체인 이슬람회의 기구 등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까지 세계를 지배하였던 냉전의 양극인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협력기구인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비서방적인 정치적 선택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방과의 경제 실리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 중국관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5년 공산쿠데타 사태로 악화되고 이후 1967년 양국 외교관 상호 철수로 외교관계가 동결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주의 정책 실시 이후 1985년 양국간 교역이 재개되고 실질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1989년 일본 히로히토 장례식 참석차 방일시 수하르토 대통령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관 사이에 외교관계 정상화 원칙 합의하였다. 1990년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양국은 1990년 대사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0년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이 1991년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1994년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강택민 국가주석이 공식방문, 양국 경협관계 증진에 합의하여 경제협력관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1999년 와히드 대통령 방중, 2001년 주룽지 총리 방문 등으로 양국은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정치,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아세안/아세안+3 협력의 틀 내에서 중국-인도네시아간

양자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실질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대 일본관계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며 최대 규모의 차관 공여국(외채 1,100여 억 달러 중 40%가 엔화차관임)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이 합작을 표방하면서 과도한 이해 추구를 도모하는 데 대하여 늘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성실한 협조자적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험을 우려하여 일본의 군비증강 등 군사력 강화와 이에 수반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하여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나. 경제 환경

1960년대까지 국내·외 이념 투쟁의 결과로 집권한 수하르토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행하였다. 김상겸⁵에 의하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빈사상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장기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경제개발 내각을 출범시키고,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투자 자유화’, ‘해외기업 유치’, ‘세제혜택’, ‘서방세계의 차관 유치’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서구와 일본 그리고 화교들의 자본과 기술들이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1970-80년대에 이룩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분야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

⁵ 김상겸, “인도네시아 - 경제문화의 변화,” 『국제지역정보』, 8권 6호. (2004) 참조.

인 대규모의 비료생산단지, 철강플랜트, 유조선, 석유화학단지, 호텔, 항공, 전자, 관광서비스 산업분야로 변화,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소득의 분배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간, 민족간의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 족벌체제 등장 현상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970-80년대 경제개발의 주체는 정치, 경제적으로 세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수하르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양성한 국영 기업 혹은 정부기관들이다. 이들 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 이상 육박하는 것으로 이는 수하르토 정부가 원주민(뿌리부미, pribumi)에 의한 경제 주도력 확장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주도하던 화교와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인에 의한 자주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결과이다. 대부분 이들 국영 기업들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인 기간 산업개발과 국가 기간시설 확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수하르토 정부의 기반이 되는 군부가 운영하는 경제그룹이다. 처음에는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성격으로 군부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영역을 확장하여 점차적으로 민간경제 영역까지 그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 확장과정에서 현지의 화교 경제그룹 혹은 외국기업과의 사업협력을 맺어 활동하였으나 정경유착과 많은 부정부패로 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세 번째 그룹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그룹으로 화교그룹이다. 이들은 수카르노 정권 시절 원주민 우대정책으로 사업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으나 수하르토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비록 수하르토 정부 역시 경제 주체로서의 원주민 우대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였지만, 화교 경제그룹은 이러한 환경을 역이용한 새로운 정치경제 역할 시스템인 쭈공(Cukong)을 만들어내었다. 쭈공은 경제 및 자본은 화교가 전담을 하고 정치인 인도네시아 원주민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경제력이 총인구 5% 미만인 화교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인도네시아 정·관계 주

요 인사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후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였다. 화교 특유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기업간 주식 교차 소유, 이사직 교환, 합작, 결혼 등 기업과 가문간 연계 강화로 기업 상호간 이익과 불이익 공유, 시장점유율 유지 및 특정 기업에 대한 정치적 불이익 조치 사전 예방 등이 이들 시스템의 특혜였다. 이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통치세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더불어 그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 인도네시아 사회민주화의 척결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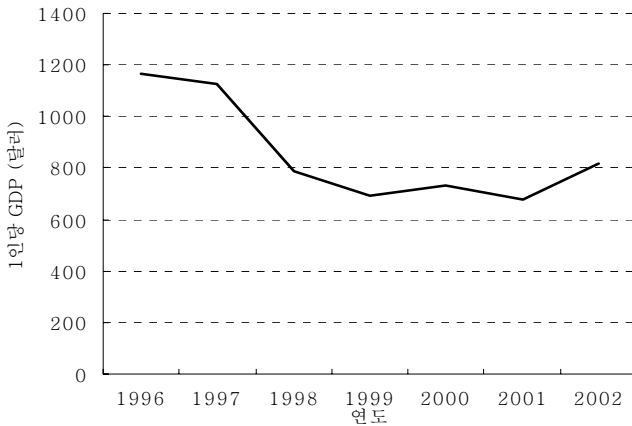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0년 이후 연평균 7.2%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7년 7월 외환 위기 때에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더욱 확대되어 심각한 시스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경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다. 정치적으로 1997년 이후 2004년까지 4명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경제적 계층간의 문제가 종교적 갈등 그리고 지역의 인종적 갈등까지 확산되어 심각한 국가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3년 말까지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감독 하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금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정치적 부패척결,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 국영기업과 군부기업의 민영화 작업, 각종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등 꾸준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 정책의 노력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2001년 3.3%, 2002년 3.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이나마 전반적인 회복추세에 있는 편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적으로는 2차, 3차 산업 중심의 회복이 아니라 기존의 천연자원 수출 등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회복으로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와 사회의 불안은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사회 민주주의 분출로 인한 급격한 노동비의 상승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해외투자 유입 역시 침체되어 있는 형편이다.

<표 IV-1> 인도네시아 GDP/1인당 GDP 추이, 1996-2002
(단위 : 달러)

연 도	GDP (백만)	1인당 GDP
1996	227,312	1,167
1997	215,702	1,128
1998	97,808	788
1999	140,787	693
2000	150,567	731
2001	141,817	680
2002	173,371	819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2003

<그림 IV-1> 인도네시아 1인당 GDP 성장 추이, 1996-2002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2003년

<표 IV-1>에서 나타나듯이 1996년 총 2,273억 달러의 GDP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998년 978억 달러로 60% 이상 감소하였다. 일인당 GDP 역시 동기간 1,167달러에서 788달러로 줄어들었다. 국가 총 GDP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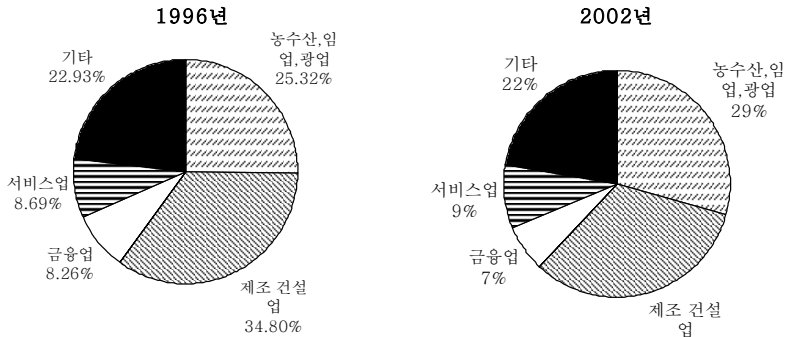
2002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비록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회복하지 못했지만 완만한 회복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개인 소득을 결정하는 일인당 GDP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별반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 IV-2>인도네시아 산업구조의 변화, 1996, 2002 (단위 : %)

연 도	농수산,임업,광업	제조 건설업	금융업	서비스업	기 타
1996	25.32%	34.80%	8.26%	8.69%	22.93%
2002	29.38%	32.56%	6.56%	9.38%	22.12%

출처 : BPS Statistics Indonesia; <http://www.bps.go.id/sector/nra/gdp>.

<그림 IV-2>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의 변화, 1996, 2002



출처: BPS Statistics Indonesia; <http://www.bps.go.id/sector/nra/gdp>.

인도네시아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개발로 인해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1차 산업보다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이후 1차 산업 비중이 오히려 25%에서 29%로 높아지고 제조업과 다른 부분들이 반대로 낮아졌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그 충격이 심하였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8년 말 전체 인구의 24.2%인 49.51백만 명이 빈곤층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노동기구인 ILO는 전체 인구의 48%인 약 1억 명 정도로 추정 발표했다. 빈곤층의 확대는 사회민주화 요구를 더욱 폭발시키고, 빈부간의 갈등과 인종적 갈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다. 사회·문화 환경

(1) 민족과 언어

약 300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어(Bahasa Indonesia)의 통일과 인도네시아 헌법의 기초가 된 국가 정책 원칙인 판짜실라(Pancasila: 신앙, 인간의 존엄성, 통일성, 대의정치, 사회정의 구현 등 5개항의 기본이념) 정신이다. 이를 통하여 ‘다원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이라는 인도네시아 고유의 사회·문화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종적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원주민은 말레이 계통에서 나왔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족을 보면 자바인 45%, 순다인 14%, 마두인 7.5% 등이다. 중국계인 화교와 인도에서 이주한 인도인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도시를 거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공용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n)로 어원은 말레이의 방언으로 분류되고 있다. 7-15세기경에 이르기까지 남부 수마트라지역의 팔렘방을 중심으로 번영한 스리위자야 왕국(689-864)의 상인들간에 사용되었던 말레이어의 원조격인 멀라유어(Melayu)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용되는 언어로 직접적인 표준 언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들 두

국가는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대에 그들의 전통적인 말레이어에 로마 문자를 도입하여 소리글자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300여 종족이 존재하여 각 종족마다 고유의 지역 언어를 갖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국어에 영향을 주고, 다시 국어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어 다양한 지방 사투리가 존재한다. 어째든 아주 배우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국어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민족을 통일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마자의 차용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은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보다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처럼 영어 습득이 용이하고 실제로 영어사용 능력이 아시아에서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영어 이외 외국어로서 오랜 네덜란드 식민지의 영향으로 독일어에 대한 수준도 뛰어난 편이다.

(2) 종교, 이념, 가치체계

인도네시아인의 약 85%가 이슬람교도이며, 12%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3%가 힌두교와 불교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토속신앙을 믿는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교이지만 이 나라의 법률은 네덜란드에서 영향을 받아 서구의 법률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교리대로 처리되는 것은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기본 정신은 팡짜실라(Pancasila)로서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생활윤리와 가치관을 제공해 준다. 기독교는 북부 술라웨시, 말루크, 플로레스, 티무르, 이리안 자야뿐 아니라 이슬람교 지역인 북수마트라의 바타크인에게도 전파되었다. 발리는 힌두교와 그들의 전통신앙에 기초한 고유의 토속신앙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의 종교휴일을 공식 인정했다. 일요일은 인도네시아의 정기 휴일이며 금요일에는 정부기관이 오전 11시 30분에 문을 닫는데 사원에서 단체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원과 교회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도시와 큰 마을에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국제적으로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 바탕에서 기인한다. 최근 중동에서의 이라크와 미국과 전쟁 여파로 인도네

시아 역시 반미정서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2003년 발리와 2004년 호주대사관저 폭파 사건 등 관련 테러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 정치의 갈등으로 인한 국내 여파도 커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와의 극심한 대립을 표출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테 지역에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간의 폭동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의 국민성은 열대성 기후와 풍부한 식생활 자원 그리고 오랜 식민지와 광활한 영토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온순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대국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며 가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 사회로 사회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과 더불어 지역별로 또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이 있다.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민족인 자바인의 경우 상대를 존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협력의 가치를 고유문화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마트라에 사는 종족은 다소 직선적이고 거칠게 보여진다. 그러나 개인간, 혹은 집단간에 신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주로 군부, 종교계 그리고 학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과격한 그룹들이 많은 편이다.

(3) 전통과 관습

선사시대 동남아 문화권 국가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5세기 초 아시아 대륙에서 시작된 힌두교를 최초로 받아들여 A.D. 15세기 마자파힛 왕조 때에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수마트라에서 시작된 이슬람화는 급속한 속도로 자바로 확산되었고, 나중에는 전 군도에 퍼져 인도네시아의 국내 종교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종족만큼이나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는 오랜 전통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여 현재에도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문화는 많은 종족만큼이나 다양하고, 전통, 언어, 방언들이 각자의 특색을 갖는다. 또한 아닷(ADAT)이라는 관습법을 갖는데 이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

농경문화를 기초로 하는 인도네시아 문화도 인도, 중국, 아라비아의 상인들과 유럽의 선교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변화 발전하였다. 16세기 초 여행을 목적으로 온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 최초의 서구 문화가 전래되었으며, 그 후에 네덜란드인과 영국인이 들어왔다. 과거에 인도네시아의 가장 보편적인 종교는 힌두교로서 ‘라마야나’, ‘마하브라히타’ 힌두 서사극은 인도네시아 문화 양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문화의 정수로 손꼽힌다. 전통적인 관습은 다양한 종교 의식과 축제에서 유래된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를 중심으로 신비주의가 전설, 민간신앙, 주술 등을 통해 전승되고 있고,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주술사의 점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한 현대화에 따른 영향으로 많은 문화의 변화도 엿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다. 종족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으로는 토착어를 사용하지만 상호간의 교섭을 위해 말레이를 개량한 인도네시아어를 정식 국어로 정하고 국민의 문화적 통일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과서도 지역을 불문하고 이 언어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의 법률체계는 오래된 네덜란드 형법에 기초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아닷(ADAT)법이라는 관습법이 사회생활을 통제한다. 이 법은 상속행위, 가족생활 같은 사회문제에 적용된다. 이 법은 지역과 종족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양한 종족들이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관습을 형성하여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부 수마트라에서는 모계중심의 가족생활을 하며, 발리에서는 4등급의 카스트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리안 자야, 칼리만탄과 술라웨시는 북 수마트라의 바탁(BARAK)씨족과 같은 부족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닷(ADAT)법은 다른 이슬람교 국가와는 달리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편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전래의 관습과 문

화, 그리고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전통을 지키면서도 조금씩 변화 발전 해왔다.

(4) 인구통계적 특성

2003년 인도네시아의 총 인구는 약 2억 3천여 명이다. 세계에서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이다. 그 중에서 약 2/3 정도가 인도네시아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집중되어 있는 자바 지역에 살고 있다. 수도인 자카르타의 경우 약 950만여 명이 살고 있다. 대부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이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0-14세는 약 35%, 15-64세 사이의 인구가 64%, 그리고 65세 이상이 4%이다.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적고 젊은 층이 많다.

<표 IV-3> 인도네시아 인구 추세와 특성, 1980-2003

년도	총인구 (천명)	성장률	인구유형(%)	
			남자	여자
1990	188,005	-	49.9%	50.1%
1991	191,407	1.8%	49.9%	50.1%
1992	194,868	1.8%	49.9%	50.1%
1993	198,382	1.8%	49.9%	50.1%
1994	201,954	1.8%	49.9%	50.1%
1995	205,588	1.8%	49.9%	50.1%
1996	209,273	1.8%	49.9%	50.1%
1997	212,976	1.8%	49.9%	50.1%
1998	216,668	1.7%	49.9%	50.1%
1999	220,343	1.7%	49.9%	50.1%
2000	224,138	1.7%	49.9%	50.1%
2001	227,741	1.6%	49.9%	50.1%
2002	231,326	1.6%	49.9%	50.1%
2003	234,893	1.5%	49.9%	50.1%

출처 : US Bureau of the Census, International Data Base, 2003

(5) 교육환경

인도네시아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SD) 6년, 중학교(SMP) 3년, 고등학교(SMA) 3년, 대학 4년으로 총 교육 기간은 16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같다. 1994년부터 9학년(초/중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제를 채택 하였으나 경제적 이유로 아직 전면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곳의 대학 교육과정은 8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8월로 한 학기를 마치게 되어 있어 한국과 구별된다. 2002년 현재 148,516개의 초등학교와 25백만여 명 학생, 20,842개의 중학교와 7.4백만여 명의 학생, 7,785개의 고등학교와 3백만여 명의 학생, 그리고 76개 국립대학교와 1,671개의 사립 대학교와 2.6백만여 명의 학생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그 여파는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교육과제는 정부의 투자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교육 시설은 낙후되고, 교육자들에 대한 처우도 낮아졌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수준이 떨어지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자 소득 수준이 높은 상류층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국 조기 유학을 선호하게 되고 그 이탈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1994년부터 실시한 전국민 의무 교육제가 경제불황으로 거의 전면 중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조사한 미국의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안정화 되어 가던 민생치안 문제가 5%에서 15%로 큰 문제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적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에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그 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욕구로 점진적이거나 꾸준한 개혁을 이루어왔지만 이에 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불안한 인식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4> 인도네시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2001-2003

문제점	2003. 6.(n=3000)	2002. 4.(n=3580)	2001. 6.(n=3440)
물가 상승	54%	70%	53%
민생 치안	13%	4%	5%
정치적 불확실성	13%	11%	17%
법적 불확실성	10%	4%	2%

출처 : IFES: National Public Opinion Survey 2003

2. 한국-인도네시아의 교류관계 현황

가. 정치 교류관계 현황

194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공식적인 정부간의 관계는 1966년 영사관계를 수립하고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대사관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1973년부터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정치적 교류관계가 늦게 시작된 것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정치 외교에서의 비동맹 회원국으로서의 위치 때문이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정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독립과 더불어 서방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비동맹국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같은 비동맹의 회원국 북한의 입장을 의식하여 이러한 외교 관계에서 한국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1981년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의 공식방문, 이에 따른 1982년 수하르토의 한국방문 등을 기점으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방문, 1992년 노태우 수하르토 정상회담,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방문, 1999년 김대중 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 2000년 와히드 대통령 방한, 2002년 메가와티 대통령 방한 등 대통령급의 국민인사 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저변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변화로 말미암아 해외직접투자처로 인

도네시아가 부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는 양국의 정치 외교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교류 관계의 확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인도네시아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 통상관계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대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회의(CGI)를 통한 지원증대 및 한국 기업의 현지투자 확대를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른 양국간의 공식적인 정기 고위급 협의회 또한 상설화되어 각종 현안에 대한 활발한 교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의회는 자원 협력위원회(각료급), 통상장관회담(각료급), 임업협력위원회(각료급), 군사정보교류회의(국방부), 그리고 민간경제 협력위원회 등이 있다.

<표 IV-5>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경제부문, 1971-2003

조 약 명	분 야	년도 / 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경제/기술	1971년 8월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경제/기술	1987년 6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 세	1989년 5월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투자보장	1994년 3월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기술	2000년 5월

출처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표 IV-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사회 일반 부문, 1978-2003

조 약 명	분 야	년도 / 월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건설	1978년 9월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교육	1987년 9월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항공	1989년 9월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	교육	1991년 12월
발리섬 도로망 개량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협력 약정	과학기술	1994년 5월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과학기술	1995년 11월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항공	2000년 9월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무상국제협력사업	2001년 12월

출처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표 IV-7>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협력 부문, 1988-2003

조 약 명	분 야	년도 / 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협 력	1988년 11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협 력	1991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협 력	1995년 7월
정부간의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협 력	1997년 11월
정부간의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협 력	1997년 11월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협 력	1998년 1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협 력	2000년 2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	협 력	2000년 4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협 력	2000년 10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협 력	2001년 10월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무상국제협력사업	2001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협 력	2003년 1월

출처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약을 살펴보면 <표 IV-5>에서 <표 IV-7>과 같다. 앞서 언급한 양국관계의 관계 흐름은 대부분의 조약 및 협약들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현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7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필두로 한국의 경제개발 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of Cooperation Fund)을 통한 인도네시아 지원은 2004년 9월까지 약 1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의 기금은 도로건설, 병원사업, 실업교육 등 인도네시아 사회의 기간 시설에 투자되었다. <표 IV-8>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지원한 현황이다.

<표 IV-8> 대 인도네시아 경제협력기금 지원 현황, 1987-2000

년 도	금 액	사 업 명
1987	13.5	파당(Padang)시 우회도로건설사업
1991	25.0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992	1.3	생견사제조
1994	10.0	실업교육 개선사업
1995	10.0	마나도(Manado) 우회도로사업
1997	30.0	칼리만탄(Kalimantan) 지방병원 개선사업
1999	40.0	병원폐수처리사업
2000	30.0	동자바(East Java) 지방병원 개선사업
계	159.8	

출처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1990년 이후에는 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대 인도네시아 지원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무상원조사업은 1960년대 산업연수생 초청사업을 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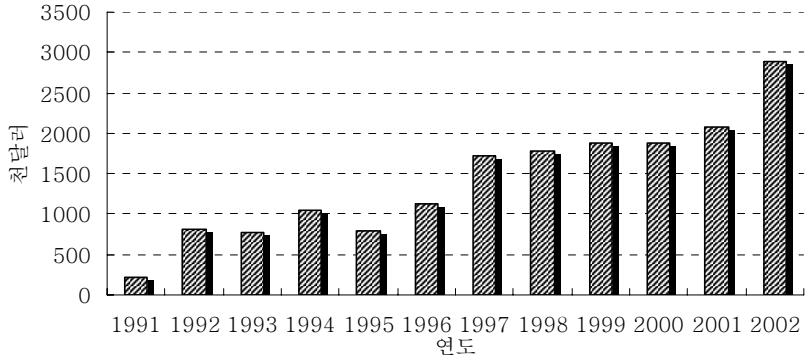
로 사업규모가 꾸준히 증대되어 이제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무상원조 사업의 수월 순위 5위권에 드는 중점적인 협력대상국이 되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표적인 사업 실적을 보면, 1,131명의 산업 연수생 초청사업, 35명의 각종 전문가와 296명의 해외봉사단원 파견, 26건의 대규모 개발 조사사업, 943.5천불의 긴급원조 및 물자 지원사업, 22건 4,929.7천불의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다. 한국 국제 협력단 설립 이후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총 22,097천불(매년 평균 1,699.8천불)을 지원하였다. <표IV-9>는 한국국제협력단이 1991년부터 지원한 연도별 금액과 당해 수월 순위이다.

<표 IV-9> 대 인도네시아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1-2002
(단위: 천달러)

구 분	지 원 액	수월순위
1991	210	7 / 120
1992	815	1 / 128
1993	770	2 / 133
1994	1048	3 / 143
1995	792	3 / 139
1996	1133	4 / 141
1997	1714	4 / 140
1998	1778	3 / 126
1999	1886	3 / 128
2000	1869	4 / 133
2001	2086	6 / 137
2002	2888	3 / 142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1991-2002 통계 각 권 참조

<그림 IV-3> 대 인도네시아 무상협력 사업 실적 및 지원 현황 추이, 1991-2002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1991-2002 통계 각 권 참조

나. 경제 교류관계 현황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교류관계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한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인도네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고 나아가 이러한 산업의 생산물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관계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경제 교류 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 신발 및 봉제가공 부문 등이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자 기업들은 대규모로 생산시설을 해외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전의 속도는 1990년대 들어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이들 생산 시설의 이전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가 인도네시아이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지역 국가들이 역내 무역지대를 형성하는 추세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경제 개발국들이 역내 무역자유지대(ASEAN)를 통한 내부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자 이에 시장장벽을 극복하고 동남아시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한국기업들은 현지진출을 가속화하였다.

1992-2003년간 양국간의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교역규모가 1992년 4,227백만달러에서 2003년 두 배인 8,590백만달러까지 증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0위 수출대상국, 9위 수입대상국으로,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4위 수출대상국 및 5위 수입대상이 되었다. 무역 수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1992년 357백만달러의 적자에서 2003년 그 7배인 1,834백만달러까지 한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이는 다른 아시아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부족한 산업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역설적으로 수출입 교역관계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동기간 1,935백만달러에서 3,378백만달러으로 약 70% 정도 증대하였는데 비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은 2,292백만달러에서 5,212백만달러로 100% 이상 증대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수입자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IV-10>은 1992년 이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규모와 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V-10>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와 그 특성, 1992-2002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수출 (A)	수입 (B)	무역역(C=A+B)	수지(D=A-B)
1992	1,935	2,292	4,227	-357
1993	2,095	2,588	4,683	-493
1994	2,540	2,843	5,383	-303
1995	2,958	3,325	6,283	-367
1996	3,198	4,013	7,211	-815
1997	3,541	4,107	7,648	-566
1998	1,784	3,058	4,842	-1,274
1999	2,539	3,987	6,526	-1,448
2000	3,504	5,287	8,791	-1,783
2001	3,280	4,474	7,754	-1,194
2002	3,145	4,723	7,868	-1,578
2003	3,378	5,212	8,590	-1,834
2004	1,759	2,919	4,678	-1,160

출처 : 한국무역협회, 각국의 무역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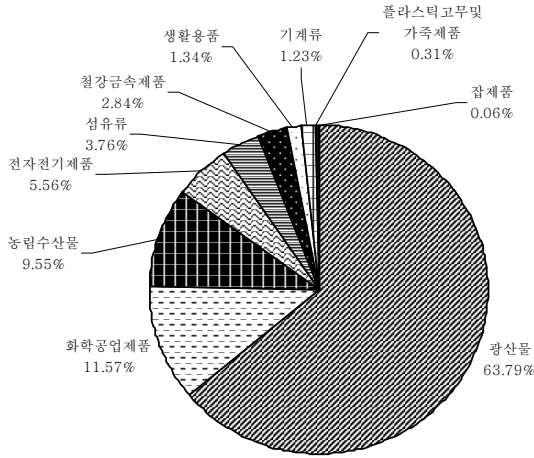
이러한 양국의 교역관계는 양국의 수출입 품목관계의 변화에도 자세히 나타난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광산물이다. 1992년 총 수입금액 2,292백만달러 중 64%인 1,469백만달러가 그 자원수입에 투입되었다.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물이 528백만달러로 23%를 차지했다. 2003년도의 수입품목 구조를 보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금액 5,214백만달러에서 광산물은 3,326백만달러로 63.8%를 차지하였다. 특이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화학공업제품 및 전자전기제품, 섬유류 등의 수입품목이 꾸준한 성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노동집약적 제품인 동제품 기업들의 진출로 인하여 국내로 역수출 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표 IV-11>은 1992년, 2003년의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품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1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992 년도			2003년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광산물	1,469	64.09%	광산물	3,326	63.79%
2	농림수산물	528	23.04%	화학공업제품	603	11.57%
3	섬유류	95	4.14%	농림수산물	498	9.55%
4	화학공업제품	87	3.80%	전자전기제품	290	5.56%
5	생활용품	24	1.05%	섬유류	196	3.76%
6	철강금속제품	62	2.71%	철강금속제품	148	2.84%
7	전자전기제품	12	0.52%	생활용품	70	1.34%
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	0.31%	기계류	64	1.23%
9	기계류	6	0.2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6	0.31%
10	잡제품	2	0.09%	잡제품	3	0.06%
	총계	2,292	100.00%	총계	5,214	100.00%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IV-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분포, 2003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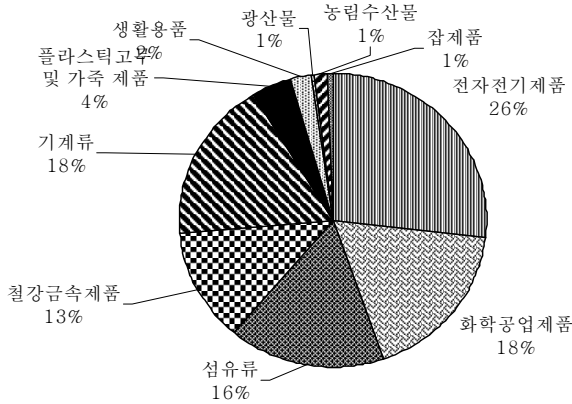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품목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92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섬유류(전체 금액 1,936백만달러에서 536백만달러인 28%)가 2003년 3위(전체금액 3,376백만달러에서 556백만달러 16.5%)로 밀려났다. 대신 전기·전자 제품이 동기간 11%에서 27%로 성장하였다. 이 두 품목이 그 동안 교역관계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섬유류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시켰고 대신에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첨단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한 결과이다. 섬유류의 경우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진출하여 이러한 역수출의 결과로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에 기여하였다. 2002년 기계류의 수출이 두드러지는데 이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기업의 진출과 더불어 생산시설의 수출 증대와 그 경향을 같이한다. <표 IV-12>는 1992년, 2003년의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12>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992 년도			2003년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섬유류	536	28%	전자전기제품	913	27.04%
2	화학공업제품	332	17%	화학공업제품	594	17.59%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67	14%	섬유류	556	16.47%
4	철강금속제품	211	11%	철강금속제품	422	12.50%
5	기계류	280	14%	기계류	601	17.80%
6	전자전기제품	189	10%	플라스틱고무및 가죽 제품	143	4.24%
7	생활용품	83	4%	생활용품	68	2.01%
8	농림수산물	20	1%	광산물	18	0.53%
9	광산물	14	1%	농림수산물	40	1.18%
10	잡제품	4	0%	잡제품	21	0.62%
	총계	1,936	100%		3,376	100.00%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IV-5>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품목 분포, 2003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6년 이후 복잡한 수입허가제도 대신 관세 의존

적인 수입관리체제로 이행하여 비관세무역장비에 저축받는 수입품목의 비중을 1986년 46%에서 1991년 13%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집약적 부문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투자 대상국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규모는 1967년 이후 2003년 7월 누계치 기준으로 1,499건 총 99억 9,500만달러에 이르고 전체 외국투자국가 중 건수면에서 3위, 금액면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의 경우 182백만달러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현지 정치·경제 및 사회환경의 불안정으로 투자추이가 상당히 저조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6대의 주요 인도네시아 투자국이였다. <표 IV-13>은 1997년 이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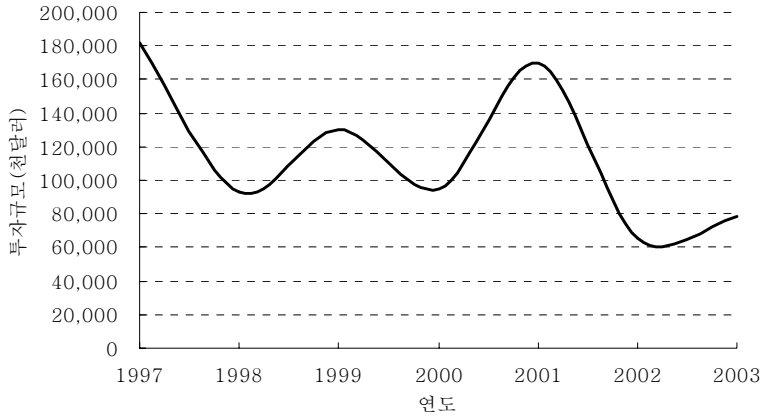
<표 IV-13>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3

(단위 : 천달러)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투자규모	182,320	92,771	129,955	94,437	169,480	65,563	78,528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그림 IV-6>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추이, 1997-2003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표 IV-14>는 1980년 이후 2004년 8월까지, 한국의 상위 10대 해외 투자대상국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총 투자금액으로 2004년 현재 4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국인 셈이다.

<표 IV-14>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0대 국가, 1980-2004. 8
누계기준

(단위 : 건, 천달러)

국가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순투자건수	순투자금액
미국	4,257	12,631,714	3,754	9,568,811
중국	10,091	9,120,236	9,853	7,444,532
네덜란드	61	2,268,944	46	2,082,466
버뮤다	12	1,483,645	11	1,475,171
홍콩	617	1,750,006	532	1,441,432
인도네시아	620	2,105,699	540	1,234,019
영국	131	1,574,891	111	1,087,775
베트남	507	1,108,839	489	929,882
독일	199	1,037,024	168	826,811
일본	718	965,780	650	831,164
전세계	21,516	47,155,637	19,886	36,087,977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인도네시아에는 2003년 현재 약 570여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 가운데 섬유 및 관련 업체가 143개사, 완구 및 관련업체가 27개사, 신발 및 관련업체가 37개사, 삼성, 현대, 대우, LG, 미원 등 그룹계열사가 51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계 기업은 약 50만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활동인구 총 9천만 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기업의 수출비중을 보면, 섬유, 봉제가 인도네시아 전체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이 약 31%, 완구가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액수로는 약 40억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노동집약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 기술 습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부터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까지 진출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플랜트 건설 및 사회 기반 확충 부문까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03년 들어 CDMA 등 통신과 IT 부문의 진출이 특히 활발하다. <표 IV-15> 과 <표 IV-16>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현황과 산업별 업체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5> 업종별 대 인도네시아 투자현황(2004. 8 현재/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달러)

	음식 료품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전자통 신장비	수송 기계	제조업 기타	광업	부동산및 서비스업	기타
건수	28	139	35	63	14	71	19	225	11	45	85
금액	310.7	469.6	1,234.6	171.3	87.5	422.9	141.8	453.5	677.8	141.9	204.2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투자현황, 2004

<표 IV-16> 주요 산업별 한국기업 현황, 2003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분야	업체수
봉제	123	완구	27	금융	12
건설	38	화학	23	기발	12
신발	37	가죽	18	인쇄	10
무역	37	가방	13	기타	172
운송	35	전기전자	13	계	570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방안, 2004. 3.

다. 사회·문화 교류관계 현황

(1) 교육부문의 교류관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인 태국,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비교해서 인도네시아 대학교들과 한국 대학교들간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민간 교육단체는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공식적으로 한국학 관련 학과 혹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과다한 지원요구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최초로 1987년 자카르타 소재의 나시오날 대학교에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학 연구소와 관련 학과가 신설되게 되었다. 그 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문과대학 내에 교양과목으로 초급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 연구활동과 한국어 교육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옛 수도인 족자카르타 소재의 가자마다대학교이다. 이 대학교와의 교류는 1995년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의로 시작되었다.

나시오날 대학교(Universitas Nasional)는 사립종합대학으로 1987년 한국학 연구소가 설치된 이후 일반인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1994년 9월 나시오날 대학교의 외국어 전문대학에 3년제 과정(Diploma)의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현재 나시오날 대학교의 외국어전

문대학에 개설된 학과로는 영어과와 한국어과뿐이며 한국어과는 2002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 개설된 유일한 학과이나 아직 교육성의 학과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동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는 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소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어과는 1994년 학과 개설이래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으나 향후 완전분리되어 운영될 계획으로 있다. 1994년 동 대학의 한국어과가 개설된 이후 2002년 8월까지 입학한 학생수는 총 47명이고 졸업한 학생은 총 17명이다. 강사진은 총 4명으로 2명은 한국인이고 2명은 인도네시아인이다.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대학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국립대학으로 1995년 처음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하에 한국어강좌를 개설하였다. 그 다음 해에 가자마다대학 종합연구센터 산하에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가자마다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활성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 대학과 기타지역의 한국학과 개설 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열악한 현지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내의 한국학 연구중심지의 전략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자마다대학에서 한국학을 전담하고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국학 연구소와 인문대학이다. 동 연구소는 한국문화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학활동을 하고 있고, 인문대는 외국어교육부 산하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연구소에는 한국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각 단과대학 교수진들을 중심으로 총 12명의 비상근 연구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약 900권의 한국관련 서적을 소장하고 있다. 인문대학은 1995년 8월에 교양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를 처음 개설하였다. 현재 2003년 인문대 내에 3년제 디플로마 과정의 한국어과를 설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교육성의 정식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이래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를 통한 이곳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002년 11월 현재 460명 가량의 학생들이 1과목 이상의 한국어 및 한국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한국학 관련 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들은 총 2,847명이다. 한국관련 강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직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요원은 총 8명이다. 그 중에서 현지인은 3명이고 한국인은 5명이다. 그 중에서 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파견한 강의요원은 4명이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하는 교수는 1명이다.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내 한국학은 1989년부터 문과대내에 초급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며 시작되었다. 매학기 10여명 내외의 학생이 한국어 과목을 수강했으며 문과대 내에 개설된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언어연수반에 재학중인 한국인이 한국어 강의를 도왔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주도하던 교수요원의 사망으로 1994년 폐강이 되었다가 1997년 다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1997년 한국어가 재개된 이후 조금씩 수강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수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345명이다. 이 대학 역시 한국국제협력단의 강의요원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규교수 1명과 지원된 강의요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슬람대학교인 UIA 대학교는 대구 대경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 교수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학교 내에 한국어 언어 문화센터 건립 기공식을 갖는 등 한국학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다. 카톨릭계의 ATMA 대학교도 한국어 강좌 개설을 희망하면서 강사요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 사회·문화 교류관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사회·문화 교류관계는 1990년대 초부터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약 57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였고, 약 50만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그 동안 양국간의 사회·문화 교류도 계속 발전되어 왔다. 2003년 약 6만여 명

의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 관광객의 방문은 약 10만여 명에 달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수가 35,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양국간의 민간교류 채널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다. 양국 정부가 후원하는 공식적인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소개가 아니라 현지문화와 상호 밀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8월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는 한국 전통 복식인 한복과 인도네시아 전통 복식인 바틱의 환상적인 앙상블을 보여주는 ‘한복-바틱 조인 패션쇼’를 개최하여 다른 두 문화의 결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9월 자카르타 국제 영화제에서는 ‘여명의 빛’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5천년 역사를 표현하는 수준 높은 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식적인 사회·문화 교류관계뿐만 아니라 최근 더욱 현지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계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 현상이다. 한국의 ‘가을동화’, ‘엄마의 바다’, ‘경찰 특공대’, ‘모델’ 등의 드라마가 VCD 및 TV, 인도네시아 번역판 논픽션 소설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심지어 어느 한 잡지사는 “Asian Gits”라는 잡지를 발간 한국의 원빈을 표지 모델로 배용준, 장동건, 핑클, 보아 등을 특집 기사화 하는가 하면 한류열풍과 한국 스포츠 문화에 대한 현지의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7월 인도네시아 유력 방송 매체인 Metro TV에 한국 관광에 관한 특집 방송을 세계 10여 선진국가의 하나로 선택하여 일반 대중에게 내보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고유문화와 음식, 도시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2004년 인도사방송의 경우 ‘가을동화’를 방영하여 현지의 폭발적인 인기를 유도하였다. 한국 SBS의 경우 동년 ‘발리에서 생긴 일’을 촬영하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와 발리에 대한 관심과 관광을 유발시키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 비교적 한국영화가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 지역으로 연간 20여 편 이상의 많은 한국영화가 극장 판권 및 TV, 케이블 판권 등으로 인도네시

아에 팔리고 있다. 2002년 22건 202천 달러 수출, 2003년 총 29건 226천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3년 한국영화 인도네시아 판권계약을 한 대표적인 경우는 ‘폰’, ‘스턴트 맨’, ‘거울 속으로’, ‘공공의 적’, ‘나비’, ‘여우계단’, ‘연풍 연가’, ‘영어완전정복’, ‘와일드 카드’, ‘천년호’, ‘첫사랑사수 쫓기대회’, ‘화성으로 간 사나이’, ‘공포택시’, ‘연애소설’ 등 대부분 그 해 한국에서 개봉된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카르타 국제영화제에 한국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리베라메’, ‘하면된다’, ‘정’, ‘봄날은 간다’, ‘쉬리’ 등이 상영되어 현지에서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2000년대 들어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경제위기 극복, 월드컵 개최국, IT강국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우호적인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현지 학생, 직장인 등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은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를 유발시켰다. 다음의 글은 한국 대사관 주최로 열렸던 ‘한국 관련 수필대회’에서 제출된 인도네시아의 두 대학생이 한국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다. 여기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현지에 주는 개인적 영향을 볼 수 있다.

‘………… 한국 영화가 항상 뒤떨어진데다 홍콩의 영화를 모방하고 즐기는 평범하며 전통적으로 드라마에서 성공한 스타들을 영화로 끌어 들인다고 여겼던 나의 편견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 이후 나는 30여 작의 한국 영화를 섭렵했다. 나 자신 또한 고정관념을 뛰어 넘은 초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다른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농담이 아니다. 어떤 문화의 체계는 사람들에 의해 진실로 비춰진 적이 없으며, 또한 보통의 눈으로 보아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JSA,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나는 남한과 북한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떤 날짜에는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는 그런 공식적인 학습보다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 인도네시아인으로 한국과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진 필자는 이 영화(동감)의 여러 장면을 보면서 미소짓고 탄성을 질

렸다. 이 영화는 다소 순애보적인 로맨틱 영화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낭만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서구인들의 사랑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필자는 그 당시 또 다른 미국 영화를 보았기에 두 영화를 비교하였다. …… 미국 영화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관점의 사랑과 달리 한국 문화는 매우 달랐다. … 매우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동감을 보면서 알게 된 한국의 문화는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이다. ……… 만약 당신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국에 관한 홍보 책자, VCD, 웹사이트가 아니라, 한국영화를 감상하라!’

(3) 인도네시아 한국인의 교민사회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에 대한 역사 또한 양국간의 교류관계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 현지 장기 체류하는 교민의 수는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현지 진출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2001년 한국인 체류자가 18,000여 명에 이르고 이중에서 대부분인 90% 이상이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수라바야(600명), 반둥(400명) 등이다. 2003년의 추산에 따르면 약 3만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위한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학생수는 1,650명(초·중·고등학교 12학년 51개 학급), 교사는 119명이다. <표 IV-17>은 대부분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는 자카르타시에 있는 한국교민에 의해 운영되는 교민업체를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식당의 경우 1997년 31개 업체에서 2000년 53개의 업체로 늘었고, 학원의 경우 5여 개에서 15여 개로 증대하였다.⁶ 현재 현지 한국 교민들은 한국 정부와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코리아 타운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⁶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17호, 1997. 11.

<표 IV-17> 자카르타 한국교민의 자영업 규모, 2000

구 분	업체수
병원/의원/약국	5
교육기관(학원)	15
식당	53
식품/생수	10
유흥업소/스포츠/사우나/맛사지	15
이/미용실	7
차량정비	4
부동산	1
디자인/인테리어	5
관광여행	13
도서/컴퓨터/비디어대여	25
가구	14
교민잡지	7
총 계	187

출처 : 2000년 인도네시아 한인록 (기타 부분은 제외하였음)

V

한국-태국의 교류관계 이해

제 V장에서는 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오랜 우방관계를 맺어온 태국은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화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해 온 국가이다. 내부적으로는 반복되는 군부의 쿠데타와 정치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자본주의 문화를 구축하며 발전해 왔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1인당 GDP와 인구규모를 감안할 경우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현재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발전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 사회·문화면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가. 정치 환경

기원전 4천년경부터 타이족은 중국의 남부 및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쌀농사를 중심으로 자급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6세기 경 지금의 캄보디아 및 태국, 말레이 반도를 지배하던 푸난(Funan) 왕국이 몰락하자 미얀마 남부의 몬(Mon)왕국 및 메콩강 유역의 크메르(Khmer)왕국이 이 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강력한 부족연맹체를 형성하였다. 10세기경부터 중국 남부지역에 거주하던 타이족들은 한족의 세력이 증대하자 남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태국북부, 미얀마 북동부, 라오스북부 및 베트남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소국가들을 형성하며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중 일족은 라오스를 형성하고 다른 일족은 더 남하하여 오늘날의 태국지역인 짜오프라야 강 유역에 정착해서 오늘날의 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13세기에 타이족은 이 지역을 지배하던 몬족과 크메르족이 쇠퇴하는

것을 기회로 치앙마이를 수도로 정한 태국북부의 란타이 왕국(타이유 언족), 쑤코타이를 수도로 정한 태국 중부의 쑤코타이 왕국(삼족), 라오스와 동북 타이의 랑산 왕국(라오족) 등 태국계 민족의 소왕국이 각지에 생기게 되었다. 이들 중 가장 번영했던 쑤코타이 왕국은 1238년 타이족 일파의 수장 퍼쿤 방글랑타우와 퍼쿤 파므잉이 크메르 왕국의 쇠퇴를 틈 타 북서부의 주요 거점인 쑤코타이를 정복하여 건국한 나라이다. 쑤코타이 왕조는 제 3대 람감행왕(Ramkhamhaeng, 1277- 1317) 때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람감행왕은 크메르 문자를 변형시켜 타이문자를 발명하고 스리랑카로부터 소승불교를 도입하였다. 또한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안정적으로 주변 국가를 복속시켜 현재 태국과 거의 같은 크기까지 영토를 확대하였다. 람감행왕의 사후 14세기 중반부터 쑤코타이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378년 아유타야 왕조에게 멸망하였다.

쑤코타이 왕조가 점차 쇠퇴해가자 주변의 속국들이 모두 독립, 강대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유타야 왕국이었다. 아유타야 왕국은 우텡(라마티버디 1세)이 룽부리 지역에 1350년 건국한 나라이다. 14세기 말 주변 국가를 복속시켜 왕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1378년에는 쑤코타이 왕국을 정복하였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한 아유타야 왕조는 무역이 번창하여 서양 제국 및 중국, 일본 등과 교역하였다. 9대 프라이룩까낫 왕 때에는 말레이 반도와 벵갈만까지 통치영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융성하기 시작한 인근의 미얀마와 잦은 전쟁으로 쇠약해지던 아유타야는 마침내 1569년 3년간의 미얀마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도를 점령당하고 미얀마의 속국이 되었다. 그 후 나레쑤언 왕은 1600년까지 미얀마군을 완전히 축출하고 아유타야 왕국을 재건하였으나 다시 아유타야 왕조의 내부 혼란을 틈타 미얀마 군이 1765년 침공하여 아유타야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아유타야 왕국의 멸망으로 태국은 정치적 분열 및 혼란기를 겪었다. 그러나 딱 지방의 성주이던 프라야 딱싌이 짜오프라야강 하구 서안 촌부리에 도읍을 세우고 잃었던 아유타야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미얀마군을 축출했다.

딱션왕은 이전의 아유타야 왕국의 정치제도나 사회신분을 그대로 세습하고 치앙마이를 정복하는 등 타이제국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딱션왕은 정신이상으로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되었고, 딱션의 부하 장수였던 짜끄리 장군이 왕으로 추대되어 방콕으로 천도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짜끄리 왕조(랏따나꼬신 왕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태국은 라마 3세 때(재위 1824-1851) 남동쪽으로는 캄보디아까지, 북쪽으로는 라오스까지 영토를 넓히며 번영하였으나 19세기 들어 군주들이 유럽 국가들에 이권을 주고 그들과 정치적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태국에 대한 서구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태국은 그 동안 유지해오던 쇠국정책을 버리고 영국(1855년 보우링조약), 미국(1856), 프랑스(1856) 등 서구열강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해외유학을 장려하였으며 도로건설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근대화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쫄라롱껀 왕(라마 5세 재위 1868-1910)은 사회변혁뿐만 아니라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여 절대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정성을 쏟았으며 사법, 행정제도 개혁과 함께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자국의 영토를 서구열강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집요한 침략정책에 의하여 상당한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1867년 캄보디아에 대한 권리를 프랑스에 양도했으며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방에 있던 속국을 프랑스에게 양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이용하여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1917년에는 연합국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라마 5세부터 추진된 국왕에 의한 근대화는 마침내 진보적 사상을 지닌 많은 관료와 군인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진보파 그룹은 자신들을 길러준 왕의 권력을 부정할 만큼 세력이 강해지고 왕족 전제에 의한 정치적 부패에 불만이 높아져 1932년 6월 24일 무혈혁명을 일으켰다. 인민당이 주도한 이 혁명에 의하여 태국은 절대군주제에서 벗어나 12월 10일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고 입헌군주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왕은 입헌군주로서 국가 통합의 상징적 지위만 갖게 되었다.

태국은 열강의 진출로 아시아 각국이 식민지화된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였으며 1939년에는 국호를 샴에서 타이로 변경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1942년 피분 총리 정권하에서 태국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일본과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으나 전황이 일본에 불리해지자 1944년 8월 일본과의 전시협정을 파기했다. 1945년 8월 16일 대영·미 선전포고는 일본의 무력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태국 내의 친일파를 제거하는 한편 영국과 프랑스에 손해배상을 해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도움으로 1946년 12월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1946년 6월 10일 등극한 지금의 라마 9세(푸미폰 아둔야뎃 왕)는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계속되는 쿠데타에 의해 권력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잡고 있다.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태국이 입헌군주제 수립 후 지금까지 17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권력을 둘러싼 분쟁이 심하였다. 전후에는 항일자유타이운동을 지도하던 빠리디, 아파이윙 등이 정권을 장악했다. 1947년에는 피분파가 쿠데타로 빠리디 등을 추방하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으나, 군부내에서 경찰세력인 파오와 육군세력인 싸릿파의 대립이 심해졌다. 1957년 9월 싸릿은 다시 쿠데타로 피분과 파오를 밀어내고 다음해 10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싸릿이 죽은 후 정권을 인계받은 타넘은 1968년 민정으로 이양하였으나 1971년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군정으로 환원시켰다. 1973년 10월 학생데모로 타넘 군사정권이 무너진 후 싘야가 총리로 임명되어 헌법을 제정하고 농지개혁법을 재정하는 등 의욕적인 정책을 폈지만 좌우의 대립과 빈발하는 파업 등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1975년 반정부 폭동으로 물러났다.

그 후 1976년 2월 총선거를 실시하여 쉐니 내각이 재등장했으나 같은 해 10월 쌍앗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타닌을 총리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성립하였다. 1977년 10월 당시 국방장관 겸 최고사령관이던 끄리앙씩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타닌을 축출하고 1979년 4월 총선거를 실시하여

끄리앙삭이 민간인 총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끄리앙삭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당시 국방장관이던 썬렘 띠쑤라논이 정권을 이양받았다. 그 후 썬렘 내각이 계속되다가 1988년 8월 찻차이가 12년만에 민선총리로 정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1991년 2월 군부를 비난한 각료의 중용에 불만을 품은 군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찻차이 총리의 내각이 붕괴되고 약 1년간 아난 과도내각이 수립되었다. 1992년 3월 22일 총선결과 전년도 쿠데타를 주동했던 쑤찐다 전육군 사령관을 총리로 하는 쑤찐다 내각이 1992년 4월 21일 수립됐다. 그러나 쑤찐다를 반대하는 민주화물결과 유혈 진압사태 결과 쑤찐다는 총리직을 사임하고 총선거 실시를 위한 제 2차 아난 과도내각이 수립되었다. 1992년 9월 13일의 총선거에서 민주당 등 반군부 4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새총리에 추언 립파이 민주당 당수가 취임하였다. 1995년 5월 토지개혁부정의혹을 이유로 연정에서 제 3당이던 필랑탐당이 탈퇴하자 하원이 해산되면서 같은 해 7월 2일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 결과 보수계 야당이던 찻타이당(태국국민당)이 제1당이 되었고 총리로 임명된 반한 쉐라빠아차는 7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반한 총리가 각종 부정부패 및 비리에 연루되어 집권 14개월만에 총리직을 사임하고 1996년 11월 17일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1당으로 차왈릿 용짜이웃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끄는 신희망당이 6개 정당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2001년 1월 6일 총선거에서 통신재벌 출신의 기업인 딱신(Thakshin)이 이끄는 타이 락 타이당이 승리하여 수상으로 취임했다.

현재 태국의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로 국가원수는 1946년 즉위한 부미볼 아둘야데이(Bhumibol Adulyadej)로서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총리 1명과 35명 이하의 각료로 구성된 내각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태국의 정치 특징의 하나인 전통적 왕권은 불교와 브라마니즘 양대 사

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불교의 교리에서는 법을 준수하여 통치하는 왕을 정의로운 왕으로 불렀고, 법을 준수하는 정의로운 왕이 됨으로써 통치의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 태국 왕권의 브라마니즘적 특성은, 왕은 신성을 부여받은 신과 같은 존재로 본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왕권개념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 발전하면서 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심과 경외심을 낳게 되었고 태국의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라마4세, 몽꿋왕 때부터 시작된 근대화는 전통적인 왕권의 종교적 기반과 정치적 권위 행사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1932년 쿠데타로 절대군주제는 붕괴되고,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입헌군주제하의 왕은 명목상 국가원수로서 ‘군림하나 지배하지 않는’ 상징적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불교와 브라마니즘의 전통 때문에 태국의 왕은 오늘날까지도 정치과정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부쿠데타나 군부정권의 정통성 확보에 필요불가결한 배후요인이 되고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1975년 인도차이나 3국 공산화 이후 구소련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75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및 점령 이후 대 베트남 및 캄보디아 정책에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베트남의 태국 침공 시 중국 개입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군사 부문에서 1986년 이후 태국의 군장비 현대화 계획과 관련 중국이 T-69 전차·장갑차·야포·군함을 염가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태국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 되었다. 1991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발시 중국이 군부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태국 군부 및 정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1994년 이등휘 대만총통의 사적 방문허용으로 대중관계에 일시적인 마찰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곧 회복되었고, 1995년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대만과는 경제, 통상, 문화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1개 중국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중국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태국의 대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1887년에 수교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일시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1952년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전통적으로 왕실간 교류를 중심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교역·투자·경제원조 등 경제관계 전반에 걸쳐 태국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의 하나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여러 차례의 정상 외교를 통해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태국 군부쿠데타와 관련 일본이 태국에 대한 신규원조(6억 달러 상당) 중단조치를 취함에 따라 관계가 일시 소원해졌으나 동년 가이후 일본 총리 및 일왕 부처의 태국방문으로 호전되었다. 동남아를 중시하는 일본의 정책과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태국의 대일 정책이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관련한 IMF 지원 규모(총규모 172억달러)에 일본이 40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최대의 지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일본경제의 종속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나. 경제 환경

태국은 70년대 인도차이나 공산화에 큰 위기를 느끼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외국투자유치, 시장중심 정책, 외자도입 등 보수주의 거시 경제를 근간으로 85년 이래 10년간 연평균 8.2%의 GNP 성장으로 경제개발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공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자유경제체제화로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부존자원 활용을 위해 수출산업에 대한 외국투자 적극유치, 농수산품의 가공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1961년 민간주도형의 공업화를 목표로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7차례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했다. 1960년대 이후 수입대체형 산업정책을 실시하여, 이 기간 동안

수입대체용 제조업 부문이 확대되었고, 8%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1970년대에는 수입대체산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수출산업 육성을 시작으로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강화하여 역시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경제환경 호전 및 일본, 미국 등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수출지향 공업화가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기반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재편, 수출산업화, 공업화의 지방분산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외국인투자활용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여 80년대 후반부터 10% 내외의 고도성장 국면에 진입하여 91년 이후에는 8%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1996년도에 들어 주종 수출 품목이었던 노동집약적 상품이 임금상승과 저임금국가들의 부상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특히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차입한 외자가 부동산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투자됨으로써 태국경제는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며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주식가격하락과 부동산 과잉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이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추락은 97년 중반에 들어 해외 투자자들의 바트화 투매 현상을 야기시켰다. 계속된 정국 불안정과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의 실패로 97년 7월 변동환율제 채택과 함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태국의 추안 정부는 IMF의 지침에 따라 56개 금융기관 폐쇄 등의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기업구조조정과 기업부채 축소, 경기부양 및 재정적자 실시, 적극적인 대외개발 등을 통해 98년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태국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에 따른 실업증가, 마약중독자 증가, 빈곤격화 심화 등의 사회문제와 개혁 피로, 경제가 가시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인식, 지나친 IMF의 경제지침에 따른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결국 2001년

1월 6일 총선거에서 농가부채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내건 태국의 통신계별 탁싌이 이끄는 타이락타이당에 패배했다.

이후 2001년 2월 취임한 탁싌총리는 빈곤퇴치와 소득창출에 경제정책의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경기부양 조치를 실행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주요 외국인투자자들이 탁싌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불신하여 2001년 태국의 외국인투자가 태국 투자청의 도착기준으로 약 27.2% 감소되기도 했다. 이에 2001년 하반기 숨키드 재무장관에게 부총리직을 주어 보다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증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될 예정인 제 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중장기 정책목표는 우선 태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기술인력의 부족, R&D 투자의 부족 해결과 대기 및 수질 오염, 교통체증 등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이 감소되었으나 계층간,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 악화로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및 지역경제 육성 등의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경제발전과정에서 태국의 GDP 및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98년 급감하였으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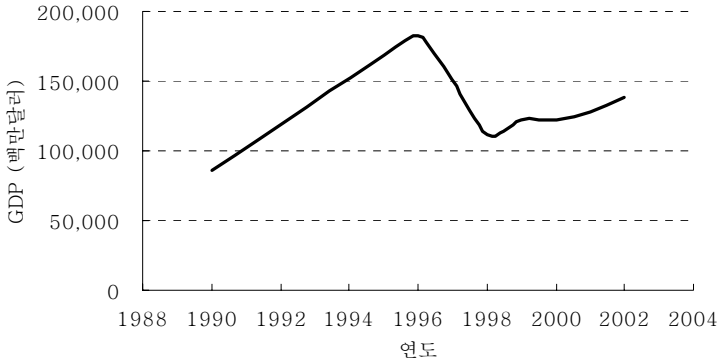
<표 V-1> 태국 GDP/1인당 GDP 추이, 1990-2002

(단위: 달러)

Year	GDP (백만)	1인당 GDP
1990	85,640	1,521
1995	168,279	2,820
1996	182,413	3,027
1997	151,135	2,483
1998	111,908	1,820
1999	122,056	1,966
2000	121,928	1,946
2001	127,486	2,018
2002	138,576	2,175

출처 :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01/01/data>

<그림 V-1> 태국 GDP 추이, 1990-2002



출처 : www.imf.org/external/pubs/ft/weo/2001/01/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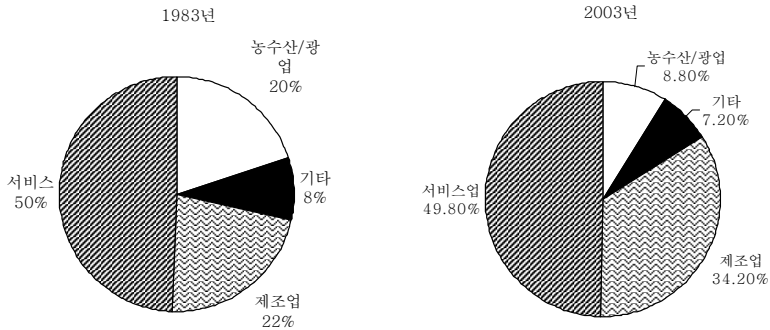
태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47%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66년 36.6%에서 1983년 20.10%로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태국경제의 근대화 및 공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현상을 계기로 일본 기업들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1983년 22.10%, 1993년 29.60%로 확대되었고 2003년에는 34.20%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업 또한 상업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1997년 외환위기로 금융산업이 위축되기 전에는 거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표 V-2> 태국 산업구조의 변화, 1983, 1993, 2002, 2003

연도	농수산/광업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
1983	20.10%	8.50%	22.10%	49.40%
1993	8.70%	10.90%	29.60%	50.90%
2002	9.40%	8.80%	33.90%	48.00%
2003	8.80%	7.20%	34.20%	49.80%

출처: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ailand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gy of Thailand, 1983-2003

<그림 V-2> 태국 산업구조의 변화, 1983, 2003



출처: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ailand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gy of Thailand, 1983-2003

한편 전반적인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식량수출국인 태국은 농산물 수출이 부동의 수출 1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에 의한 전자제품 수출도 급증 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컴퓨터 및 부품의 수출액이 금액기준 7,261백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의 농산물 수출은 97년부터 EU의 새우, 수산물, 과일, 야채에 대한 GSP 수혜가 중단되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 수입자율규제 강화 및 반덤핑 강화 등의 견제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볼 때 최대수출국은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신흥공업국인 태국은 기계 및 부품수입이 급증하여 무역적자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98년 들어서는 전기기기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최대 투자국가인 일본으로부터의 기계 및 부품수입이 가장 많아 96년 202억 달러, 97년 156억 달러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97년 85억 달러 수입을 기록하고 매년 증가세에 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최근 태국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여 적자폭을 줄이고는 있으나 당분간은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1인당 GDP와 인구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일찍부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수입을 개방하여 대부분의 제품이 폭넓게 수입되고 있으며 상류층의 구매력이 높아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고급고가품 수요가 크다. 따라서 소비재에서 벤츠 등 고급차비중이 높고, HDTV 등 최고급 첨단제품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산층 이하의 서민은 고급브랜드보다 값싸고 실용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시장특성은 틈새시장 품목의 진출가능성이 높아 화장품, 안경테, 시계, 장신구 등 많은 소비재가 태국 진출에 성공하였다.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할인판매점이 유통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진출기업으로는 테스코-로터스(영국), 마크로(네덜란드), 까르푸(프랑스), 프레지던트(대만) 등이 있다.

다. 사회·문화 환경

태국의 문화는 인도·버마·크메르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스리랑카로부터 도입된 불교문화에 근거하고 있다.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태국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종교적 교차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태국 문화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복잡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잃지 아니하는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양성 속의 통일', '평온을 찾는 국민성', '왕권에 의해 통일된 사회' 등이 태국

사회·문화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준다.

태국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성 때문에 수많은 작가, 화가, 조각가, 무용가,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태국 전통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보존, 예술창작 진흥,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문화정책의 기초로 삼아 국가문화위원회(Office of the National Culture Commission, 교육부산하)가 문화발전 정책의 개념화, 국가문화정책의 집행, 민족문화특성의 진작을 목표로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예술국(Fine Arts Department)에서는 문화유산의 복원·보존 및 보급을 주로 담당하며 태국 문화예술의 국가적 진흥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민족과 언어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가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이다. 태국의 인구는 2001년 기준 약 62,300천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들 중 순수 태국계가 81.5%, 중국계가 13.1%, 말레이계가 2.9%, 기타 2.5%가 30여 종의 산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족도 4개의 지방에 따라서 네 가지 종족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 평원의 타이족, 북부의 타이 얀, 코랏 타이, 북부의 타이인 또는 라오인이다. 그리고 인도인, 베트남인, 크메르족, 몽족 등이 각각 20-30만 명씩 살고 있다. 이 외에도 언어와 부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혼합하여 복잡한 인종적 구성을 보여 준다. 비타이 종족 중 최대 종족인 중국계는 오랜 이민 역사와 타이족과의 결혼을 통해 동화되어 현재 태국 대부분의 무역, 상업,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외 인도계는 섬유, 직물판매, 및 무역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태국 북부 지방에는 30여 부족의 55만여 명의 산족이 살고 있다. 그 중에 카렌족이 27만 명, 몽족이 8만 명, 라후족이 6만 명 정도인데 그들은 자기 고유의 언어와 풍습에 따라 산속 고지에서 살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태국어는 국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타이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태국

의 공용어이다. 타이족은 6,000여 년 전 몽고의 알타이 산맥에서 내려와 중국의 양자강 평야지대에서 정착해 살다가 일부가 남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어는 중국-티베트(Sino-Tibetan)어족에 속한 중-타이어파로 중국 제방언과 타이 제방언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중국어와 친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태국어의 방언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첫째, 중부방언은 태국 중부지역어로 태국 표준어이며 방콕방언, 쑤판부리방언, 코랏방언, 쑤코타이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남부방언은 태국남부지역인 춤펀에서 말레이국경에 이르는 14개도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셋째, 동북부방언은 동북부 16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동북부 주민은 원래 라오스에서 유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북부 방언은 라오스의 방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북부방언은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북부 태국 지방에서 사용하는 방언이다.

태국어의 문자는 남인도계의 것을 모방한 캄보디아 문자를 바탕으로 수코타이 람감행 대왕이 1283년 창제하였으며, 44개의 기본자음 문자, 32개의 기본 모음문자, 4개의 성조 부호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10자의 고유 타이어 숫자, 묶음기호와 함께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고, 띄어쓰기가 없다. 또한 타이어 어휘의 2/3는 차용어로서 산스크리트어, 발리어(범어로서 종교계에서 흔히 쓰임), 캄보디아어(궁중어), 중국어가 대부분이다. 특히 태국은 전통적으로 계급사회로서 경어가 발달되어 있다.

(2) 종교, 이념, 가치체계

태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로서 91.8%의 인구가 불교를 믿고 있다. 그 외 이슬람교(4.8%), 기독교(1.6%)와 기타 힌두교, 시크교, 브라만교 등의 소수 종교가 있다. 태국 사회에 있어서 종교는 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종교적 자유와 정부의 지원을 각 종교들이 누리면서 함께 살고 있다. 도입된 종교 중에 불교가 가장 큰 세력으로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믿고 있으며, 전국에 31,939개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태국

의 대표적 종교가 되었다. 이슬람교는 1989년 통계에 의하면 신도수 2,443,408명으로 2,688개의 이슬람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 주로 남쪽지역 말레이시아 국경 4개도(나라티왓, 파타니, 알라,사툼)에 70%가 집중해 있다. 브라만-힌두교는 25개 단체에 5,000여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 태국에 로마 카톨릭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28년이므로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273년이 앞서고 있다. 천주교 신자는 222,181명이며 개신교 신자 수는 320,905명으로 나타나 있다. 태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서 국민 분열의 파괴적 행동이 있지 않는 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각 종교를 지원 육성하여 태국의 발전과 평화와 안정에 활용하고 있다.

태국 종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태국 불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태국불교는 소승불교로서 규율이 매우 엄격하다. 남자는 일생에 한번 승적을 보유(원칙적으로는 최소 3개월)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며 3만여 곳의 사원과 18만 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사원·가정·사무실·상점까지도 불상을 모셔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불상은 신성한 존재이며 일반 승려들도 경의와 숭앙을 받는다. 따라서 태국의 생활문화도 매일 아침 6시 30분전 승려들의 탁발로 국민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며 시민가정의 공양 모습을 항상 보게 된다.

태국의 불교는 민족성 및 이념, 가치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국인들은 운명론을 굳게 믿고 모든 일의 성패를 운으로 생각하는 민족성도 불교사상에서 기인한다. 태국인들은 운이 좋다고 말할 때에 “초옥디”라고 말을 한다. 여기에서 생각난 사상중의 하나가 “깜”이라는 운명론이다. “깜”을 우리나라말로 옮겨본다면 “업보”라고 볼 수 있다. “깜”이라는 운명철학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어선지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시켜야겠다는 의욕보다는 “깜”에서 오는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성이 강하다. 또한 태국인은 국왕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보여 입헌군주국의 상징적 국왕의 지위에 비해 실질적인 국왕에 대한 신뢰는 대단하다. 이와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지켜온

민족으로서 국가와 자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강하며, 높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교의 자비심 및 관용성이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태국인들은 대부분 기질이 부드럽고, 유순하며, 정직하고, 밝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태국문화와 사회구조 속에는 종교의 영향이 깊숙이 젖어 있어서 종교와 문화를 분리할 수 없다. 외적인 면에서 태국불교는 소승불교이지만 정령숭배, 브라만교, 힌두교, 대승불교, 유교, 도교, 회교와 인간 이성주의까지 혼합된 종교이다. 모든 종교와 미신적인 요소들이 혼합적인 태국사회의 성격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융화되어 있다. 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며 똑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다 받아드리며 모든 종교를 혼합하면 할수록 구원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교철학에 젖어 있는 태국인들은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며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침착성을 유지하도록 배워왔다. 그러므로 태국인은 겉으로는 아주 예의 바르고 관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다른 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태국인들은 자기 생각을 다들지라도 언제나 듣는 사람의 기대에 맞는 말들을 하며 서로의 긴장감이 생기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는다.

(3) 전통과 관습

일반적으로 태국 사회는 느슨하고 완만하게 구조화된 사회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태국인들이 엄격히 조직화된 집단 구성원으로서 규제된 역할행동보다는 자유롭게 개인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의 혜택은 사회 집단의 필요성보다는 개인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성향을 갖도록 했다. 태국인의 정신을 지배해 온 불교도 종교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생활철학으로서 이러한 태국인의 가치관을 형성해 오고 있다.

불교는 태국의 모든 전통과 관습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두 손을 이마에 올려 인사하는 태국식 인사방법(wai)도 불교의식에서 도입된 것이다. 불교의 영향으로 성씨제도가 없었으나 1913년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도 사람을 부를 때 성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례로 Suchinda Kraprayoon 전 총리의 경우, Suchinda 총리 또는 Gen. Suchinda로 호칭되었다.

예로부터 사원은 태국인에게 있어 생활의 중심지이며, 승려는 생활의 스승이자 안내자였다. 그러므로 사원은 학교, 병원, 재판소, 오락장, 놀이터, 여행객을 위한 여관, 복지관, 집회장, 박물관, 양로원, 고아원, 창고, 장례식장 등의 기능을 하며, 승려는 종교적인 역할 외에 스승, 상담자, 신문물의 전달자, 재판관, 의료인, 정부와 국민의 가교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시골일수록 강하다. 한마디로 불교와 사원, 승려는 태국 사회의 보수성과 일체감의 상징이며, 정신적 총체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태국인들의 의식도 불교의 윤회와 업보에 대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는다”라는 의식을 굳게 믿는다. 특히 악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당사자가 아니면 후손이 반드시 받는다고 믿어 공덕 쌓는 일에 정성을 다 한다. 아침마다 탁발 나온 승려에게 음식을 바치거나 절의 사업, 예를 들어 불상을 조성하거나 사원을 수리하거나 승려의 여행, 승려에게 일용품을 지원하는 일 등은 덕을 쌓는 것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자비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을 인간의 도리로 여긴다. 또한 인과응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부모에게 효도함은 물론 대인관계에서 은혜를 알고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은혜를 모를 때에는 “아까만유”라고 비난받는다. 의식이나 체면을 중시하여 결혼, 장례식, 각종 잔치, 보시 등의 일상 생활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낭비가 심한 편이다. 그 만큼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태국은 농업국이다. 태국인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자유스럽게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살아왔다. 전인구의 약 80% 이상이 농업, 수산업,

목축업, 삼림업에 종사하고 있다.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들은 농사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모임이나 행사, 축제가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온 동네 사람들은 마치 한 집안 식구처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낙천적이다. 땅이 생활의 원천인 이들은 별로 이사를 하지 않고 사회적 신분의 변화도 거의 없다. 대신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이 강하며,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자급자족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농민들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인습이나 관습에 집착하며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도시인보다 느리고 소극적이다. 따라서 태국인들은 깊은 사고를 하거나 창조적 고통을 기피하고, 무슨 일이든 빨리 끝내기를 바라며 일의 결과가 좋던 나쁘던 상관하려 하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고 있다. 영국인들은 연구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미국인들은 일을 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면, 태국인들은 일을 보는 것 그 자체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개인의 감정, 느낌, 관습에 의존하는 성향이 비교적 강하며, 원칙이나 이념보다는 자유를 선호하고 개인간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

또한 태국은 권위주의 사회이며 신분사회이다. 건국 이래 왕을 정점으로 한 통치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13세기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하여 쑤코타이 왕국을 건립한 이래 1932년에 입헌혁명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올 때까지 태국은 전제군주인 왕을 최고의 통치자로 한 절대왕국이었다. 쑤코타이 왕국에서 아유타야 왕국, 톤부리 왕국, 그리고 랏타나꼬신 왕조(현 짜끄리 왕조)에 이르면서 왕의 성격은 만백성의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사랑과 자비, 불교적 윤리성에 입각한 통치자, 즉 탐마라차(Thammaracha, Dhammaraja, 정의로운 왕, 법왕)의 성격과 신왕(Thevaraja), 생명의 주인(Lord of Life), 그리고 전 영토의 주인(Lord of Land)의 성격을 지닌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짜디나 제도에 따르면 태국인들은, 특히 평민은 누구나 상전을 섬기게 되어 있다. 평민은 왕이나 왕족, 또는 관료를 상전으로 모시고, 매년 일정

기간씩(처음에는 6개월이었으나 아유타야 왕국 말기에는 4개월, 짜끄리 왕조 초기에는 3개월로 단축 됨) 상전을 위하여 경작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등 봉사하고 부역을 하여야 했다. 상전들은 사법권이 없는 평민을 대신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러한 상전과 평민과의 관계를 흔히 후견인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라고 하고 있다. 이 후견인 관계는 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아직도 인간관계를 비롯한 생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는 1932년 6월 24일에 입헌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잘 유지되어 공적인 면에서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엄격히 강조되는 사회였지만 사적인 인간관계는 극히 개인적이며 자유롭고 평화롭고도 낙천적 모습을 보였다. 왕실 및 고위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서양의 신문화가 도입되고 독립유지를 위한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평민의 부역제가 폐지되고 노예도 해방되었다.

(4) 인구통계적 특성

태국의 총 인구는 2002년 기준 약 62.7백만 명으로 0.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떨어진 것으로 2001년에 들어와서 0.7%로 상승되기 시작하였다. 태국의 평균수명은 68.86세로 이 중 남성은 65.58세, 여성은 73.01세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높은 편이다. 남녀성비의 경우에도 199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성의 성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 사망률의 경우에는 1,000명당 30.49명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1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0-14세가 23.43%,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가 69.95%, 65세이상의 고령층이 총인구의 6.62%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 태국 인구 추세와 특성, 1990-2002

(단위 : 명, %)

년도	총인구	성장률	남자	여자
1990	56,303,273		50.05	49.95
1991	56,961,030	1.17	49.97	51.79
1992	57,788,965	1.45	50.21	49.79
1993	58,336,072	0.95	50.06	49.94
1994	59,095,419	1.30	50.01	49.99
1995	59,460,382	0.62	49.91	50.09
1996	60,116,182	1.10	49.86	50.14
1997	60,816,227	1.16	49.82	50.18
1998	61,466,178	1.07	49.77	50.23
1999	61,661,701	0.32	49.71	50.29
2000	61,878,746	0.35	49.65	50.35
2001	62,308,887	0.70	49.61	50.39
2002	62,799,872	0.79	49.59	50.41

출처 : [//www.nso.go.th/eng/pub/pub.htm](http://www.nso.go.th/eng/pub/pub.htm)

(5) 교육환경

태국의 교육제도는 1860년대까지 사원, 왕궁, 가정에서 종교, 농사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1870년대에서 1932년 사이에 선교사에 의한 교육을 시작으로 공공교육기관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출라롱콘왕이 왕자 및 귀족 자녀교육을 위해 왕궁 내 학교를 설치하여 군사 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1884년 일반대중을 위한 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1917년에는 태국 최초의 대학으로 출라롱콘대학이 설립되었고, 1921년 국민의 의무교육기간을 6년으로 제정하였다. 이후 1932-1997년 사이에 본격적인 근대교육이 시작되어 교육을 국가재건 및 근대화의 일부로 인식하고 교육진흥 및 제도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종 교육정책 및 계획 등이 수립, 제정되었으며 1932년 국가교육정책, 제1차 6개년('61-'66) 교육개발 계획이 진행되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제8차 국가교육발전 5개년('97-2001) 계획에 의한 새시대 교육이 진행되어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제도, 행정 및 관리체계 등 전면개혁을 시행하고 1997년 새 헌법에 교육발전 조항을 삽입하여 국민의 기본교육기간을 12년으로 설정, 교육법 제정 근거 마련 등이 진행되었다.

현재 태국의 학교관련 교육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3-5세까지의 유치원교육과 6-11세까지 6년의 의무교육과정으로 초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99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의무교육을 9년으로 확대하였고 12-14세까지의 중학교와 15-17세까지의 고등학교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고등 교육과정에서는 2년의 전문대학과정, 4-6년의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특수목적 또는 대상에 따른 교육형태로 교사교육, 직업교육, 특수직업교육과 특수교육 등이 있다. 또한 성직자 및 영적 지도자 교육을 위한 불교대학 등의 다양한 교육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확대로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94년 57.5%(12.4백만 명)에서 97년 65.4%(13.8백만 명)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98년 기준 취학률은 초등학교가 90.7%, 중학교 72.1%, 고등학교 49.3%, 대학교 19.3%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1, 중고교에서는 22:1정도이다.

현재 태국의 교육정책은 정책수립영역, 관리대상 등에 따라 교육부 등 수 개의 정부기관이 교육행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우선 수상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정책수립 및 전 교육과정의 발전 기획을 담당하며, 교육부는 초등 및 중등교육, 전문대학, 교사교육, 직업훈련 및 전문학교, 종교 및 문화 분야 교육을 담당한다. 그 외에 대학부는 국·공립 및 사립 대학, 기타 고등 훈련기관을, 내무부는 지방행정기관 관할하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며 기타 보건부, 과학기술환경부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고 있다.

태국의 교육비 규모는 98년 기준 2,017억 바트(GDP의 3.5%)로 공공부문 예산액중 최대인 25.2%를 차지했다. 이러한 태국 교육비의 재정구조는 중앙정부예산이 교육재정의 주 원천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44.2%를 지원하고 대학지원은 20% 미만을 차지한다. 그 외 교육기관에서의 비정부예산은 주로 수업료나 기부금 등이거나 다른 재정자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그 외에 외국자금 대부 및 기술원조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

들 지원에는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국제 경제 협력 기금, 기타 국가 등의 원조와 전문가 및 봉사대원 서비스, 장학금지원, 장비 및 지원 등으로 기술원조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2. 한국-태국의 교류관계 현황

태국은 1967년 아세안 결성에 적극 참여하여 아세안의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를 편입시키는 데 아세안 구상을 추진하고, 제 5차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95.12. 방콕)시 동남아 10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 인도지나, 미얀마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양자를 통합, 태국이 중심 국가가 되는 광역 경제권 결성을 궁극적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내 안보를 위해 연례 아세안 외무장관회담(AMM),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 회담(PMC) 등 정치안보협력을 위한 협의의 장을 확대, 역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세안 안보포럼(ARF)을 추진하고 있다.

95년 12월 진행된 방콕개최 제 5차 아세안 정상 회담시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FZT)을 채택 주도한 후 비준서 기탁국으로서 조약발효(97.3)에도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아세안 비전 2020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탁썬 총리는 인근 아세안 제국과의 공동 각료회의 개최를 통한 우호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2003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공동 각료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다. 또한 SEATO에 가입하고, 미국 군사원조 접수, 미군기지 제공 등 동남아에 있어 미국의 반공군사체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76년 미국의 완전철수 이후에도 매년 합동군사훈련(Cobra Gold)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중국, 일본 등의 주요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주변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태국의 교류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경제, 문화 측면에서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가. 정치교류관계 현황

태국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 병력을 파견(50.11월)한 국가로서 전통적 우방이며, 양자관계는 물론 ASEAN+3, APEC, ASEM 등 다자포럼에서도 밀접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태국은 현재까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으며, 대외 면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태국은 1959년 1월 공식 수교하여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1975년 5월에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해 태국은 남북한 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간에는 1961년 9월 코만 태국 외무장관의 방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양국간 주요인사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V-4> 한국과 태국 정치 및 정부관련 인사의 상호방문 현황, 1991-2003

기 간	1961-1995	1999-2003	합 계
한국 정부 관련기관 및 정치고위급 교류	29	20	49
태국 정부 관련기관 및 정치고위급 교류	32	11	43

출처 : 외교통상부 in www.mofat.go.

(1) 외교 부문의 교류협정

우선 한국과 태국간의 경제부문 협력은 1961년 체결된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주로 60-70년대에 상당부분 이루어져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그 협력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다. 1989년에는 양국간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대 태국 투자 및 상호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표 V-5>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 경제부문, 1961-2004

조 약 명	분 야	년도 / 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경 제	1961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관 진시품 면세통관에 관한 각서교환	경 제	1963년 5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경 제	1976년 12월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경 제	1974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경 제	1989년 3월

출처 : 외교통상부 in www.mofat.go.

또한 한국과 태국 정부는 외교, 항공, 기술, 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까지 외교적 협정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1967년 9월 양국 정부간 사증수수료 및 외교관 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시작으로 항공업무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면세 협정, 과학 및 기술 협력, 정부간의 양자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 등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양국간 외교노력이 진행되어 1999년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2004년 8월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표 V-6>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 사회일반부문, 1967-2004

조 약 명	분 야	년도 / 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및 외교관 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외 교	1967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항 공	1967년 7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면세에 관한 협정	항 공	1981년 1월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기 술	1985년 6월
대한민국 정부와 타일랜드왕국 정부간의 양자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	외 교	1998년 7월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사 회	1999년 4월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간의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교육	2004년 8월

출처 : 외교통상부 in www.mofat.go.

특히 2004년 8월 25일 방콕에서 서명 및 발효된 양국간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협정은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의 두 나라의 협력을 증진 시키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 관계 및 상호이해를 강화할 것임을 확신하여 <표 V-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V-7>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구 분	내 용
협력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문화 - 교육과 연구 - 대중 매체 - 청소년 - 체육
협력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문학작품을 포함한 문화, 예술 분야의 관련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이 분야의 전문가의 교환 - 타방 계약당사자가 개최하는 국제적인 축제, 박람회, 포럼, 전시회, 회의, 세미나 및 그 밖의 문화 행사에 참여의 지원 - 문화 예술 관련 여러 기관 사이의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의 증진 - 두 나라의 권한당국 또는 기구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 고고학적, 문화적 및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복원 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번역과 박물관,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사이의 교류를 포함한 고고학, 역사, 문화 및 언어 연구에서의 협력의 장려 - 언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문 사이, 그리고 언론인, 그 밖의 대중매체 대표 사이의 직접 접촉과 협력 관계의 발전을 장려·지원 - 체육기구 및 협회 사이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경기 및 회의 그 밖의 관련 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운동선수 및 코치 그 밖의 인사의 교환을 장려함으로써 체육 및 체육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
교육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기관, 학교 및 정부 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협력의 구축 - 교육 및 교육방법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전문가, 학자, 학생 및 학술기관 관계자의 상호방문의 증진 - 타방계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한 장학금의 수여를 통하여 학생 교류의 증진 - 세미나, 회의, 심포지엄 및 토론회 그 밖의 행사에 상호 참여와 제3국에서 개최되는 그러한 행사에 공동 참여의 장려

출처 : 외교통상부 in www.mofat.go.

(2) 한국 정부의 태국 지원

한국의 태국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대 태국 무상협력지원사업은 프로젝트, 봉사요원 파견, 연수생 사업 등 다양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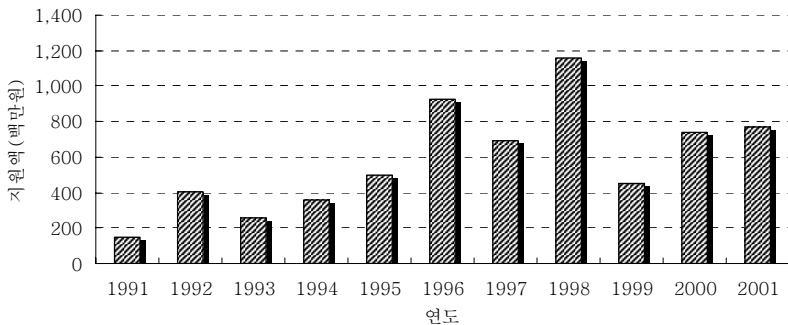
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해외봉사단 파견이나 프로젝트 사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태국의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최근 들어 연수생 사업,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등의 사업지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V-8> 대 태국 무상협력사업실적 및 지원현황, 1991-2001
(단위 : 백만원)

국가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태국(A)	148	401	255	358	500	924	694	1,156	450	736	773
총계(B)	17,376	23,168	24,605	30,774	37,959	43,250	52,761	53,776	45,116	51,276	69,718
A/B(%)	0.85	1.73	1.04	1.16	1.32	2.14	1.32	2.15	1.00	1.44	1.11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1991-2002 통계 각 권 참조

<그림 V-3> 대 태국 무상협력사업실적 및 지원 추이, 1991-2001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1991-2002 통계 각 권 참조

나. 경제교류관계 현황

한국과 태국은 1961년 무역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인 경제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간 통상확대에 따라 1975년부터 한·태 통상장관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경제교류에 대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1) 산업교역 관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태국은 동남아 인접국으로 간접수출이 가능한 역내경제의 중심시장이다. 그러나 교역기반이 아직까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백화점, 슈퍼마켓, 유통센터, 주유소 등에 구미, 일본자본이 진출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주요 유통망에 진출하지 못하고, 주로 태국이 발주하는 공사수주, 한국투자업체의 원자재 수요, 태국 내 수입대리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자동차업계의 본격적인 진출과 함께 9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

90년대 양국간 교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97-98년 양국의 외환위기로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99년 이후 회복세로 반전하였다. 대 태국 교역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래에는 흑자 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 수출의 상당부분이 우리 진출 기업들의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경제성장,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2002년도에는 태국경제호전에 따라 IT제품위주의 대 태국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26.4%가 증가한 23.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대 태국 수입은 원자재, 부품 및 농수산물 중심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17억 달러에 달했다. 2003년에도 태국경제의 호조세 지속에 따라 전지, 전자부품, 휴대폰 등 IT제품위주의 대 태국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8.07%가 증가한 25.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 태국 수입도 원자재, 부품 및 농수산물 중심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18.9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6.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 태국 수출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9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아시아지역 외환위기인 97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99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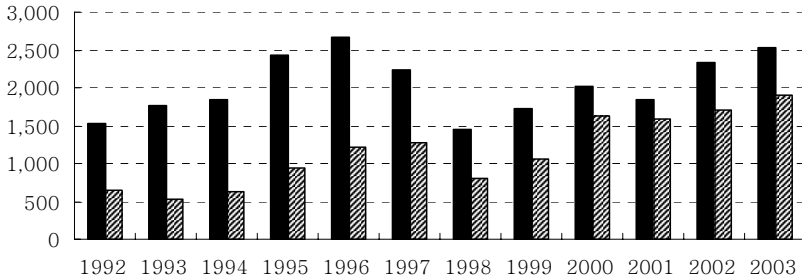
<표 V-9> 한국과 태국의 무역 규모와 특성, 1992-2003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수 출 (A)	수 입 (B)	무역액 (C=A+B)	수 지 (D=A-B)
1992	1,532	638	2,170	894
1993	1,761	539	2,300	1,222
1994	1,835	620	2,455	1,215
1995	2,428	936	3,364	1,492
1996	2,664	1,219	3,883	1,445
1997	2,243	1,284	3,527	959
1998	1,450	809	2,259	641
1999	1,735	1,068	2,803	667
2000	2,015	1,631	3,646	384
2001	1,848	1,589	3,437	259
2002	2,335	1,703	4,038	632
2003	2,524	1,898	4,422	626

출처 : 한국무역협회, 각국의 무역통계 각년도.

<그림 V-4> 한국과 태국의 수출입 추이, 1992-2003



출처 : 한국무역협회, 각국의 무역통계 각년도.

대 태국 수출은 산업용기계, 윤활유 및 석유화학원료, 철강, 철도차량, 전기설비, 전자제품 및 중간재 등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99년 이후에는 태국의 경제발전과 한국의 현지투자기업들의 부품 수입 등으로 인해 반도체, 전자관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기타기계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비료, 광산물, 섬유류 등의 수출은 감

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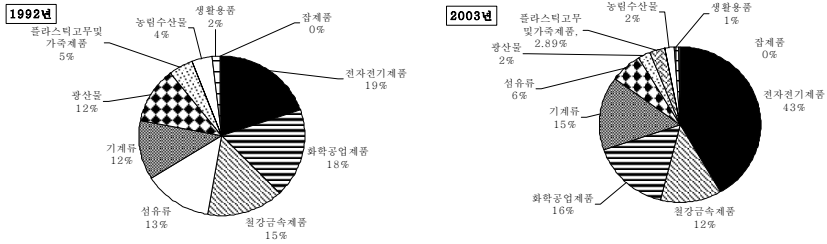
현재 2003년 기준 대 태국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2.7억 달러, 전자관 2.0억 달러, 컴퓨터 1.8억 달러, 철강관 1.3억 달러, 반도체 1.2억 달러 등을 나타냈으며,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전년대비 22.0%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정보통신제품은 태국정부가 행정, 농어촌, 학교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일반 가정의 컴퓨터, 핸드폰 등 이동통신제품의 보급이 활성화 단계에 있어 앞으로도 수출 전망이 상당히 밝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력품목은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핸드폰 등이다.

<표 V-10> 한국 대 태국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992년			2003년		
	품목명	금 액	비 중	품목명	금 액	비 중
1	전자전기제품	304	19.84%	전자전기제품	1,053	41.74%
2	화학공업제품	276	18.02%	철강금속제품	308	12.21%
3	철강금속제품	229	14.95%	화학공업제품	395	15.66%
4	섬유류	204	13.32%	기계류	391	15.50%
5	기계류	181	11.81%	섬유류	161	6.38%
6	광산물	177	11.55%	광산물	63	2.50%
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1	4.6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3	2.89%
8	농림수산물	60	3.92%	농림수산물	49	1.94%
9	생활용품	25	1.63%	생활용품	23	0.91%
10	잡제품	5	0.33%	잡제품	7	0.28%
	총계	1,532		총계	2,523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V-5> 한국 대 태국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한편 한국의 대 태국 수입은 98년 이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서 98년 외환위기사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 태국 수입은 고무, 설탕, 천연가스, 타피오카, 냉동새우, 닭고기, 전자부품 및 철강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상당한 변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태국의 산업발전과 함께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및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완제품을 역수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99년을 전후로 반도체, 컴퓨터, 전자관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과 함께 목재류의 수입이 증가했다. 현재 2003년 대 태국 수입품목으로는 반도체 3.1억 달러, 컴퓨터 2.1억 달러 등으로 전자전기제품이 전체의 41.78%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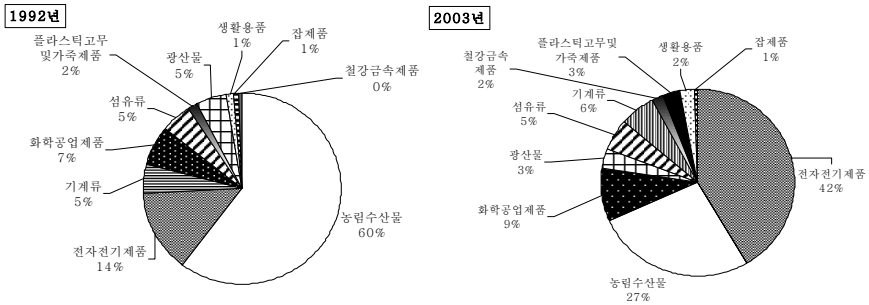
<표 V-11> 한국 대 태국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992년			2003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농림수산물	384	60.28%	전자전기제품	793	41.78%
2	전자전기제품	88	13.81%	농림수산물	506	26.66%
3	기계류	33	5.18%	화학공업제품	170	8.96%
4	화학공업제품	42	6.59%	광산물	65	3.42%
5	섬유류	31	4.87%	섬유류	104	5.48%
6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2	1.88%	기계류	111	5.85%
7	광산물	31	4.87%	철강금속제품	39	2.05%
8	생활용품	8	1.26%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52	2.74%
9	잡제품	5	0.78%	생활용품	46	2.42%
10	철강금속제품	3	0.47%	잡제품	12	0.63%
	총계	637		총계	1,898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V-6> 한국 대 태국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한편 우리나라의 대 태국 투자는 8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90년 21건, 94년 17건, 96년 16건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97년 188백만 달러 투자로 최대규모를 이루었다. 그러나 97-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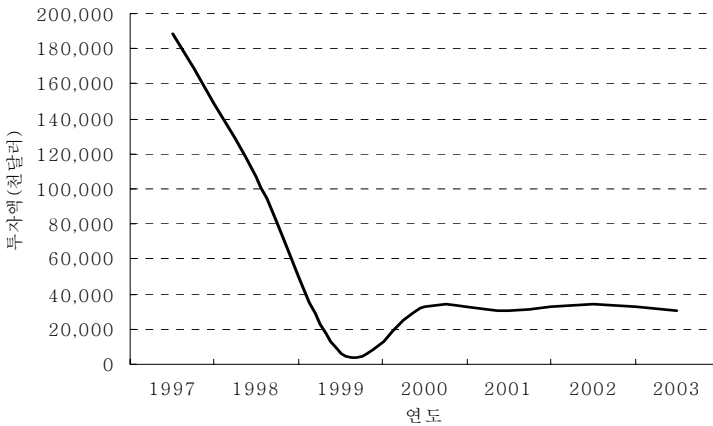
는 추세이다.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태국 투자규모는 총 202건, 5억 720만 달러로 세계 12번째, 동남아시아 국가 중 5번째 투자대상국이다. 초기 한국기업은 주로 무역, 제조, 금융, 관광, 운수분야에 진행했으나 최근 들어 태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업체들은 전기전자부품, 기계금속, IT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기업의 태국 진출은 장기적으로 태국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V-12> 한국의 대 태국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3
(단위: 천달러)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투자규모	188,250	106,762	6,049	32,785	30,777	34,020	30,369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그림 V-7> 한국의 대 태국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3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관계 현황

태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AFTA가 발효되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 실시로 인근 국가로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전략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 인접 사회주의 국가 시장진입에 우회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당히 높은 투자 매력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며, 인구 6,350만(2002년 기준)으로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2002년 기준 약 2,000달러)으로 내수판매 확대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출산업에 집중되고 일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세를 생활용품의 경우 투자를 통한 시장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정부는 투자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BOI를 통한 투자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법인 설립 후에도 각종 행정적인 절차와 부가세 환급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BOI를 통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태국 투자청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개 핵심 외국인 투자유치분야를 선정하였다. 동 분야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농산물가공, 패션사업, IT 및 고부가 특새산업 등이 있다. 외국기업이 동 분야에 투자시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태국은 우리나라 아세안 투자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기간은 1997-1998기간 중이었으나 이후 양국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 급감하였다. 최근 들어 다시 태국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가전업체의 투자확대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태국투자는 7,650만 달러에 달해 2001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분야는 금속가공 및 기계부문이 12.5%,

전기. 전자 부문이 가장 많은 72.4%, 화학. 제지부문이 13.3% 각각 투자되어 이들 3개 업종의 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액의 98.7%에 달하였다. 2003년에는 2002년보다 소폭 증가한 40건, 35억6백만 바트(약 8,450만 달러)가 BOI에 의해 승인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들어서는 한국의 전자, 통신업계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태국 남동쪽 산업단지에 관련 협력업체까지 공동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이 태국을 전략적인 동남아 자동차 진출기지로 삼은 데 이어 자동차업계도 이 시장에서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각국의 태국시장 진출은 현재 태국시장이 정치적 안정 속에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AFTA 협정으로 관세를 계속 낮추고 있고 또한 최근 이 나라가 추진 중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제3국 우회기지로써의 입지도 강화될 전망이다.

<표 V-13>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8대 국가, 1980-2004. 8누계기준

(단위 : 건, 천달러)

국가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순투자건수	순투자금액
미국	4,461	13,240,726	3,936	10,121,884
중국	10,729	9,738,224	10,476	7,945,518
인도네시아	637	2,123,295	556	1,249,655
베트남	539	1,150,188	519	969,086
호주	255	695,771	217	524,840
네덜란드	65	2,269,877	50	2,083,399
홍콩	641	1,921,029	553	1,534,554
영국	136	1,846,398	116	1,359,282
캐나다	222	718,756	194	419,432
버뮤다	12	1,483,753	11	1,475,279
인도	139	757,565	133	561,583
독일	204	1,040,961	172	805,579
일본	747	1,004,771	675	868,121
폴란드	58	646,439	52	520,073
싱가포르	169	934,499	145	491,613
필리핀	658	705,040	596	506,895
태국	312	658,023	276	552,162
말레이시아	290	466,775	252	349,356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1980-2004 8월

태국 투자청은 2004년 7월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별도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투자청은 우리나라의 대외투자(신고)가 지난해 기준 56.7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 보다 많은 태국 투자 유치에 위해, 슝루아이 투자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팀을 구성하였다. 지난해 약 7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청기준)를 유치한 바 있는 태국은 자동차, I/T, 패션, 농산물 가공 산업 및 실버산업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주요 5대 핵심 투자유치 산업으로 정한 바 있는 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I/T와 자동차 산업에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 투자청은 이번 투자 유치팀을 장기적으로는 일본 투자 유치 부서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부서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BOI내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의 채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로부터의 신규 유치 못지 않게 기존에 투자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인데 특히, 기존투자 기업들의 투자확대나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KOTRA 방콕무역관과 한태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태국에 대한 투자(승인기준)는 35억 바트(약 8,700만 달러)로서 태국 전체 외인 직접투자(2,126억 바트/약 53억 달러)의 1.6%였으며, 금년 1~5월까지의 투자는 39억 바트(약 9,800만 달러/전체 외인투자액의 3.4%)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산업별로는 삼성 및 LG전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전자 부문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 사회·문화교류관계 현황

(1) 교육부문의 교류관계 변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국제무역과 투자가 증대된 이후 태국정부는 국내 고급인력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 각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 한국어를 처음으로 교과과목으로 도입한 송클라 대학교의 파타니 분교(Prince of Songla, Pattani Campus)는 세 과목을 선택과목(한국어 1, 2, 3)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1991년 태국왕립대학인 출라롱콘 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가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과목을 도입하다 1996년 이후 전공과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994년 램캄행 대학교(Ramkhamhaeng University)가 한국어보다는 한국 역사,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정치 등의 과목을 일반과목으로 개설하여 주목 받았다. 1995년 이후 이전 송클라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임한 친한인사가 부라파 대학교(Burapha University)로 전근오면서 동 대학교는 한국학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였다. 1995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다, 1999년 이후 부전공 과목들을 확장개설하고 2000년 이후 전공과정을 정식 개설하였다. 이외 사회 정치 및 법학으로 유명한 타마삿 대학교(Thamasat University)는 2001년 이후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학 관련 연구소 및 과목들을 개설하였다.

이들 대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부라파 대학교의 한국학 진행 현황을 보면 1992년 동 대학은 충남대학교와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아시아 어과에 한국어 교육 전공의 석사과정을 1993년에 신설하였다. 이후 1999년 동 대학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와 외국어 교수-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체결로 인하여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타이 학과는 동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소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1999년 정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의 학사과정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한국 국제협력단의 정기적인 한국어 강사진 파견과 한국과 교류대학교에서 파견교수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이제는 자체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의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느 정도 성공을 보여 독립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동대학에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2명의 태국인 강사가 있다. 아시아어과에는 강사 수의 부족으로 인해 매 학기당 학생수를 30명

제한할 정도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과 태국의 대학간 교류의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경우는 한국외국어대학의 태국어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태국학회, 동남아연구소, 한국동남아학회 등과 함께 태국의 출라롱콘대학교, 송클라대학교와의 교육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교환교수 및 어학연수단의 현지 어학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생 태국어 경시대회를 비롯하여 주한태국대사배 타이어 발표회, 전국 태국어과 문화학술제를 주최하는 한편, 국제 태국학 학술회의 참가에 참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태국정부초청 장학생 파견, 태국의 학자 및 교육 관계인사 방문 및 세미나, 완싸 디(태국민속문화예술제)개최 및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자료교환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사회·문화 교류관계의 변화

한국과 태국의 사회·문화교류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대구YMCA는 1995년 태국 치앙마이 YMCA와 ‘형제 Y조인식’을 시작으로 태국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간 양 YMCA는 ‘한·일·태국 YMCA 청소년 국제자원봉사캠프’, ‘대구-치앙마이 Y직원교환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97, ’98년에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이들 프로그램들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000년 이후 양 YMCA는 대구-치앙마이 Y 직원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상호간 기구 운영 연구 및 사업연수, 시민운동 참가, 양국 언어 및 문화소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04년 8월 25일 주태 한국대사관이 태국 ‘국가 문화위원회’ 및 문화·스포츠부와 함께 주관하여 태국 시리킷 왕비의 72회 생일을 기념하고 한국-태국 문화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 전통무용 공연을 방콕에서 진행했다. 방콕의 ‘태국 문화센터’ 메인 홀에서 열린 공연에는 태국 왕실의 외지라롱콘 왕세자빈과 각계 주요 인사, 외국 공무원 및 한국 교민들이 대거 참석하고 ‘김영희 무용단’은 장고춤과 부채춤, 화관무 등

우리 고전무용과 창작무(創作舞) ‘아리랑’ ‘꿈’ 등을 공연했다. 또한 민간 기업 차원에서 세계적 관광국가인 태국의 유망 관광자원을 개발, 운영하고 한국-태국 문화교류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한국, 태국 합작으로 2002년 2월 설립된 파타야 민속촌 회사(Pattaya Folk Village co.,ltd.)는 태국 Ancient City 회사와 ‘파타야 나무공전’, ‘에라완 뮤지움’, ‘므왕보란 고대 도시’의 국제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파타야 민속촌 프로젝트를 통해 파타야 민속촌 공사 등에 참여할 예정으로서 태국의 폭넓은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도 시도되고 있다.

(3) 태국 한국인의 교민사회

태국의 한인 사회는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되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버마, 태국, 라오스 등지에서 일본군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복무했다. 해방을 만나서 아우타야 지역에 약 8,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는 소위 정신대도 있었다.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고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잔류하게 되었다. 이들이 교민 1세대이다. 상당수는 태국인이나 일본인과 결혼하였는데 초창기에 고생이 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1960년대 초반에 ‘야자수회’를 조직 했는데 이것이 교민사회의 시발점이 되었다.

교민 제 2세대는 1960년대 중반에 기술자로 온 사람들이다. 원로 교포에 의하면 이 기술자들은 특별히 기술이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파견된 것이 아니고 간단한 제품을 수리하고 차량을 정비하는 일 등이었다고 한다.

교민 제 3세대는 월남전 당시 월남에 갔다가 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부두 하역, 건설업, 용역업 등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월남전 당시 많은 한국인이 왔었으며 월남 패망 후에도 상당수가 태국에 왔으나 체류 허가가 어렵고 살길이 없어서 호주, 미국, 일본, 남미 등의 비자를 얻어 간 사람도 많았다. 1977년경 태국의 한인은 약 200명 정도였다.

교민 제 4세대는 해외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기업을 하려고 온 사람들

로 구성되었다. 1980년도 초기에는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로 여행업이 시작되었으며 지사와 상사가 들어온 것도 이때부터이다. 1985년경에는 교민수가 700-800명으로 증가 했다. 1980년도 후반부터는 제조업이 시작되었다. 이후부터 교민수는 급격히 늘어 현재는 5,000명-6,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가 약 100명 정도이며, 그 외 체류자가 약 5,0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교민단체로는 1964년 창립된 재태국 한인회(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로 월간 ‘재태 한인소식’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한인회 지회로 파타야 한인회, 푸켓 한인회, 치앙마이 한인회 등이 있다. 현재 한인학교는 토요 학교로서 1964년 개교하여 총 학생수는 약 290명(유치부 60명, 초등학교 210명, 중학교 20명), 교사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설립된 전일제 한인학교는 2003년 문교부 인가의 재외 한인 학교로 등록되어 있다.

VI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류관계 이해

제 VI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말레이시아는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 왕국의 점령을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영국, 일본 등 많은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이 형성되어 왔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을 비롯한 중국인, 인도인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며 이슬람을 국교로 하지만 다양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외교적으로 비서방, 친 이슬람을 표방하고 있고 제 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동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개발 경험을 벤치마킹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채택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상호간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다양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양국간 문화 및 사회분야의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현황

가. 정치 환경

말레이시아가 위치한 말레이반도 부분과 싱가포르를 합쳐서 보통 ‘말라야’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보아 말라야와 사바·사라와크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말레이반도에 최초로 생긴 왕국은 4~5세기경에 흥한 북부의 란카수카 왕국(말레이인의 불교국)이며, 9세기가 되면서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왕국(불교국)이 반도 전역을 지배하였다. 또 13세기에는 수마트라에서 건너온 말레이인의 일족이 싱가포르에 투마세크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14세기에는 사바의 마자파히트 왕국(힌두교)이 말라야 전체를 지배하였다. 이 무렵 아랍 상인에 의해 이슬람교가 전해지고, 1405년 투마세크 왕국의 후예가 세운 말라카 왕국은 말라야의 여러 토후국 외에 말라카해협을 넘어 수마트라의 동부까지 지배하였다. 그러나 1511년 포르투갈

인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이후 1641년 네덜란드의 말라카 점령을 거쳐, 1786년 영국이 페낭을 점령하고, 드디어 영국의 주도권이 확립되었다. 영국은 20세기 초까지 말라야의 여러 토후국과 전략상의 요충지를 모두 지배하였으며, 싱가포르·말라카·페낭을 직할식민지(해협식민지), 페라크·셀랑고르·네게리셀빌란·파항의 4개 토후국을 말레이 연방주, 트렝가누·케다·페를리스·켈란탄(이상 4개주는 영국 진출 시까지 타이의 속령이었다)·조호르의 5개 토후국을 비연방주로 하여 식민지 경영을 진척시켰다. 중국과 인도의 노동자를 끌어들여 행한 고무·주석 산업 개발은 대표적인 예이다. 태평양전쟁 때에는 일본에 점령되어(1942~1945), 중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이 살해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1957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11주가 통합되어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다. 1963년에는 싱가포르·사바·사라와크를 합쳐서 '말레이시아'가 성립되었으나, 2년 후 싱가포르가 탈퇴 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사바·사라와크는 15세기경부터 브루나이 왕국의 일부였는데, 사바는 18세기 초 술루(필리핀)의 술탄에게 할양된 후,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 특허회사의 소유지가 되었다. 사라와크는 19세기 중엽부터 60년에 걸쳐 영국인 J.브룩이 브루나이의 술탄에게서 할양받은 지역(브루크 왕국)이었다. 사바와 사라와크는 모두 1942년부터 3년간 일본에 점령당하였으며, 종전 후 1946년부터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되고 1963년에는 말레이시아연방에 가맹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9명의 술탄 중에서 5년마다 호선되고 임기는 5년이다. 1999년 4월 11대 국왕 양 디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이 취임하였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인데, 상원은 임기 3년의 69석으로 29석은 13개 주의회에서 각주마다 2명씩 선출되고, 연방 직할령 중 켈라룸푸르에서 2명, 라부안에서 1명이 임명된다. 나머지 40석은 국왕이 직능대표, 각계 공로자, 소수민족 대표 등을 임명한다. 하원은 193석으로 비밀, 평등, 보통,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되며 의회 임기(5년) 만료 후, 또는 의회 해산 후 60일 이내에 총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957년의 독립 이래 말레이인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을 중핵으로 하는 연립여당 ‘국민전선’이 정권을 잡고 있다. 정부는 의원내각제로서 내각은 총리실과 24개 부처로 구성된다.

말레이반도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인종 구성과 이에 따르는 인종간 경제활동의 차이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말레이인과 이주민은 인구 규모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직업, 소득 등에 큰 차이가 나고, 각기 자기들의 전통적 문화·종교·언어·사회관습 등을 고집하며 서로 융화되지 않고 병존하는 ‘복합사회’로 특히 19세기 이후 영국의 식민지 행정 하에서 형성되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중 말레이시아를 점령한 일본은 말레이인을 중용하고 화교를 차별하였다. 이러한 민족분단 통치정책의 결과, 각 민족간의 대립감정이 격화되어, 전후에 시작된 정당정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거의 모든 정당이 민족적 기반 위에 설립되고, 제각기 자기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여당은 이러한 여러 정당의 타협적인 연합체이나, 말레이인 정당인 UMNO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역대 총리도 이 당에서 나왔다. 정부는 독립 이래 말레이인에게 여러 가지 특권(토지 소유·영업·고용·교육 등)을 줌으로써 그들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화교는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두드러진 부를 획득하였고, 이는 말레이인의 불만을 고조시켜 1969년 5월 13일 대대적인 반화교 폭동이 발생하였다. 즉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의회는 정지되었으며, 말레이인의 특권, 국왕의 지위, 유일한 국어인 말레이어, 국교로 삼은 이슬람교 등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금지되었다. 사건 후 실권을 장악한 부총리 라자크는 자본·고용 면에서 말레이인의 상공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촉진하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말레이인 우대정책의 강화를 분명히 하였다.

라자크는 1970년 9월 독립 이래의 총리 압둘 라만 푸트라에 이어 총리

에 취임하였으나, 그의 말레이인 우대정책은 화교·인도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반발을 샀다. 라자크는 1976년 1월에 병사하고, 그 뒤 후세인에 이어 1981년 6월 마하티르 빈 모하메드(Mahathir bin Mohamad)가 총리가 되었다. 마하티르는 술탄과 국왕이 가지는 헌법상 기타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 1993년 3월 헌법수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같은 해 3월 29일 발효하도록 했다. 1998년 9월에 부총리 안와르가 해임되고 직권남용·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었다. 1999년 11월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마하티르가 이끄는 연합여당이 압승하여 현재에 이른다.

말레이시아의 외교는 영국연방의 일원으로서 독립 이래 친서방 노선을 취해왔다. 그러나 1967년 소련과 국교를 맺고, 1970년에는 비동맹국 회의에 참가하여 ‘미·중·소 3국의 보장에 의한 동남아시아 중립화 구상’을 제창하였다. 1971년에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동아시아의 평화·자유·중립지역화 구상’을 주도하고, 1974년에는 중국, 1975년에는 공산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1980년 6월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외상회의에서는 회의 직전에 베트남군(軍)이 타이 영토를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나 베트남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총리 마하티르는 구미 중심의 대국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권리 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병역은 지원제로 10년간은 정규군, 2년간은 예비군으로 근무한다. 2000년 현재 정규군 11만 4500명이 있으며, 2001년 국방예산은 8억 3000만 달러이다. 현재의 수도 칼라룸푸르에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새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건설 중이다.

대 중국관계는 1974년 5월 ASEAN 국가 중 가장 먼저 공식적인 수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비록 남사군도 문제 등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미관계와 영연방 활동을 바탕으로 견제를 하지만 중국과의 실질 경제협력 관계 유지 및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25%정도가 중국계인 말레이시아로서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양국간의 정상들의 상호방문을 보면, 1990년 이봉 총리 방문,

1991년 말레이시아 국왕 방중, 1992년 양상곤 국가주석 방문, 1993년과 1994년 마하티르총리 방중, 1994년 강택민 주석 방문, 1997년 이봉 총리 방문, 1999년 마하티르 총리 방중, 1999년 주룽지 총리 방문, 2002년 후진타오 부주석 방문 등 고위 인사 교류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이다.

대일본 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 불식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이 절실히 필요해 대일관계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일본의 단순한 자본투자가 아닌 기술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1994년 무라야마 총리 방문, 1994년 및 1995년 마하티르 총리의 방일시 마하티르 총리는 엔고로 인해 증가된 주재국의 외채부담 경감 및 대주재국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양국간의 정상회담에서 종종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대일본관계에서 경제적 협력을 우선하는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나. 경제 환경

말레이시아의 ‘복합사회’를 구성하는 민족들은 경제적으로 종사하는 영역이 다르다. 말레이인(人)은 주로 농업(고무·벼농사를 하는 소농민)·행정·군대·경찰 등에, 중국계는 상인·주석광산·고무농장 노동자·기술 전문직에, 인도계는 고무농장 노동자·운수부문·중하급 공무원직 등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 그밖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미자본이 주요고무농장 및 주석광산과 수출입·은행·선박·보험 부문의 중추를 쥐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근대적 발전은 19세기 말부터의 고무농장 개척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열대지방의 농장 경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예이다. 말레이시아의 고무는 세계 천연고무 생산의 약 40%를 차지한다. 주석은 고무보다 먼저 말레이시아 개척의 요인이 된 것으로, 19세기 중엽부터 채굴되었다. 산지는 넓은 범위에 걸치나, 특히 서해안의 키타 하곡이

중심지이다. 주석 외의 광물자원 개발도 활발하여, 반도 남부의 철광석·보크사이트 광 등은 각지에 수출되며, 금광산지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들 근대적 산업과 대조적인 것이 전통적 농업이다. 말레이인은 각지에서 전통적으로 쌀농사에 종사해 왔는데, 식민지시대에는 고무와 주석 생산에 중점을 두고, 식량 생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책을 펴지 않아 쌀의 자급률은 30% 정도에서 머무르는 상태였으며 식량 증산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독립 이후의 일이다. 벼농사 지역은 반도의 북서부 및 북동부의 저지에 있으며, 말레이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일치한다. 또 도시 근교에서는 채소 등의 집약 재배도 성하다. 이밖에 주로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연안어업도 행하여진다. 말레이시아는 소수의 특산물 생산과 그 수출에 의존해온 전형적인 단일재배 경제국이며, 이로 인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립 후, 정부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반도는 물론이고 사바와 사라와크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특히 종래 개발이 낙후된 반도 동해안지방에 주력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일, 농업과 농촌 개발의 중시, 농업의 다각화, 운수·교통의 확충과 전력 개발, 공업화와 이를 위한 말레이인의 직업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86년 이후 고무와 주석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 지향적 공업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다.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에 직면하였으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 2월 이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8.5%에 달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하다. 2000년 수출은 982억 달러, 수입은 822억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기제품,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팜유, 천연고무, 목

재, 수입품은 제조기기, 수송기기, 식료품이고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기초는 다민족, 복합문화국가로서 인종간의 화합을 통한 국가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절대적 경제수준 향상 및 인종·계층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경제 정책의 배경에는 1969년 부의 편중으로 인한 말레이·중국계간 유혈사태였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부터 신경경제계획(New Economic Plan; NEP)을 추진하여 민족간 부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말레이계를 정책적으로 우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뿌미푸트라(Bumiputra, 말레이+원주민)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70년 2.5%에 머물던 뿌미들의 자산 지분율을 98년 19.4%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인구증가 정책과 영주권 부여제한, 민영화 우선권 부여 및 Trust Agency(PNB) 설립운영, 주택 매입, 특정 개발지역 토지매입, 신규주식 매각시 특혜 부여, 외국기업 합작선으로 Bumi 기업 추진 및 공사 우선 할당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기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1971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진행된 신경경제정책(NEP, OPP1)은 빈곤층 해소 및 부의 공평분배에 역점을 두고 4차례에 걸쳐 5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정치·경제·사회적 안정 달성 및 수출 지향적 제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어 1991년에서 2000년까지 진행된 국가개발 정책(NDP, OPP2)은 신경제 정책의 후속 국가 기본 정책으로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진흥 및 환경보호 등을 추가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현재는 제3차 장기발전계획(OPP3)이 2001년에 시작되어 2010년 까지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연 7.5%의 경제성장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마하티르 총리는 91년 2월 장기적인 국가개발 청사진으로 경제 성장과 공평한 분배가 실현된 이상적인 선진국가상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Vision 2020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

했다.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장기 경제발전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1996년에서 국내총생산(GDP)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인당 GDP도 4,766달러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후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들어 말레이시아의 GDP도 상당 폭 하락하였으나, 200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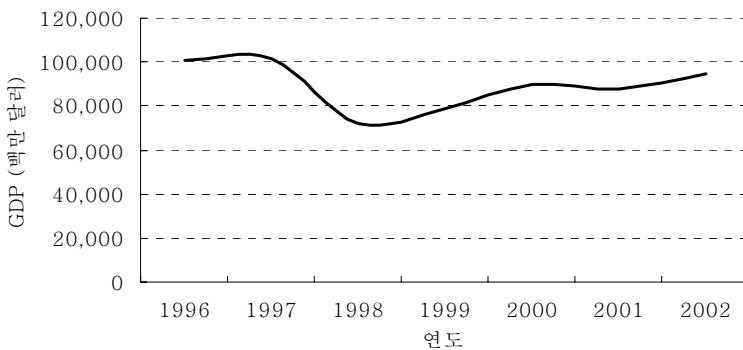
<표 VI-1> 말레이시아 GDP/1인당 GDP 추이, 1996-2002

(단위: 달러)

연도	GDP (백만)	1인당 GDP
1996	100,888	4,766
1997	101,213	4,672
1998	72,237	3,257
1999	79,149	3,485
2000	90,161	3,874
2001	87,976	3,697
2002	94,910	3,914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2003

<그림 VI-1> 말레이시아 GDP 성장추이, 1996-2002



출처 : ASEAN Statistical Book, 2003

지난 20여 년 동안의 적극적인 산업화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 위주의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구조로 경제구조가 전환되었다. 우선 GDP 구성면에서 1차 산업은 팜오일과 임산물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2차 산업은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있다. 특히 국민차 사업(Proton, Perodua)과 함께 관세 보호정책(140-200%)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I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KL인근에 집적단지를 설립(Multimedia Super Corridor)하고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 3차 산업으로는 금융, 물류운송, 관광부문을 보호, 중점 육성하여 산업구조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표 VI-2> 말레이시아 산업구조의 변화, 1980, 1995

구분 연도	GDP 부가가치액 비율(%)				노동력			
	농업	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백만명)	연평균 증가율(%)	농업 (%)	공업 (%)
1980	22	38	21	40	5	2.8	41	19
1995	13	43	33	44	8	2.7	27	23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외국기업들의 현지 투자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서방국가들의 오랜 식민지 경험으로 서구 문화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뿌리내리고 있고, 또한 공용어 중 하나로 영어를 사용하는 값싼 숙련 노동자들이 있기에 아시아 국가에서 서구의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을 주었다. 외국투자 기업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말레이시아는 세계적 경쟁업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시장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450만 명의 인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교역규모인 US 1,600억 달러의 시장과 서구 문화에 근접한 동남아 시장이라는 장점으로 각 분야에서 글로벌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으로 4,000여 다국적기업이 진출, 전기전자 등 공산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품질 및 가격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따라서 가격이 구매여부를 좌우함에 따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97년 하반기 이후 현지화가치의 급락에 따른 수입단가의 상승효과는 제품의 현지화 가격 급상승을 동반, 내수시장 위축과 함께 판매활로 확보를 위해 가격을 중시하는 추세가 현저하다. 또한 현재 말레이시아는 과거 싱가포르를 통한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무역패턴에서 탈피하여 대부분 직교역 형태로 무역패턴을 전환하고 인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중계 무역을 추진함으로써 동남아의 중심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경제 환경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전체 인구의 약 24%인 화교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는 물론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경제권과도 연계되어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 내구 소비재 구매증가 및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중·고가품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층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수요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도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보급 확대 및 소비패턴이 급속한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VI-3> 2004년 말레이시아 슈퍼 브랜드 현황

	1위	2위	3위
컴퓨터	에이서	컴팩	델
프린터	캐논	엡손	휴렛팩커드
스캐너	캐논	엡손	휴렛팩커드
기타(팩스/복사기)	캐논	후지제록스	파나소닉
휴대폰	노키아		
텔레비전	파나소닉	소니	
DVD 플레이어	소니	파나소닉	
디지털 카메라	캐논	소니	
비디오 카메라	캐논	소니	
자동차	혼다	프로톤	토요타
세탁기	파나소닉	토시바	
냉장고	파나소닉	샤프	
에어콘	파나소닉	요크	

출처 : Superbrands 2004 in www.superbrandsasia.com

* 진한 글씨는 플래티넘상 수상

이러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와 고급화 추세는 2004년 리더스다이제스트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공동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집계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주요 소비재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등에서 나타난 상위기업들은 주로 일본, 미국, 유럽의 글로벌기업들의 고급제품이었다.

다. 사회·문화 환경

말레이시아 현지 신문의 단골 제호가 “Unity”이듯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민족간의 단결이 가장 큰 과제이며 이 갈등의 근간에는 이슬람, 힌두교, 도교(중국어), 기독교 등의 다양한 종교와 함께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문화는 국민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의 영향을 받아 매우 독특하고 다양하다. 민족간 갈등이 있

기는 하지만 상대민족의 신념, 믿음, 전통에 대한 조화, 협력, 참을성이 말레이시아 문화의 독특한 융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특성들은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가 IMF의 구제금융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개혁과 긴급경제정책을 실시할 때에도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경제위기 타개의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즉 말레이시아는 반서구와 친아시아 노선을 병행하면서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이슬람적 가치와 규범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전국민적 단결과 정신적 일체감 형성, 종교적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1) 민족과 언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58%), 중국계(25%), 인도계(7%) 및 기타 소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인종 국가로 말레이어가 공용어나 영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는 중국인들 사이의 각종방언(Hokkien, Cantonese, Hakka, Mandarin)이 사용되며, 인도인들은 타밀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민족과 언어의 혼재는 말레이시아 사회환경의 복잡성과 잠재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종교, 이념, 가치체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나, 말레이계 이외의 인종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할 때 말레이시아는 종교적, 인종적, 그리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957년의 말라야 연방이 성립될 때까지 술탄을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교적 계급 제도는 말레이인 사회에만 존재하였으나(모든 말레이인을 술탄의 신하로 보았다), 그해에 제정된 ‘독립헌법’에 의해서 중국인·인도

인도 국적 취득의 조건으로서 술탄의 충성스런 신하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조건은 1963년 말레이시아 헌법에도 계승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인·인도인으로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의 일상회화는 중국어·타밀어이며, 각 인종간의 통혼의 예도 별로 없다.

중국인의 생활에서는 동향 조직인 ‘방(幫)’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푸젠방과 광둥방이 최대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 동업조직적 성격도 겸하며, 푸젠방의 경우 고무농장 경영자가 많다. 말레이시아에는 불교·힌두교·이슬람교가 잇따라 전해졌기 때문에, 현재에도 말레이반도 북부에는 불교 사원·힌두교 사원이 있다. 오래된 이슬람교 사원은 정부에서 관리하며, 새로운 이슬람교 사원이 국비로 건립되고 있다.

(3) 전통과 관습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국교인 이슬람교의 계율을 사회적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회교의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악수나 물건을 접수할 때에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인지를 사용치 않고 대신 주먹을 쥐고 엄지로 한다던지, 사원의 내부에 들어가거나 일반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신을 벗는 것이 예의이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선호하는 색상은 밝은 색 계통이나, 노란색은 술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여겨 상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문화에서 문학과 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춤은 말레이시아 문화의 여러 요소에 강하게 널리 영향을 받았으며, 촛불춤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만 쟁반에 받쳐진 촛불을 각 손에 들고 춤을 추는데 무용수의 동작으로 우아한 곡선과 호가 그려진다.

말레이시아는 흥미로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종교·민족에서 비롯된 엄청난 수의 전통축제이다. 이슬람의 축제인 라마단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에 속한다. 중국 축제인 신년

행사는 사자춤에 의해 절정에 이르며 여러 문화행사 중 가장 화려하고 요란한 행사이다. 인도계 사람들은 성스러운 사원 춤으로 유명하며, 타이푸삼(Thaipusam) 기간 중에 수천 명의 신도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몸을 찌르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사바와 사라와크 등의 토착부족은 쌀로 만든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추수감사 축제를 한다. 축제나 결혼식에서는 4행시인 ‘판투니스’를 낭송하거나 노래로 부른다. 이러한 종교와 다양한 관습을 통한 문화는 말레이시아의 국가발전과정이나 경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정에서 많이 변모되고 있으나 대 말레이시아와의 협력과 교류관계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측면일 것이다.

(4) 인구통계적 특성

말레이시아가 있는 말레이반도 산지의 삼림지대에는 니그리토계(系) 원주민족인 사카이족·세망족 등이 채집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수는 극히 적으며, 총인구의 약 절반을 말레이인이 차지한다. 말레이인은 12세기 경 중부 수마트라의 미낭카바우 지방에서 이주해 온 종족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화교는 총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말레이인과 함께 주민의 주체이다. 중국인의 이주는 10세기 경부터 시작되었고, 16세기 잠시 주석광산 붐으로 대거 이주가 있었다. 20세기 이후 영국이 주석광산과 고무농장의 노동자로서 많은 중국인 쿨리를 반강제적으로 데려와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현재 대부분의 화교는 도시에 집중해서 상업에 종사한다. 인도·파키스탄인은 총인구의 약 7%를 차지하며 대부분 고무농장의 노동자로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밖에 소수의 유럽인과 유라시안이라고 하는 유럽 아시아의 혼혈인이 있다. 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한다.

<표 VI-4> 말레이시아 인구 추세와 특성, 1990-2003

(단위 : 백명)

년도	총인구	성장률	남자	여자
1990	175,036	-	50.23%	49.77%
1991	179,065	2.25%	50.23%	49.77%
1992	183,195	2.25%	50.23%	49.77%
1993	187,479	2.29%	50.24%	49.76%
1994	191,803	2.25%	50.24%	49.76%
1995	196,111	2.20%	50.25%	49.75%
1996	200,446	2.16%	50.25%	49.75%
1997	204,761	2.11%	50.26%	49.74%
1998	209,120	2.08%	50.26%	49.74%
1999	213,545	2.07%	50.27%	49.73%
2000	217,933	2.01%	50.27%	49.73%
2001	222,290	1.96%	50.28%	49.72%
2002	226,624	1.91%	50.28%	49.72%
2003	230,929	1.86%	50.28%	49.72%

출처 : Office of Statistics Malaysia, 2003

말레이시아에는 사라와크에 다야크족, 사바에 카다잔족 등이 살고 있다. 국어는 말레이어이나, 영어·중국어·타밀어도 일반적으로 쓴다. 또 말레이시아의 여러 민족도 제각기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이후 말레이어 사용이 강력히 추진되어, 말레이어라는 명칭을 말레이시아어로 고치기까지 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현재 약 2천 4백 5십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수준이다. 인구성장률은 2002년까지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1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현재 1.8%대에 머무르고 있다. 남녀성비는 남성비율이 다소 높아 50.28% 정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살 퍼볼 때, 인구증가율은 2.01%, 출생률은 1,000명당 25.3명, 사망률은 5.25명, 영아사망률은 20.96명이다. 평균수명은 70.83세로 남자는 68.22세, 여자는 73.63세이다.

(5) 교육환경

말레이시아의 교육은 초등학교(6년), 중학교(초급 3년, 상급 2년), 대학교(4년)로 이루어지며, 의무교육은 아니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초급과정 3년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교·중학교에는 말레이어 학교 외에 영어·중국어·타밀어 학교가 있으나, 1969년 이래 말레이어 교육이 강력히 추진되어, 현재는 어학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수업은 말레이어로 행하여지고 있다. 대학교육은 초급대학·교육대는 3년, 대학교는 4년이며, 대학의 수업도 1981년까지 완전히 말레이어화되었다. 대학은 말라야대학교(1962), 이과대학(1969), 국민대학(1970), 농업대학(1971), 공과대학(1972) 등 국립대학 12개교, 사립대학 7개교가 있다. 인구에 비해 대학수가 적고, 말레이인과 비말레이인간의 대학 입학정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학교들은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가치관을 교육시키고 국가적 통합을 장려하기 위하여 통일된 교과 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말레이어와 제2국어인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시스템은 중등학교, 직업학교, 공예학교, 사범대학교, 공과대학 등으로 폭넓게 짜여져 있다.

2000년 진행된 말레이시아의 교육 및 사회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말레이시아 교육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0세에서 64세의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식자율은 1991년 88.6%에서 2000년 93.5%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곳은 사바주로 91년 79.3%에서 2000년 86.5%로 10년 동안 7.5%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6세 이상 아동의 취학률은 2000년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92.7%, 여자의 경우 87.6%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년 기준 남자아동의 취학률 88.4%와 여자아동의 취학률 79.8%에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내에서 남녀 취학률의 차이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8.8%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라와크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수도 칼

라룸푸르 2.8%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기회에 대한 말레이시아내의 남녀간 지역별 차이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세 이상의 말레이시아 국민 중 대학의 진학률은 1991년 8.9%에서 2000년 16.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 비율은 말레이시아의 각 민족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고등교육 비율을 보이는 계층은 말레이인으로 91년 10.3%에서 2000년 17.3%로 증가하였고, 중국인은 9.0%에서 16.5%로 상승, 인도인은 7.6%에서 13.0%로 증가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고등교육 비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상태이며 특히 민족계층간의 교육수준은 그 차이가 다소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Certificate, Diploma, Degree를 포함하는 학위소유자 비율 중 남자의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은 인도인으로 64.8%를 기록했고, 다음은 부미푸트라인이 63.7%, 중국인이 6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학위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은 부미푸트라인으로 58.2%, 중국인 55.3%, 인도인 54.8%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인 계층에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남녀간의 차별이 다른 계층보다 크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이들 고등교육과 학위의 주요 학문분야는 사회과학, 경영 및 법학 분야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학, 건설, 기술분야가 22.6%, 교육 분야가 15.4%로 나타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는 경제성장단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표 VI-5> 말레이시아 교육환경 변화, 1991, 2000

(단위: %)

연도	식자율	취학률		진학률		
		남자	여자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1991	88.6	88.4	79.8	10.3	9.0	7.6
2000	93.5	92.7	87.6	17.3	16.5	13.0

출처 : 말레이시아 통계청, www.statistics.gov.my, 2004

2. 한국-말레이시아의 교류관계 현황

말레이시아는 정치적으로는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서방국가들과의 교역확대, 해외투자유치, 기술전수 등을 위한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ASEAN을 중심으로 안보강화 및 경제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식민지 경험을 가진 대다수 개발도상국들과 공동연대감을 가지고 서방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서구 기준의 인권 개념 강요나 동남아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현 국제 금융 제도 방관 등에 대한 강한 비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국제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SEAN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을 중시하고,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 지대 및 동남아 비핵 지대화 등의 지역 안보 정착을 논의하는 ARF(ASEAN Regional Forum)의 활동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AFTA(ASEAN Free Trade Area) 실현과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 및 EMF(East Asia Monetary Fund) 창설을 주도하며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 협력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ASEAN+3 사무국의 팔라렘푸르 설치구상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회원국간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의 기본 외교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서방 비판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 도입, 자본유치, 교역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사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상호협력과 이들 관계에서 적극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실리를 추구하는 다양한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화재원 조달을 위해 선진국들의 투자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자국 홍보 전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기본외교 전략

들은 대한민국 외교 및 교류관계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치교류관계 현황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최초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1962년 5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을 개설하고 1964년 4월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상호외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관계에 있어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과는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증진을 위해 96년 김영삼 대통령, 97년 고건 국무총리, 98년 김대중 대통령 등 우리나라 정상급 인사의 말레이시아 방문과 93년 및 2002년 마하티르 총리, 2001년 살라후딘 국왕, 97년 압둘라 외무장관, 99년 하미드 외무장관, 96년 안와르 부총리 등 말레이시아 정상급 인사의 방한 등으로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표 VI-6>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치 및 정부관련 인사의 상호방문 현황, 1966-2003

기 간	1966-1995	1999-2003	합계
한국 정부 관련기관및 정치고위급 교류	19	10	29
말레이시아 정부 관련기관및 정치고위급 교류	33	10	43

출처 : 말레이시아 통계청, www.statistics.gov.my, 2004

우선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의 경제부문 협력은 1962년 체결된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1983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1988년 해운협정, 1989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등 주로 1980년대에 활발한 양국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이 시

기는 말레이시아의 본격적인 경제발전계획이 진행된 시기로서 경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양국간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문화, 항공,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적 협정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1965년 12월 양국 정부간 문화협정을 시작으로 1967, 1973, 1979년, 1984년 4차례에 걸친 항공협정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는 활발한 경제교류와 맞물려 1986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5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교환 등이 체결되었다.

<표 VI-7>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경제부문, 1962-1988

조 약 명	분 야	년도 / 월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경제/기술	1962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경제/기술	1989년 3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세	1983년 1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해운협정	경제/기술	1988년 9월

출처 : 말레이시아 통계청, www.statistics.gov.my, 2004

이중 1965년 체결된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을 통해 1979년부터 매년 양국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청소년 교류는 처음 교육부가 주관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91년에서 94년까지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에서 실시하다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측의 주관기관은 청소년체육부로 양국간 문화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197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류실적은 총 709명으로 이중 초청 349명, 파견 360명의 인원이 교류에 참여하여 국립 청소년 기술연구소 방

문 및 교류회, SIGA 연합 프로그램 참가, 생활 문화 체험 및 문화 역사 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표 VI-8>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및 협정의 사회일반 부문, 1965-1995

조 약 명	분 야	년도 / 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문 화	196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항 공	1967년 6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항 공	1973년 4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항공협정과 관련한 합의의사록 시행각서 교환	항 공	1979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국가협력	1983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항 공	1984년 6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	1986년 11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과학/기술	1995년 12월

출처 : 말레이시아 통계청, www.statistics.gov.my,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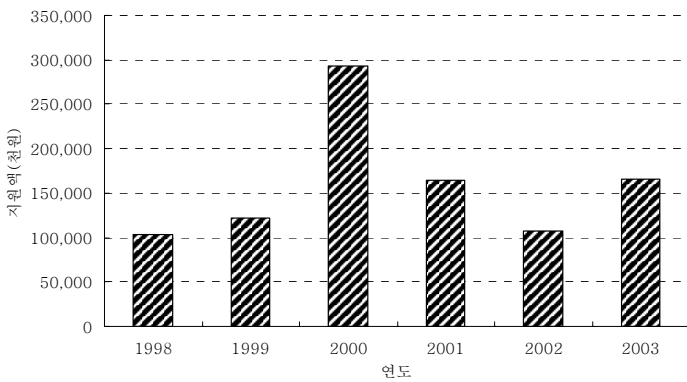
<표 VI-9> 대 말레이시아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8-2003 (단위 : 천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원액	102,924	122,466	292,943	164,851	107,349	165,161
지원인원(명)	21	35	59	46	23	32
전체대비 지원비중	0.19	0.3	0.57	0.24	0.14	0.11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or.kr, 2004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의 무상협력지원은 현재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빠르고 경제기술 분야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필요에 따라 주로 연수생 초청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제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VI-2> 대 말레이시아 무상협력사업 실적 및 지원현황, 1998-2003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or.kr, 2004

나. 경제교류관계 현황

마하티르 수상은 젊은 시절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강남개발계획, 새마을 운동, 중화학공업 투자 등의 의욕적인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후 1982년부터 적극적인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경제개발의 모델로 삼고 한국의 산업개발경험을 답습하여 자동차, 석유, 철강 등 중공업을 육성해왔으며 최근에는 IT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에는 다양한 방면의 경제교류가

1970년대부터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산업교역은 그 추이나 구조면에서 지속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무역수지는 1995년부터 흑자를 시작하여 1998년에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적자로 반전되었다. 2003년 대 말레이시아 수출은 38억 5,200만 달러, 수입은 42억 4,9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억 9,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 말레이시아 수출은 2000년-2003년 사이에 3.1%의 복합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2%를 차지했다. 또한 대 말레이시아 수입은 2000년-2003년 사이에 -4.5%의 복합연평균성장률을 기록했고,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2.4%를 차지했다.

이러한 양국간 교역에서 대 말레이시아 수지는 2000년 이후 수출 증가와 소폭의 수입 감소에 힘입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적자는 2001년의 27%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3년 대 말레이시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81억 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1.2%의 복합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990년대까지 전반적인 양국의 교역은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전자/전기, 철강제품, 유기화학제품 등의 공업제품이 주를 이루고 또한 수입품목으로는 목재, 섬유제품, 전자부품, 유류제품, 광물성 연료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호보완적 수출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양국간의 수출입구조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등의 자본 및 기술 집약 산업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전의 한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간 무역구조(inter-industry trade)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의 산업 내 무역구조(intra-industry trade)로 변화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양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50% 이상 전기·전자 제품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앞으로 주요 제조

업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0>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 규모와 특성, 1992-2004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수출 (A)	수입 (B)	무역액 (C=A+B)	수지 (D=A-B)
1992	1,136	1,758	2,894	-622
1993	1,430	1,947	3,377	-517
1994	1,652	1,876	3,528	-224
1995	2,951	2,515	5,466	436
1996	4,333	3,007	7,340	1,326
1997	4,356	3,283	7,639	1,073
1998	3,602	2,211	5,813	1,391
1999	3,647	3,155	6,802	492
2000	3,515	4,878	8,393	-1,363
2001	2,628	4,126	6,754	-1,498
2002	3,218	4,041	7,259	-823
2003	3,852	4,249	8,101	-397
2004	3,357	4,117	7,474	-760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1991-2003 통계 각 권 참조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9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인 97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수출은 말레이시아 경기침체, IT산업부진 및 반도체값 하락, 미 테러사태 등 복합요인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 말레이시아 수출의 감소세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99년 9위 대비 2001년 10위로, 수출비중은 최고 3.3%를 기록한 96년에 이어 99년 2.5%에서 2001년 1.7%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 등의 주력품목이 1992년 57%에서 2003년 63.46%로 확대되었고, 이외에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 2차 제조업의 주요품목들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산업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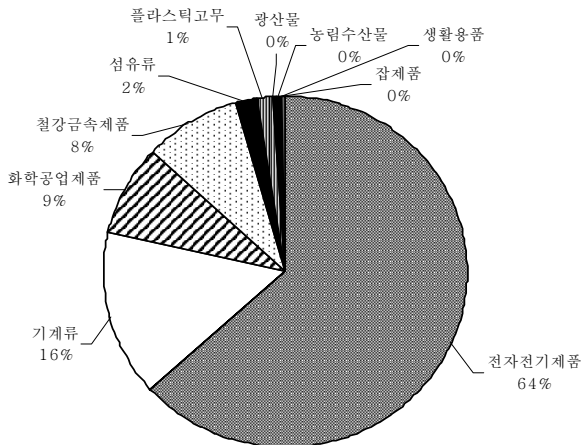
대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1>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품목의 변화, 1992, 2003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992 년도			2003년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전자전기제품	650	57%	전자전기제품	2,444	63.46%
2	기계류	142	12%	기계류	581	15.09%
3	철강금속제품	178	16%	화학공업제품	327	8.49%
4	화학공업제품	81	7%	철강금속제품	325	8.44%
5	섬유류	47	4%	섬유류	80	2.08%
6	광산물	10	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6	1.19%
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4	1%	광산물	17	0.44%
8	생활용품	8	1%	농림수산물	15	0.39%
9	농림수산물	7	1%	생활용품	10	0.26%
10	잡제품	1	0%	잡제품	6	0.16%
	총계	1,138	100%	총계	3,851	100.00%

출처 :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VI-3>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품목 분포, 2003



출처 :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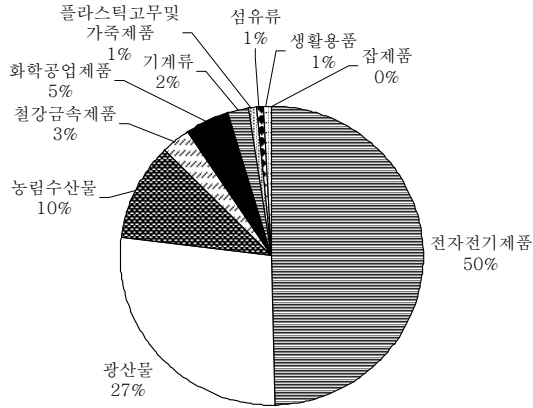
한편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은 98년 이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서 98년 외환위기시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1년의 수입은 주 수입품목인 반도체값 하락으로 전년대비 15.4% 감소하였으며, 대 말레이시아 수입이 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금액기준 8위에서 2001년 10위로, 수출비중은 99년 2.6%에서 2001년 2.9%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 말레이시아 수입품목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92년 당시 수입품목의 42.39%를 차지하던 농림수산물은 2003년 10.31%로 급감한 반면,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92년 15.23%에서 2003년 기준 49.65%로 괄목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입품목의 변화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역 구조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한국의 강력한 무역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2>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품목의 변화, 1992, 2003
(단위 : 백만달러)

순위	1992년도			2003년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농림수산물	746	42.39%	전자전기제품	2,110	49.65%
2	광산물	601	34.15%	광산물	1,165	27.41%
3	전자전기제품	268	15.23%	농림수산물	438	10.31%
4	철강금속제품	70	3.98%	철강금속제품	132	3.11%
5	화학공업제품	38	2.16%	화학공업제품	200	4.71%
6	섬유류	10	0.57%	기계류	104	2.45%
7	플라스틱고무 및가죽제품	11	0.63%	플라스틱고무 및가죽제품	35	0.82%
8	기계류	9	0.51%	섬유류	32	0.75%
9	생활용품	5	0.28%	생활용품	32	0.75%
10	잡제품	2	0.11%	잡제품	2	0.05%
	총계	1,760	100.00%		4,250	100.00%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그림 VI-4>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품목 분포, 2003



출처: 한국무역협회의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www.kita.net)

한편 한국기업들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경기침체로 하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00년과 2001년 사이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현재까지는 큰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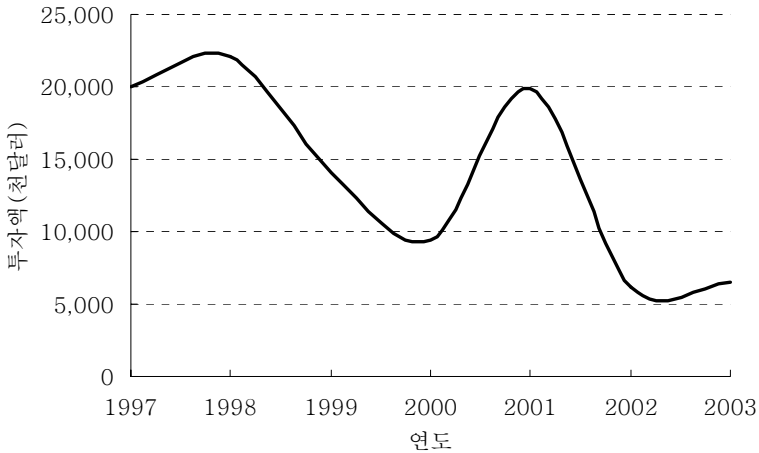
<표 VI-13>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1997-2003

(단위: 천달러)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투자규모	20,022	22,079	14,062	9,410	19,916	6,211	6,502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그림 VI-5>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연도별 투자현황 추이, 1997-2003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말레이시아는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 및 지역간 인종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은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1970년대의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진흥법을 제정하여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유인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경기부양 대책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대하는 선별적 투자정책으로 선회,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경제 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의 변화가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자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를 장려하며, 주요 투자 유관기관으로 국제통상산업부(MITI)와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청(MIDA), 외국인투자위원회(FIC)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상품 인지도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편으로,

특히 자동차, 휴대폰을 중심으로 내구소비재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마하티르 총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동방정책의 영향 등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주요 소비재 제품시장에서 400L 이상 대형 냉장고에서는 삼성 및 LG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진공청소기, TV 등에서도 한국 제품은 선전하고 있다. LG전자는 USD13.2백만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여 대형 플라즈마 TV, 에어컨, 휴대폰 등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올해 USD211백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칼라루푸르, 페낭, 조호바흐르 등 주요 도시 쇼핑센터에 브랜드 플라자를 설립하여 가전제품, 휴대폰, IT 제품을 전시하고 고객이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시장규모가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고 상권의 25%를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점, 가격경쟁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이슬람문화의 특성 등이 말레이시아 진출과 투자의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어 노동의 질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이다. 즉, 일반대형공장의 단순생산직 사원의 임금이 800링깃(한화 26만원) 전후로 이는 인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비해 3~4배에 달하는 고임금에 속한다. 중소기업의 비생산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임금이 더 비싸고 인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극적인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배경에는 다른 인근 동남아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부패지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 역동적이고 잠재구매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의 중심지,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붕괴하는 중동 이슬람권을 대체할 수 있는 최근 환경, 팜오일, 고무, 주석 및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영어권 국가로 중화권, 인도권, 이슬람권을 포용하는 인적구성과 지리적 위치 등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수 참여하여 2002년 말 기준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는 총 288건, 3억

750만 달러이며 고용창출효과는 1981년에서 2002년까지 약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분야는 주로 전자 및 전기, 목재 및 가공, 고무제품, 비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의 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기업들은 주로 건설, 중공업, 종합상사 등에서 시작하여 최근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성장과 함께 전기 및 전자업체, 운송물류업체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VI-14> 한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상위 18대 국가, 1980-2004. 8
누계기준

(단위 : 건, 천달러)

국가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순투자건수	순투자금액
미국	4,461	13,240,726	3,936	10,121,884
중국	10,729	9,738,224	10,476	7,945,518
인도네시아	637	2,123,295	556	1,249,655
베트남	539	1,150,188	519	969,086
호주	255	695,771	217	524,840
네덜란드	65	2,269,877	50	2,083,399
홍콩	641	1,921,029	553	1,534,554
영국	136	1,846,398	116	1,359,282
캐나다	222	718,756	194	419,432
버뮤다	12	1,483,753	11	1,475,279
인도	139	757,565	133	561,583
독일	204	1,040,961	172	805,579
일본	747	1,004,771	675	868,121
폴란드	58	646,439	52	520,073
싱가포르	169	934,499	145	491,613
필리핀	658	705,040	596	506,895
태국	312	658,023	276	552,162
말레이시아	290	466,775	252	349,356
전세계	22,575	49,279,862	20,887	37,884,836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참고 - 1980-2004 8월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흐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81년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고, 88년부터 본격적인 직접투자가 진행되었다. 삼성이 US 달러 13.94억을 투자하여 총 투자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88년부터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확대정책과 더불어 주요 투자국의 투자규모가 급증하고 연평균 8.0%의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된 시기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98년 및 99년 대 말레이시아 투자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2001년 총 21건, US 달러 446.4백만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2002년의 경우 총 15건, 96.9백만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대 말레이시아 직접투자는 전자 및 전기, 목재 및 가공, 고무제품, 섬유류, 수송기계 등의 주요 업종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VI-15> 연도별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현황(승인기준)

연 도	건 수	투자액 (US\$백만)	고용창출 (명)
1981 - 1987	36	28	4,402
1988	11	16	3,664
1989	29	70	3,997
1990	25	241	6,590
1991	43	661	7,281
1992	22	39	2,576
1993	13	43	1,021
1994	18	156	4,431
1995	20	239	4,332
1996	18	256	1,435
1997	18	242	2,687
1998	15	19.4	1,873
1999	6	9.3	326
2000	14	190.2	5,871
2001	21	446.4	2,404
2002	15	96.9	964
2003	16	440.6	2,003
합 계	342	3,347.4	55,857

출처 : MIDA

한편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주요기업들을 보면, 삼성이 전기전자 등에서 가장 대규모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LG가 화학, 전선 등의 업종에서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I-16> 말레이시아 주요 투자업체, 2000년 기준

투자금액	업체명	투자건수
투자잔액 10백만달러 이상	삼성코닝, 삼성 SDI, 삼성전자(브라운관 공장), 한라시멘트(현재 지분매각), 고려제강(Kiswire)	5건
투자잔액 5백만달러 이상	대우(RHB-Daewoo), 동인석재(KO stone), 삼성전자(전자레인지 공장), 아남 에스앤티(Acquatek), LG화학(Cognis Rika), 한국코아(HK Lamination)	6건
투자잔액 1백만달러 이상	동양전원공업(DY Power), 동양정기, 두고전자(Makolin Electronics), 삼성의료고무(SMRC), 삼영화학공업(Sam Long Chemicals), SJM, 영림전자공업, 자화전자, 진성전자, LG전선(Leeder Goldstar Magnet Wire) 등	35건

출처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홈페이지, www.mofat.go.kr, 2004. 10.

다. 사회·문화교류관계의 현황

2002년 5월 공식 방한한 마하티르 총리는 한국의 발전상에 충격을 받았으며 동방정책을 가일층 추진하고 특히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마하티르 총리의 대한국 외교방향에 대한 언급은 80년대 한국을 경제개발의 모델로 삼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추진해온 말레이시아가 90년대 동남아에서 선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국제적 지위가 격상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또 다른 차원의 국가발전을 위해 한국의 문화와 교육 분야에 대해 벤치마킹 모델을 삼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한국-말레이시아의 교류협력은 양국 국민간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한국 연구소 설립 및 지원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사회·문화, 교

육 분야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위한 역할 증대로 발전하고 있다.

(1) 교육부문의 교류관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육부문에 대한 초기 교류관계는 경제협력을 위한 동방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훈련과 한국어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83년에서 97년까지 이러한 동방정책에 대한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표 VI-17>과 같다. 이외에도 한국의 민간업체에서 약 1,000여 명의 말레이인을 초청하는 등의 민간차원의 외교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표 VI-17>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 지원 실적 (1983-1997)

	교육지원	대상인원
1	산업기술훈련	300명
2	중견관리자 교육	400명
3	유학생과건교육 (4년제 및 2년제)	400명
4	한국어교사 파견	6명
5	KOICA 주관 단기연수 (91-98년)	200명

출처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홈페이지, www.mofat.go.kr, 2004. 10.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학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말라야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Malay)가 1980년대 중반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996년 한국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말라야 대학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다른 대학과 달리 한국어와 한국학 프로그램을 모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말라야 대학과는 별도로 국립 말레이시아 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푸트라 대학교(University Putra Malaysia), 세인스 대학교(University Sains Malaysia), 사라와크 대학(Universiti Malaysia Sarawak) 등이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그러나 사라와크 대학과 세인스 대학

교는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2-3년 운영 뒤 바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90년 9월 한말 정상회담이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이 건립지원을 약속하여 우리 정부차원에서 말레이시아와 외무부를 통해 미화 100만달러의 건립기금을 전달하여 98년 마라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에 코리아센터를 개관하고 한국어 포함 8개 어학과정을 동 센터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립 말레이시아 대학교, 푸트라 대학교, 마라 공과 대학교와 앞서 언급한 말라야 대학만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마라 공과대의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산업 역군들이 다수 한국에서 연수를 받아 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지원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이후 동방정책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발전 모델로 삼음으로써 정책적으로 학생, 산업 기술자 등의 파견과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특히 마라공대 등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2) 사회·문화 교류관계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협력을 기초로 강화된 양국의 관계는 사회·문화 교류행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슬람 문화권과 동북아의 유교문화권의 차이로 인해 그 한계는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큰 편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한국 대중문화 상품 진출 과정은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확연히 다르다. 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호응도도 높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환경에서 기인한다. 첫째, 대부분의 한류 현상은 그 동안 중국이나 유교문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화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하나 말레이시아는 엄연히 이

슬람에 바탕을 둔 국가다. 오히려 동남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 문화권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말레이시아는 그간 국가적으로 이슬람주의에 기본을 둔 정체성 강화 정책을 펴왔다. 이는 말레이시아 국가 형성 과정과 관련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1957년까지는 국가 경험을 공유한 적이 없었다. 다양한 부족 출신인 이들은 1511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았다. 지금의 말레이시아 영토도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영역 통합 정책의 산물이다. 종전 뒤 1957년 11개 부족 국가의 연합으로 말레이시아가 건국됐다. 마하티르 총리(1981-2003)는 복잡한 인종의 구성과 이에 따른 문화의 혼란을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슬람주의를 전체 통합 이념으로 한 강력한 국가주의를 정치, 경제 및 사회 모든 분야에 응용했다. 셋째, 산업화 과정도 약간 달랐다. 비록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동안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을 펼쳤다고 하지만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서구의 다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 성장 구조를 취했다. 이는 서구 다국적 기업에 맞는 서구 경제 및 도시 문화를 구축한다는 의미와 닿아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주의 기반 위에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병존하면서 동시에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한 축을 이루는 셈이다. 이런 환경적 탓에 중국문화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침투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문화 상품, 특히 방송 영상물과 영화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대중 문화 상품별 말레이시아 진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드라마-영화-대중 음악 순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가시적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의 아리랑 TV가 1999년 방송위성 아시아 3호를 이용,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와 대양주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한 데서 시작됐다. 이 지역의 낮은 소득 수준이나 시스템 미비로 아직 소수 계층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수신되는 상태지만 한국 상품의 현지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계가 58%, 중국계가 24%, 인도계가 8%, 기

타가 10%를 차지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대중문화 상품 진출의 중심지이자 말레이시아 경제 생산량의 70%가 집중된 수도 콰라룸푸르는 전혀 다른 인종분포를 보인다. 중국계가 오히려 42%로 최대를 점하고, 말레이계가 36%, 인도계가 12% 순이다. 이런 인종 분포가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진입 구조를 결정지었다. 즉 중국, 대만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의 대중 문화상품이 화교권 교역 시스템 구조를 따라 동남아시아의 최대의 화교 경제 중심지의 하나인 콰라룸푸르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 직접 진출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화교권 교역 시스템을 통해 간접 진출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간접 수출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직접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예: '장화 홍련'의 직배상영).

(3) 말레이시아 한국인의 교민사회

말레이시아 경제발전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과정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파견인력 및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 말레이시아 교민사회가 이루어졌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재 말레이시아 한인회(Korean Society in Malaysia)는 1973년 설립되어 현재 회원수 3,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회장 1명, 부회장 6명, 총무 1명으로 간부진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Korean Press 주간지는 현재 매주 발행부수 2,500부로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한편 재 말레이시아 한인학교(The Korean School of Malaysia)가 1974년 설립되어 현재 학생수 450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현지교민들은 건설 및 전자전기업체 등 현지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기업들의 파견인력들과 함께 현지에서의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현지교민들의 사업은 주로 요식업, 항공여행업, 유학원 운영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VI-18> 재말레이시아 한국교민 자영업 현황, 2004

구 분	업체수
교민단체/종교단체	27
병원	2
교육기관/어학원	16
미용실	6
부동산	4
비디오/카페/노래방	17
숙박	12
식품/요식업	65
이삿집	4
컴퓨터	8
항공/여행사	18

출처 : 한나프레스 옐로페이지, www.hannahpress.net, 2004.8

참고 : 현지 한인회 등록 자영업 기준 산출

(4) 현지 한국기업과 한국 사회·문화의 교류관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 이후 한국기업들의 본격적인 말레이시아 진출과 직접투자를 통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현지화 경영전략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진출과 적절한 현지화 경영을 통한 한국적 경영 문화와 문화의 교류 역할이다.

삼성전자는 1989년 클랑에 전자레인지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진출한 후, 90년에 브라운관 공장(삼성SDI), 92년 브라운관용 유리공장(삼성코닝), 95년 모니터공장(삼성전자)을 세렘반 단지에 건설, 97년 20만평에 이르는 전자복합단지를 준공하였다. 유리부터, 브라운관, 모니터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한 일관생산체계를 구비하고 채용, 홍보, 교육, 대정부 섭외, 물류, 전산 등 중복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가동초기부터 이익을 실현하고, 10억달러에 이르는 투자

비도 전액 회수한 후 매년 막대한 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97년 세렘반 주정부로부터 우수기업상(품질)을 수상하였고, 98년에는 말린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총리가 부여하는 Hibiscus Award(환경)를 수상하고, 2001년에는 말레이시아 종합생산성 대상을 수상하였다. 6,000여 명이 근무하는 단지에 파견주재원은 60명 수준으로, 현지채용인력에서 공장관리자를 선출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 전체 종업원 중 5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있다. 기숙사 무료 제공, 말레이식/ 중국식/ 인도식/ 한식 식사를 구내에서 제공하는 등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었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환경보호, 자원봉사, 사회단체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감을 구축한 것이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삼성 전자복합단지 진출의 효과로 다른 계열사의 세계 최고층 KLCC 빌딩 건설 수주 (2억3천만달러), 에틸렌 공장 수주(3억2천만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도움을 주었고, 한국으로부터 20여개 협력사가 동반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 하였다. 핸드폰 시장 진출,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진출 등과 함께 삼성 전자 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으로 현지인에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VII

결론

: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노력의 동남아 확대가능성

현재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 권역에서 한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기존의 경제적 경쟁 또는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들과 좀더 나은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를 제공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배경에는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첫째 1980년대 초 말레이시아와, 1992년 베트남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유형을 정책 모형으로 삼았다. 따라서 한국과의 교류 및 각종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경제 및 문화에 있어 ‘한국화’라는 요소가 적극 수용되었다. 둘째,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여행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자 민간부문의 교류가 적극 활성화됐으며 이 같은 민간 교류의 구심점으로 각국 현지의 한국 교민 공동체 및 한국 관련 민간교류단체가 형성되었다. 셋째,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생산비용의 상승과 ASEAN 지역경제의 통합 강화에 따른 수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한국 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였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 인력 확대 및 경제력 강화, 한국-동남아 지역 경제 공동체의 형성 등으로 인해 한국화의 경제/사회 기반이 지역 내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지 노동자의 한국 노동시장 진입 및 교류도 한국문화 전이의 중요한 채널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국제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에 대응하여 한국정부는 1990년대부터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정치 관계 확대와 그에 따른 정책적인 사회 교류의 한국화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동 지역의 한국화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한국 문화의 동남아 지역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에는 현지 진출 기업의 마케팅 전략 또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현지 진출 기업은 한국 문화와 기업 및 제품인지도 연계 강화전략을 펼쳐 Made in Korea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한국문화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여섯째, 1980년대 이래 사회의 급속한 변천과 가치 다원화 및 세계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한국 문화의 형성과정에서 한국 문

화의 독특한 코드와 국제 문화와의 조화 및 결합의 결과로서 한국문화가 새롭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이 그 동안 국내에서 적극 개발되었다.

위의 요인들과 더불어 현재 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화 선호 현상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지난 20년간 한국 문화 전이를 용이하게 하는 상기 언급된 각종 기반 구축과 함께 동 지역 내에서의 일본 문화 쇠퇴, 홍콩을 중심으로 하였던 중국화의 기반 약화 및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미국화의 물결 등, 지역 내 사회·문화적 흐름이 재조정 과정에 있음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적극적인 해외 직접 투자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문화가 한 때 ‘일류(日流)’라는 말을 낳을 만큼 유행했으나 최근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구조 조정과 함께 더 이상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뿌리 깊은 일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여 일본 문화는 퇴조하는 흐름에 있다. 일본 문화와 더불어 동 지역에서의 외래문화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화(서구와 결합된 홍콩문화)는 1990년대 후반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각종 문화산업의 주도권이 약화됨으로써, 그 위치는 이미 퇴조되었다. 동 지역에서의 서구화(특히 미국화)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으나 뿌리 깊은 반 서구화 및 현지 문화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아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동안의 경제개발과 소득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새 문화에 대한 기대 및 요구의 대안으로 동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또한 사회/문화 및 역사적으로 동류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코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과 각 부문의 한국과 교류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한국이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남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가치의 근접성과 다양한 교류관계 수준의 이해는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의 환경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1. 한국-동남아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이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국간의 문화적 공동체 형성 기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한국-동남아시아 4개국간의 근접성 정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 근접성은 앞서 본문에서 사례 조사된 각 국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인 정치적 가치, 경제활동 가치, 종교적 가치, 전통과 언어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통계방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여기에서 근접성이란 한국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근접성의 가중치가 높을수록 한국과 근접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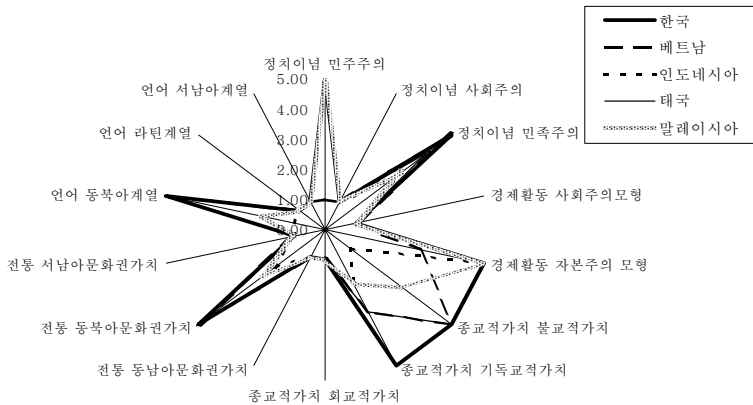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과 가장 높은 근접성을 나타내는 국가 순으로 보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형성을 살펴볼 때 태국과 베트남은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고 반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보다는 서남아시아와 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 기인한다. 그 예로 종교적인 가치를 살펴보면 한국과 높은 근접성을 유지하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의 불교적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가 높은 데 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회교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언어적 가치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4개 국가 모두 지난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환경을 살펴보면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사건들, 즉 반복된 외세와의 전쟁과 독립의 역사, 식민지경험, 중국의 영향, 급속한 산업화와 개방들을 경험하였다.

<표 VII-1>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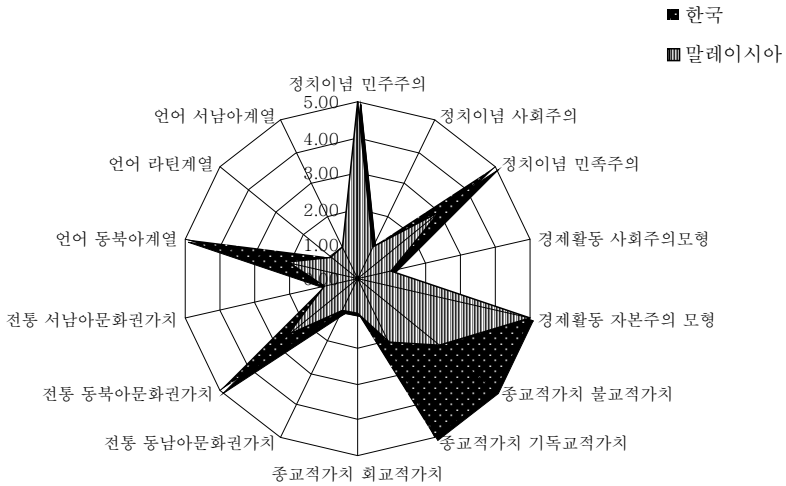
유형	세부항목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정치이념	민주주의	5.00		1.00		5.00		5.00		5.00	
	사회주의	1.00	3.67	1.00	2.33	1.00	3.00	1.00	3.33	1.00	3.00
	민족주의	5.00		5.00		3.00		4.00		3.00	
경제활동	사회주의 모형	1.00	3.00	1.00	2.00	1.00	3.00	1.00	3.00	1.00	3.00
	자본주의 모형	5.00		3.00		5.00		5.00		5.00	
종교척가치	불교적가치	5.00		5.00		1.00		5.00		3.00	
	기독교적가치	5.00	3.67	3.00	3.00	2.00	1.33	3.00	3.00	2.00	2.00
	회교적가치	1.00		1.00		1.00		1.00		1.00	
전통	동남아문화권가치	1.00		1.00		1.00		1.00		1.00	
	동북아문화권가치	5.00	2.33	5.00	2.33	2.00	1.33	5.00	2.33	2.50	1.50
	서남아문화권가치	1.00		1.00		1.00		1.00		1.00	
언어	동북아계열	5.00		5.00		1.00		5.00		2.00	
	라틴계열	1.00	2.33	1.00	2.33	1.00	1.00	1.00	2.33	1.00	1.33
	서남아계열	1.00		1.00		1.00		1.00		1.00	
총계/평균		42.00	3.00	34.00	2.43	26.00	1.86	39.00	2.79	29.50	2.11

참고: 현지 국가의 각 항목을 한국 동일한 항목과 비교하여 각 항목당 근접성 최소(1)와 최대(5)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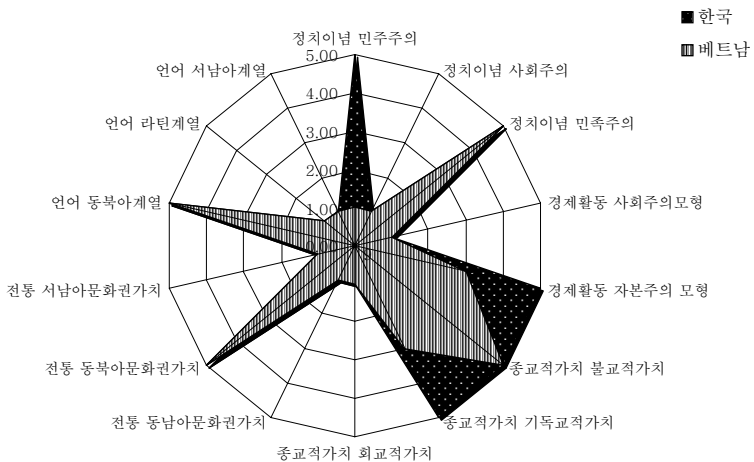
<그림 VII-1>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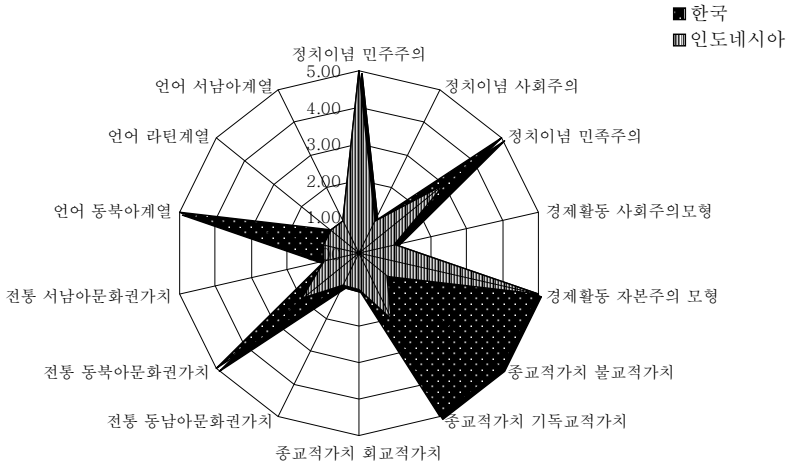
<그림 VII-2> 한국-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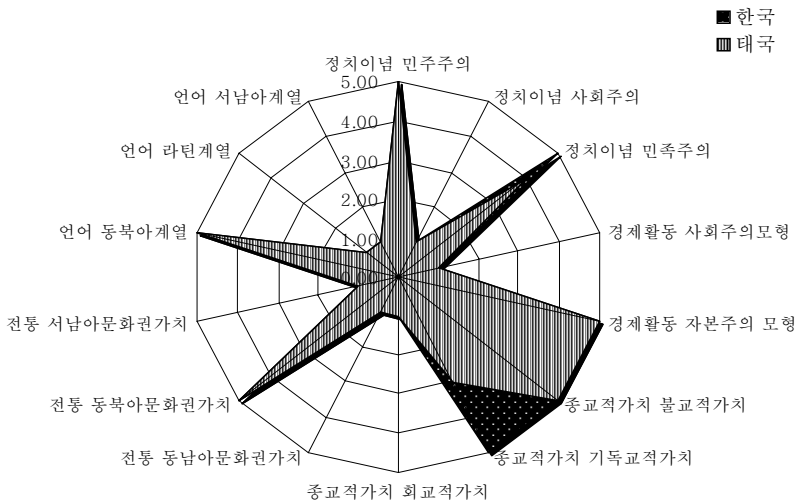
<그림 VII-3> 한국-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그림 VII-4> 한국-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그림 VII-5> 한국-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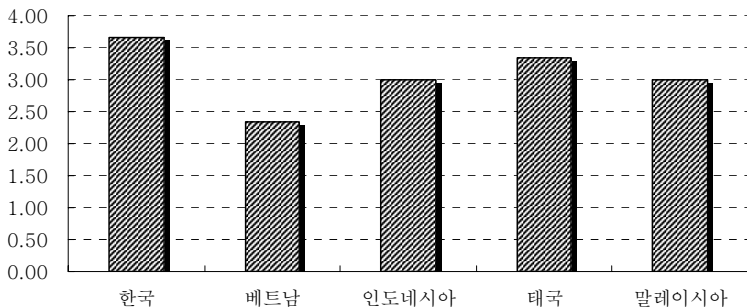
정치이념 관점에서 살펴보면 4개국 중에서 한국과 가장 높은 근접성을 갖고 있는 국가는 태국이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이 가장 낮은 근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4개국 중에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민족주의 관점에서 근접성을 보면 한국과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양국 모두 단일 민족에 의한 국가를 형성해 왔고 끊임없이 외세와 전쟁을 치른 경험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면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어느 특정 인종에 의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낮은 편이다.

<표 VII-2> 한국-동남아시아 4개 국가들과의 정치 이념적 근접성 분석

유형	세부항목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정치이념	민주주의	5.00	3.67	1.00	2.33	5.00	3.00	5.00	3.33	5.00	3.00
	사회주의	1.00		1.00		1.00		1.00			
	민족주의	5.00		5.00		3.00		4.00			

참고: 현지 국가의 각 항목을 한국 동일한 항목과 비교하여 각 항목당 근접성 최소(1)와 최대(5)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했음.

<그림 VII-6>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이념적 근접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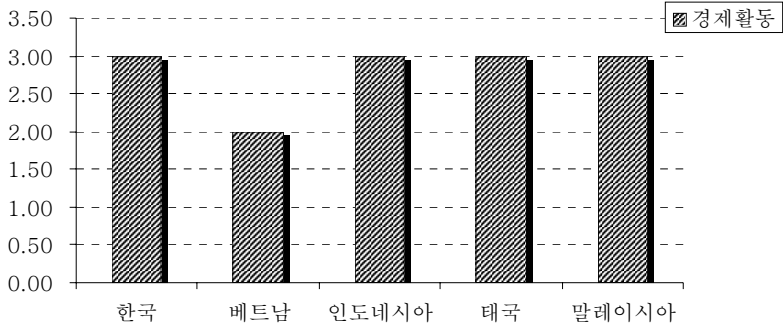
경제활동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간의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들과 한국간에 경제활동의 관습, 행위, 그리고 국가의 정책 개입 등에 대한 상이점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제도 그리고 운용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시장 경제적 시스템 범위에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적 국가 계획경제를 경제 활동의 기본 가치로 채택하고 있기에 한국과 근접성의 정도는 낮다. 그러나 베트남은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 가치에 대한 역사적 경험도 공유하고 있으며 1986년 경제 개방 정책 이후 시장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획 경제적인 요소를 경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경제개발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근접성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3>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경제활동 가치의 근접성 분석

유형	세부항목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경제활동	사회주의모형	1.00	3.00	1.00	2.00	1.00	3.00	1.00	3.00	1.00	3.00
	자본주의 모형	5.00		3.00		5.00		5.00		5.00	

참고: 현지 국가의 각 항목을 한국 동일한 항목과 비교하여 각 항목당 근접성 최소(1)와 최대(5)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했음

<그림 VII-7>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경제활동가치 근접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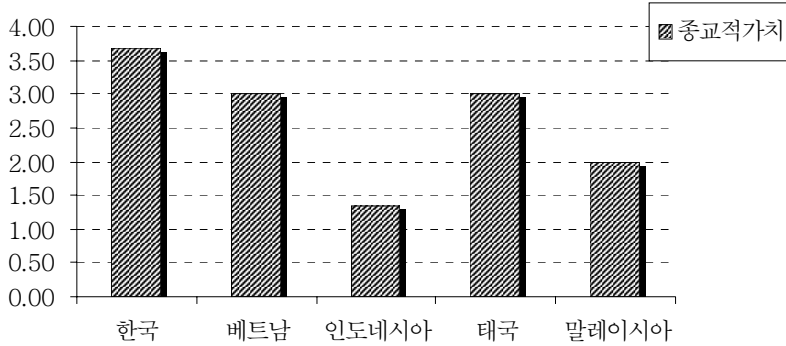
종교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태국과의 근접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이들 문화권의 형성에 관하여 앞서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문화권에서 이주하였거나 영향권에 있었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불교적 가치는 한국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훨씬 두드러진다. 그러나 종교적 가치 중에서도 기독교적 가치는 이들 국가들과의 공유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I-4>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종교적 가치의 근접성 분석

유형	세부항목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종교적 가치	불교적가치	5.00	3.67	5.00	3.00	1.00	1.33	5.00	3.00	3.00	2.00
	기독교적가치	5.00		3.00		2.00		3.00		2.00	
	회교적가치	1.00		1.00		1.00		1.00		1.00	

참고: 현지 국가의 각 항목을 한국 동일한 항목과 비교하여 각 항목당 근접성 최소(1)와 최대(5)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했음.

<그림 VII-8>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종교적 가치 근접성 분석



근대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인 태국에서의 기독교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역사적으로 프랑스 식민지를 100여 년 동안 경험한 탓에 천주교의 영향은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같은 회교가 주종교로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근접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인종적 분포에서 중국인의 화교가 약 30% 정도 차지하여 이들의 종교적 가치가 동북아 문화권으로 분류되어 한국과의 근접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었다. 실지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도네시아보다 말레이시아에서 빠르게 유입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화교의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전통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태국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역사적으로 3국 모두 인접 강대국인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에 따라 유교적 가치는 양국 국민의 생활에서 기본 가치로 깊게 뿌리 내려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동북아와 동남아의 문화적 가치를 모두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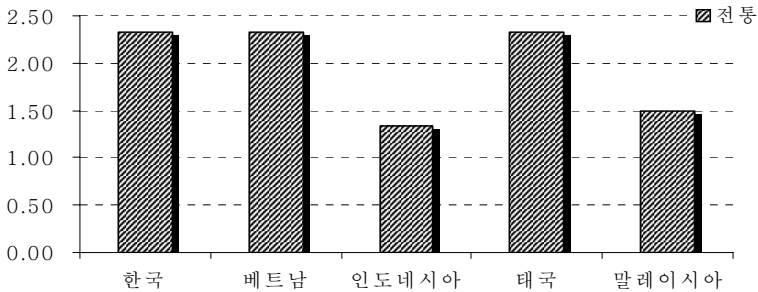
<표 VII-5>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전통적 가치의 근접성 분석

유형	세부항목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전통	동남아문화권가치	1.00	2.33	1.00	2.33	1.00	1.33	1.00	2.33	1.00	1.50
	동북아문화권가치	5.00		5.00		2.00		5.00		2.50	
	서남아문화권가치	1.00		1.00		1.00		1.00		1.00	

참고: 현지 국가의 각 항목을 한국 동일한 항목과 비교하여 각 항목당 근접성 최소(1)와 최대(5)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했음.

유교의 영향을 받은 탓에 베트남은 인근 동남아 국가보다 오히려 동북아 국가인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보다 한국과의 근접성이 높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종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차지하는 중국화교의 비중이 30% 정도 되기 때문이다.

<그림 VII-9>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전통적 가치 근접성 분석



언어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태국과의 근접성이 높은 데 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낮은 편이다. 비록 3국 모두 독립된 언어인 한글, 베트남어, 태국어어를 사용하고 있어 언어상의 공유성은 없다. 그러나 이들 모두 동북아 문화권의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근접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4개국의 언어 모두 소리글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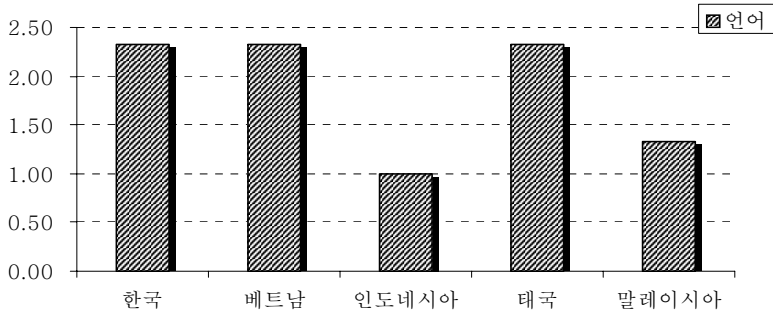
다. 베트남어의 경우 프랑스 식민 시절 한자 형태의 자국어가 로마글자를 차용한 소리글자로 전환되었고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경우이다. 태국어의 경우 또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글자의 사용 역시 소리글자 형태를 띠고 있다.

<표 VII-6>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언어적 가치의 근접성 분석

유형	세부항목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근접성	평균
언어	동북아계열	5.00	2.33	5.00	2.33	1.00	1.00	5.00	2.33	2.00	1.33
	라틴계열	1.00		1.00		1.00		1.00		1.00	
	서남아계열	1.00		1.00		1.00		1.00		1.00	

참고: 현지 국가의 각 항목을 한국 동일한 항목과 비교하여 각 항목당 근접성 최소(1)와 최대(5)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했음.

<그림 VII-10>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언어적 가치 근접성 분석



2. 한국-동남아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 이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국간의 문화적 공동체 형성 기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을 분석하였다. 교류관계의 수준은 앞서 본문의 사례 조사에서 살펴보았던 각 국과 한국과의 정치활동의 교류, 경제활동의 교류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활동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정성적 통계방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여기에서 교류수준이란 동남아 4개국과 한국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했고, 높을수록 한국과 교류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한국과 가장 높은 교류수준을 나타내는 국가 순으로 보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다. 흥미로운 것은 태국과 한국과 근접성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태국보다 높은 교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외교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국과 베트남간의 전체적인 교류 수준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급속하게 높아졌다. 정치·외교 관계의 교류 수준은 경제와 사회·문화 관계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결국 양국 이념적 체제의 상이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류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로 이는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한국 산업 자원 기지와 노동 집약적 부문의 국제 생산 기지로서 경제적 결합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관계 교류는 양국간의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와 한국 대중 문화상품의 진출 등 사회·문화적 교류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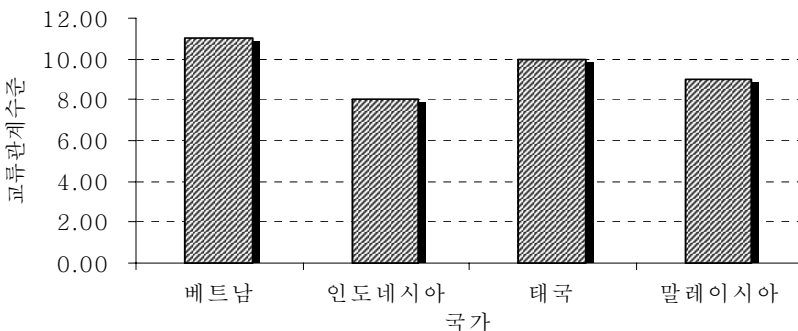
<표 VII-7>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 분석

교류관계부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정치활동	1.00	2.00	2.00	2.00
경제활동	5.00	4.00	5.00	4.00
사회·문화활동	5.00	2.00	3.00	3.00
총 계	11.00	8.00	10.00	9.00

참고: 현지국가와 한국간의 각 부문의 교류관계 수준을 상대적 평가로 가장 낮은 수준(1)과 높은 수준(5)사이의 가중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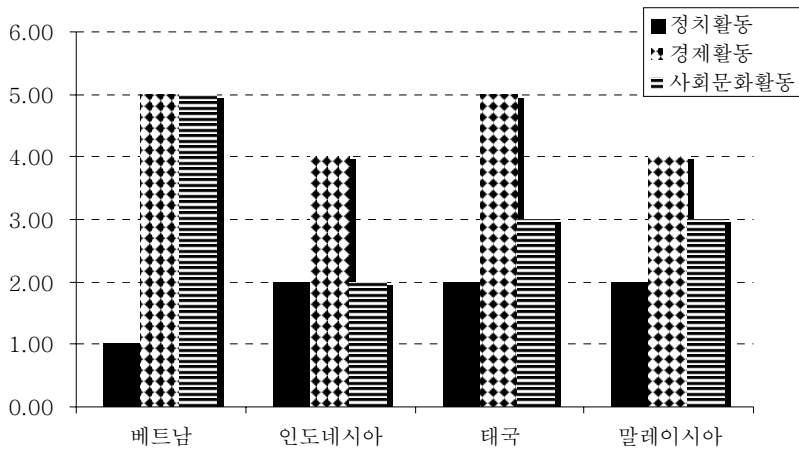
기존 태국의 경우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로 부터 독립 이후 대서방관계 혹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립적 외교관계 혹은 비동맹을 지지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바탕이 일본의 경제 후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비록 198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강화시켰지만 그 입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VII-11>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분석(전체)



한국과 각 국가의 항목별 교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 국가간의 정치활동 교류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중에서 베트남과의 정치적 교류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양국간의 정치체제의 상이성에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비해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베트남에 비해 교류수준이 높은 편이나, 이 또한 절대적 가중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이들 세 국가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기본 정책이 비동맹 혹은 이슬람연맹, 또는 서방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교류보다는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관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VII-12> 한국-동남아시아 4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수준분석(항목별)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 국가간의 경제활동 교류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경제활동의 교류가 최대 가중치에 도달해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현재 경제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현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 부문이기도 하다. 후기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경제협력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이익 관계의 해체는 경제적으로 경쟁관계로 돌아서면 언제든지 협력관계는 경쟁 혹은 갈등관계로 변화된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실제, 아직은 완전한 경쟁관계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일본-중국의 산업구조는 각 국들의 성장속도에 따라 몇몇 부문들은 심각한 통상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에 의한 경쟁 및 갈등 구조는 다른 협력관계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 베트남과의 정치적 교류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것은 양국간의 정치체제의 상이성에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비해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베트남에 비해 교류수준이 높은 편이나, 이 또한 절대적 가중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이유에는 이들 세 국가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기본 정책이 비동맹 혹은 이슬람연맹, 또는 서방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교류보다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관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의 한국과 동남아시아 4개국간의 교류수준을 분석해보면 베트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이유는 문화권에 대한 수용성 여부이다. 각국의 사례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베트남과 태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북아 문화권에 가까운 편이다. 그 중에서 특히 베트남의 경우 더욱 그 근접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트남과 태국이 한국과의 문화적 근접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의 사회·문화 교류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의 전이과정과 시기 그리고 지역 환경에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초 기존의 사회주의적 체제와 가치에서 급격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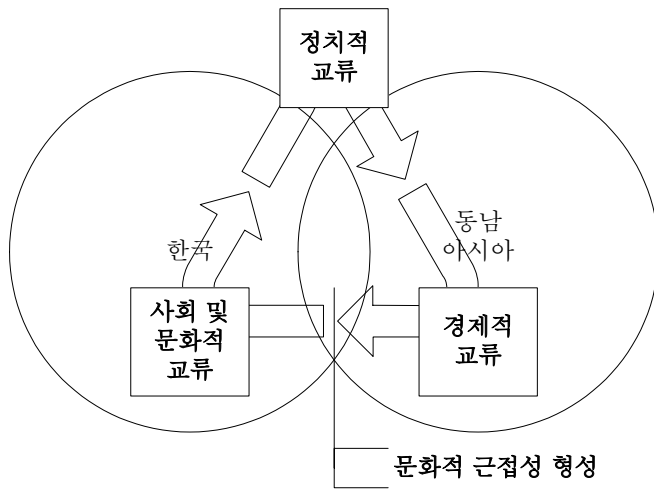
제개방과 성장을 겪은 후 이에 따른 서구문화, 즉 자본주의적 문화, 혹은 도시문화 등에 대한 대안 문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그 시점에 선택된 가장 근접하고 수용성이 높은 한국의 문화 혹은 대중문화가 그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태국의 경우 국가의 개방기간이 한국보다 더 오래된 약 300여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 이전 일본과의 높은 경제 의존 수준, 그리고 이미 진행된 서구화에 대한 기반 등이 한국 사회·문화의 현지 교류를 더디게 만든 이유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화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3. 한국-동남아간의 근접성 강화에 따른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과 방안 모색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과 동남아시아간의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에 앞서 지금까지 분석된 한국-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근접성과 그리고 교류관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 국가와 다른 어떤 특정 국가와 상호 공유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근접성은 양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접성이란 양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행위 혹은 활동이 전이될 때 수용 가능성의 범위를 결정한다. 즉, 근접성이 높을수록 전이 혹은 교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접성은 반대로 양국간의 다양한 교류 채널 존재와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양국간의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채널로서는 양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교류 채널들이 있으며 이러한 교류 채널의 활동 수준에 따라 근접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근접성은 세계화 또는 지역화의 성격과 추세에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

는다. 예를 들어, 세계 2차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정치의 새로운 시스템인 냉전의 구도 속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냉전체제 구축이란 세계 정치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양극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같은 체제를 택하는 국가의 정치적 근접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림은 근접성과 교류관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근접성과 교류관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과 동남아간의 문화공동체 형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에 대한 거시적 접근 방안과 가시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국의 정부, 기업 및 민간단체의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림 VIII-13> 문화적 근접성 분석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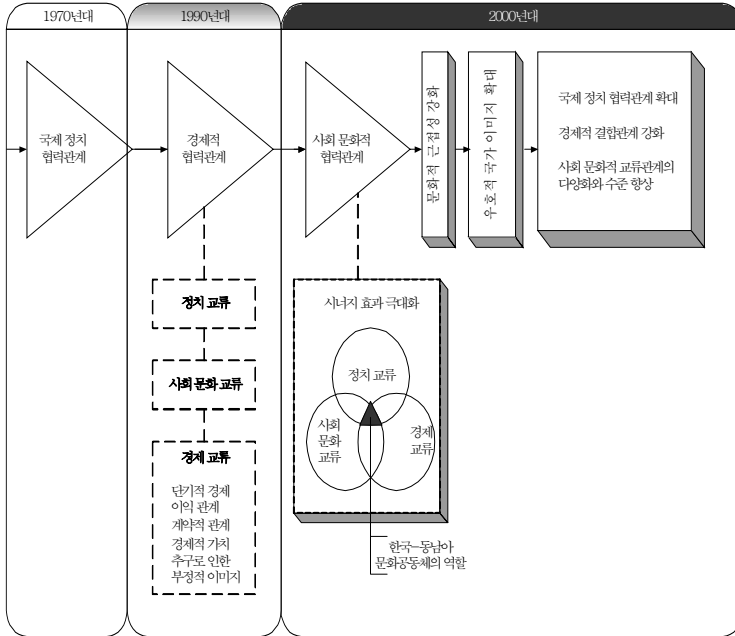
일반 환경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공동체 형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한국-동남아시아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근접성을 강화시켜준다. 즉, 앞서 분석된 한국-동남아시아 4개국간의 근접성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된 근접성이기보다는 지난 역사적

경험과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된 상대적인 근접성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근접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더욱 확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근접성의 강화는 나아가 향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동남아 국가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단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체 노력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또한 실질적인 공동체 노력은 다시 한국-동남아간의 근접성을 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가진다. 과거 한국과 베트남간 교류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근접한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의 현지 진출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동남아 국가간의 교류는 대부분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적 협력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의 경제력과 산업구조에 맞는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한국과 동남아 4개국간의 근접성은 경제 교류에 치우친 근접성이자 정치와 사회·문화적 교류에 의한 근접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접성은 향후 한국-동남아시아간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치, 사회·문화적 근접성의 튼튼한 기반이 없는 경제적 이익관계를 목표로 한 경제적 근접성은 언제든지 해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70년대의 한국과 198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교류관계에 치중하여 지역에서 '일본은 경제적 가치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의 국가'라는 비판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현재 일본에 대한 현지의 국제 협력 혹은 일본 문화의 현지 전이의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현지 국가의 경제적 지배력(직접투자의 감소로 인한)이 약해지자 한때 유행하던 일본 문화에 대한 퇴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다행히 한국의 대 동남아 교류관계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지의 노사관계 문제 등의 갈등으로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지만 최근 한국의 대중문

화의 열풍 등 아직까지는 상당히 우호적인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교류 관계가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적 교류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사회·문화적 협력 개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한국-동남아시아간의 교류관계를 경제적 이익관계 수준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협력과 공존을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협력 관계 강화는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 사회·문화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동남아시아간의 다양한 이익 집단의 문화공동체 형성이다. 아래의 그림은 향후 한국과 동남아시아간의 교류시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모델이다.

<그림 VII-14> 사회·문화적 협력관계와 기대 효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류관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해야 할 사회·문화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현실적인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각 부문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및 외교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 외교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정부 관계자의 문화적 인식과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한국 행정 제도의 현지화를 지원한다. 나아가 양국 정부의 문화 관련 또는 문화 산업 조직의 정책 세미나 및 인적 교류 강화도 필요하다. 둘째, 경제 활동 교류 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 투자 기업의 협력적 노사 관계 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한국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한국 이미지와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며, 한국 투자기업을 통한 사회·문화 활동과 더불어 한국 투자기업의 한국 문화 마케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 교류 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학 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베트남 내의 한국인의 불법적인 행위의 근절을 통해 도덕성 회복과, 한국과 현지의 종교 및 인권 단체 등의 민간 사회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문화상품과 연계한 문화교류 행사의 전략적 기획과 지원을 도모하며, 양 국가간의 문화 활동 단체의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 산하의 문화 정책 및 지원기관의 정책 회의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현지의 한국 정부기관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행사의 조정기구를 조직한다. 양 국가간의 문화 산업 교육 기관의 교육 세미나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 또는 현지의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 우수한 현지인을 친한 한국 문화 전문가로 양성한다. 또한, 한국 내 동남아시아 장기 체류자의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향후 양국간의 중요한 인적 채널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한 정부 부처간의 전략적 협조가 기본 조건이다. 여기서 주도적이란 의미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각 부문의 이익단체의 문화공동체 형성시에 적극적

인 지원과 협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화상품 관련 진출 기업은 문화상품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우선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문화상품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동시에 이에 따른 현지의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 시키는 데에 있다. 상기에 언급한 사회·문화적 협력 교류관계를 위한 예들은 이미 현재 교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 부처간의 전략적 협조 하에서 별도의 예산의 투입이 없이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문화 제국주의’적 정책은 지양해야한다. 한국과 미국 혹은 일본과 미국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미국과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 관계가 확대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 관계의 문제점은 미국에서 한국 또는 일본으로의 일방적 흐름이었고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는 문화상품의 교역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로 인하여 미국은 문화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반미주의적 청년문화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미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충돌도 종종 일어난다. 따라서 문화적 근접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호 호혜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구문모·임상오·김재준.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휴중. 『경제환경변화와 한국 문화산업』.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8.
- _____. 『한국대중문화산업 발전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9.
- 박기성. 『문화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 서울: 평민사, 1983.
- 문화관광부.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2000.
- _____. 『문화산업육성정책방향 워크샵 자료-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정책』. 서울: 문화관광부, 2001.
- _____. 『북경올림픽의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효과분석』. 서울: 문화관광부, 2001.
- _____.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서울: 문화관광부, 2002.
- _____.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0.
- 심상민. 『콘텐츠비즈니스의 새 흐름과 대응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전동해. 『문화콘텐츠 업체 중국 진출의 사례(게임산업 경우)』. 서울: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2002.
- 조혜영. 『중국청소년들의 한류 인식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 안병선. 『21세기 황금시장 문화산업』.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1.
- 은병수. 『문화콘텐츠산업계의 문화 예술 인력 수요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2002.
- 윤선희. 『영상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연구』. 서울: 한국

- 방송진흥원, 1998.
- 유세경·정윤경. 『멀티미디어 시대의 영상콘텐츠 유통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 방송위원회, 2003.
- 영화진흥위원회. 『상반기 한국영화시장 결산』.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정책
연구팀, 2003.
- _____. 『국가별 수출현황 12월31일 기준』.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진흥
부, 2002.
- _____. 『2001년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
실, 2001.
- _____. 『2002년도 상반기 (1월-6월) 한국영화시장 결산』. 서울: 영화진흥
위원회 정책연구실, 2002.
- _____. 『국적별 관객점유율, 배급사별 시장점유율 등』. 서울: 영화진흥위
원회 정책연구실. 2002.
- _____. 『2001년도 한국영화산업규모 예측(극장중심으로)』. 서울: 영화진
흥위원회 정책연구실. 2001.
- _____. 『[2001년 4월 영화포럼] 영화에서의 저작권』.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 2001.
- _____. 『2001년2월 영화포럼] 중국·일본영화산업 현황과 합작 가능성』.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 2001.
- _____. 『2000년 한국영화결산 및 관객조사 결과 분석』. 서울: 영화진흥위
원회 정책연구실, 2000.
- _____. 『일본대중문화 3차개방 관련 참고자료』.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정
책연구실, 2000.
- _____. 『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연구』.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01.
- _____. 『영화콘텐츠의 문화,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 서울: 영화진흥위
원회, 2001.
- _____.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01.
- _____. 『아시아영화산업현황과 지역내 협력방안』.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 2001.
- 이형호. 『한류에 관하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2.
- 이케가미 준. 『문화경제학입문』.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2.
- 홍영준. 『소비자 지향적 문화산업정책』. 서울: 집문당, 2002.
- Albarran, Alan, B. *Media Economics: Understanding Markets, Industries and Concepts*. IA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 Andersen, Robin. *Consumer culture and TV Programming*. Boulder: Westview Press, 1999.
- Appadurai, A.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Arnold, M. *Culture and Anarc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69/1932.
- Barker, C. *Global Television: An Introduction*. Malden: Blackwell, 1997.
- Benedict R. *Patterns of Culture*. 1935.
- Bloom A. *The Closing of American Mind*. Simon and Schuster, 1987.
- Bonvillain, Nancy.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3.
- Boulding, K. E.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56.
- CIA. *CIA World Fact Book - Vietnam*. Washington, 2003.
- Collins, R. et al. *The Economic of Television: The UK Case*. London: Sage, 1988.
- Eastman, Carol M. *Aspects of Language and Culture*. CA: Chandler and Sharp, 1990.
- Fasold, R.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 Farb, P. *Word Play: What Happens When People Talk*. Toronto: Bantam Books, 1973.
- Featherstone, M.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A Theory, Culture and Society Special*. CA: Sage, 1990.
- Friedman, J. *Cultural Identity and Global Process*. London: Sage, 1994.
- Goonasekera, A. *The New Communications Landscape: Demystifying Media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udykunst, W. B. and Kim, Y. Y. *Communicating with Stranger: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1997.
- Heilbrun, J. and C. M. Gray. *The Economics of Arts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Herskovits, M. *Cultural Relativ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2.
- Johnson, P. *Modern Times*. New York: Harper and Row, 1983.
- Kroeber, A. L. *Handbook of Indians of California*. 1925.
- Livingstone, S. *Making Sense of Television: The Psychology of Audience Interpretation*. Oxford: Pergamon Press, 1990.
- Lynd, Robert S and Helen M. *Middletown in Trans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29.
- Marcus, G. and Fisher M.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 Mattelart, A.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Control of Culture*. Sussex: Harvester, 1979
- McDaniel, D. O. *Broadcasting in the Malay World*. New Jersey: Albex, 1994.
- Mowlann, H. M. *Global Communication in Transition*. Thousand

- Oaks, CA: Sage, 1996.
- Olson, S. R. *Hollywood Planet: Global Media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rrative Transparency*. New Jersey: LEA, 1999.
- Pricewaterhouse 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2-2006*. New York, 2002.
- Robertson, R.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2.
- Sage Publication Asia. *Media Index by Demographic Statistics*. Sage, 2002.
- _____.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Sage, 2000.
- Salzmann, Z.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Shanahan, J. and Morgan, M. *Television and Its Viewers: Cultivation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Schiller, H. I. *Communications and Cultural Domination*. White Plains, N.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 Press, 1976.
- Tomlinson, J. *Cultural Imperi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91.
- UNESCO (1982), *Cultural Industries*. Paris: UNESCO, 1982.
- Varis, T. *International Flow of Television Programmes*. Paris: UNESCO, 1985.
- Vogel, H. L. *Entertainment Industry Economics: a Guide for Financi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Wallerstein, I. *After Liberalism*. New York: New Press, 1995.
- _____. *Geopolitics and Geoculture: Essays on the Changing*

World-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Williams, R.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1958.

2. 논문

- 강응선. “문화시장 개방의 경제적 접근.” 『문화정책논총』. 제9집. 1998.
- 김규원. “문화정책성과 세계화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 논총』 제13집. 2001.
- 김기태. “한국 비이익 단체의 베트남 활동 연구.” 『베트남-한국간 학술 세미나』. 하노이, 2000년 9월 28-29일.
- 김상겸. “인도네시아 - 경제문화의 변화.” 『국제지역정보』. 8권 6호. 2004.
- 김임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연구.” 『시정연구』. 제20호. 2000.
- 라츠, 조지프. “복합문화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철 편. 백한울 외 역. 『21세기 문화 미리보기』. 서울: 시각과 언어, 1996.
- 박영목. “디지털화에 따른 영상미디어의 저작권 문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2001.
- 박혜자.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전략.” 『도시행정학보』. 제13권 1호. 2000.
- 정윤경.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시장 진입에 관한 연구: 아시아 프로그램 유통에 관한 대안적 모델을 위하여.” 『2001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학회. 2001. 5.
- 영화진흥위원회. “아시아영화산업 현황과 지역 내 협력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0-3』. 2002.
- 이동호. “한국경제의 탈공업화와 문화산업의 수출화 과제.” 『산경논집』 제16권. 제1호. 2001.
- 현택수. “문화의 세계화 담론과 문화정책성.” 『문화정책』 제 13집. 2001.

- Blackwell, Schiller, G. Basch N., and Blanc-Szanton, C. "Towards a Definition of Transnationalism: Introductory Remarks and Research Questions." N. G. Schiller, Basch N., and Blanc-Szanton, C. (eds) *Towards a Transi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NY: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92.
- Baldwin, J. R. and Hunt, S. K..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n Intercultural and Intergroup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8, No. 2. 272-286. 2002.
- Barnett, G. A. and Danowski, J. A..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A Network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9, No. 2, 264-285. 1992.
- Barnett, G. A. and Choi, Y. "Physical Distance and Language as Determinants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No. 16, 249-265. 1995.
- Barnett, G. A. Salisbury. J. G. T., Kim, C. and Langhorne, A.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 Examination of Monetary, Telecommunications, and Trade Network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Vol. 6, No. 2. 7-49. 1999.
- Blanton, R. G.. "Trading Blocs and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Insights and Evidence." *Sociological Inquiry*. Vol. 69, No. 2. 187-215. 1996.
- Boyd-Barrett, O. "Media Imperialism: Toward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Media Systems." J. Curran, M. Gurevitch, and J. Woollacott (Eds.). *Mass Communication*

- and Society*. 116-135. CA: Sage, 1977.
- Chadha, K. Kavoori. A. "Media Imperialism Revisited: Some Findings from the Asian Case." *Media Culture and Society*. No. 22, 415-432. 2000.
- Chan, J. "Transborder TV, National Identities and Globalization in the Asian Context."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Transnational Program Flow and National Images. Identit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orea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Studies. 2001. 9.
- Chan, J., Ma, K. E. "Asian Television: Global Trend and Local Processes." *Gazette*. Vol. 58, No. 1. 45-60. 1996.
- Chang, Y. I. "From Globalization to Localization: The World's Leading Television News Broadcasters in Asi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1, No. 1. 1-24. 2001.
- Ching, L. "Globalizing the Regional, Regionalizing the Global: Mass Culture and Asianism in the Age of Late Capital." *Public Culture*. Vol. 12, No. 1. 233-257. 2000.
- Choi, Y. "The Effect of Social and Physical Distance on the Global Communication Networks." *Gazette*. Vol. 54, No. 2. 163-192. 1994.
- De Bens, E. and De Smaele. H. "The Inflow of American Television Fiction on European Broadcasting Channels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6, No. 1. 51-76. 2001.
- Dupagne, M. and Waterman, D. "Determinants of U. S. Television Fiction Import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 42, No. 2. 208-220. 1998.
- Emmison, M. "Transformations of Taste: Americanisation, Generational

- Change and Australian Cultural Consump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Sociology*. Vol. 33, No. 3. 322-343. 1997.
- Featherstone, M. and Lash, S. “Globalization, Modernity and the Spatialization of Social TheoryL An Introduction.” M. Featherstone, S. Lash and R.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London: Sage, 1995.
- Fuentes-Bautista, M. and Barnett, G. A. “Telecommunications in the era of trading blocs: A longitudinal network analysis of the Ameircia (1991-1996).”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00.
- Garnham N. “Concepts of Culture: Public Policy and the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Studies*. Vol. 1. No. 1. 1987.
- Hall, C. P. “National Images: A Conceptual Assessment,” paper presented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Boston, 1986.
- Hamelink, C. J. “Globalism and National Sovereignty.” K. Nordenstreng and H. I. Schiller(eds.). *Beyond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the 1990s*. Norwood: Ablex, 1993.
- Hester, A.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Predicting Volume and Direction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Flow.” *Gazette*. Vol. 19. 238-247. 1973.
- Holton, R. “Globalization’s Cultural Consequenc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 No. 70. 140-152. 2000.
- Hong, J. and Hsu, Y. C. “Asian NICs’ Broadcast Media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Trend of Commercialization and its

- Impact. Implications and Limits.” *Gazette*. Vol 61. No. 3. 225-242. 1999.
- Iwabuchi, K. “Use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Trans/nationalism and Postcolonial Desire for ‘Asia.’” *Emergences*, Vol. 11, No. 2. 2001.
- Hoskins, C. and Mirus, R. “Reasons for the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s.” *Media, Culture and Society*. No. 10. 499-515. 1988.
- Kearney, M.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nd Transition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No. 24. 547-565. 1995.
- Kim, K. and Barnett, G.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news flow: A network 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Vol. 23, No. 3. 323-352. 1996.
- Lee, Paul S. N., “Toward a Theory of Transborder Television.” Anura Goonasekera and Paul Lee (eds.). *TV without Borders: Asia Speaks Out*. 274-286. Singapore: Asian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1998.
- McAnany, E. “The Logic of Cultural Industri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vergence or Conflict?” B. Dervin (ed).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1-29, 1986.
- Nordenstreng, K. “Sovereignty and Beyond.” K. Nordenstreng and H. I. Schiller (eds). *Beyond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the 1990s*. Norwood: Albex, 1993.
- Richstad. “Asian Values and Transitional Television: The Battle in the Sky for Markets and Cultures.” A. Goonasekera and P. Lee (eds). *TV without Borders: Asia Speaks Out*. 287-306. 1998.

- Robertson, R. "Glob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M. Featherstone, S. Lash and R. Robertson (eds). *Global Modernities*. 25-44, London: Sage, 1995.
- Schement, J. "The international Flow of Television Programs." *Communication Research*. Vol. 11, No. 2. 163-181. 1984.
- Sinclair, J. "Geolinguistic Region as Global Space: The Case of Latin America." G. Wang, J. Servaes and A. Goonasekera (eds). *The New Communications Landscape: Demystifying Media Globalization*. 19-32. London: Routledge, 2000.
- Straubhaar, J. D. "Distinguishing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of World Television." Sreberny-Mohammadi, A., Winseck, D., McKenna, J and Boyd-Barret. *Media in Global Context: A Reader*. 284-298. New York: Arnold, 1997.
- Straussfogel, D. "World-systems Theory: toward a Heuristic and Pedagogic Conceptual Tool." *Economic Geography*. Vol. 73, No. 1. 118-30. 1997.
- Tomlinson, J. "Cultural Globalization and Cultural Imperialism." A. Mohammadi (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z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170-190. London: Sage, 1997.
- To. Y. M. and Lau. T. Y. "Global Export of Hong Kong Television: Television Broadcasts Limited."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 No. 2. 108-121. 1995.
- Varis, T. "The International Flow of Television Program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4, No. 1. 143-152. 1984.
- Waterman, D. and Rogers. E. M. "The Economics of Television Program Production and Trade in Far East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44(3). 89~111. 1994.
- Wildman, S. and Siwek, S. "The Economics of Trade in Recorded

Media Products in a Multilingual World: Implications for National Media Policies.” E. Noam and J. Millonzi (eds.), *The International Market in Film and Television Programs*. 13-40. Norwood, NJ: Alex, 1993.

Yaple, P. and Korzenny, F. “Electronic Mass Media Effects across Cultures.” M. K. Asante and W. B. Gudykunst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 기타

김부영.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영화산업의 문화산업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설화. 「중국의 ‘한류’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김 영. 「방송 프로그램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시장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 영상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재은. 「중국 신세대 패션에 나타난 한류 현상 분석」. 충남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박정욱. 「한류가 한국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광상품개발에 주는 시사점」. 한양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신혜선. 「중국청소년의 한국대중음악 수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용진. 「한국시장에서의 캐릭터 개발과 비즈니스에 관한 연구」.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양재완. 「한국음반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 :음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원준. 「애니메이션캐릭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인하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세경, 이경숙, 정윤경.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유통 결정요인과 그 정책적 함의.” 『국제 심포지움 ‘글로벌시대, 방송프로그램의 유통과 국가 이미지, 정체성』. 한국방송학회, 2001년 9월 20일.
- 유지연. 「온라인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효진. 「한국 국가 이미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홍보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 임기준. 「한류와 TV드라마 프로그램의 수출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제작시스템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철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